



효자문화의집

목차

I. 효자문화의집 소개	005
1. 효자(孝子)의 유래	006
2. 효자문화의집 소개	008
3. 효자문화의집 일반현황	010
II. 효자문화의집이 걸어온 길	013
1. 연보	014
2. 효자문화의집 흔적들	031
III. 주요활동	039
1. 2002년 - 2004년	040
2. 2005년 - 2010년	041
3. 2011년 - 2016년	048
4. 2017년 - 2020년	066
IV. 동호회 소개	123
V. 함께한 사람들 이야기	139





효자문화의집

I

효자문화의집 소개

1. 효자(孝子)마을의 유래

효자라는 동명 유래는 이 지역에서 살던 효자“장개남의 효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1627년(인조 5년)에 효자리에서 살았던 장개남(張凱男)이 효자로 정려를 받아 효자문이 세워진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1530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3권 전라도(全羅道) 전주부(全州府)에“효자리(孝子里) 부의 남쪽 3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려 시대 1199년(신종 2년) 이규보(李奎報)가 전주사록(全州司錄, 고려시대의 지방관직으로 목·도호부·유수관에 파견한 7품 관직)으로 있을 때 지은‘효자리’라는 시에도 기록되어 있다.

국립전주박물관 근처에 1888년 정려문을, 2002년 5월 효자공파 중종이 이를 널리 알리는 장개남정려문 중수비(重修碑)를 세웠다.



“이 정려문은 장개남의 효심을 기리기 위하여 1888년 나라의 명에 의하여 건립되었다. 효자 개남은 인동장씨 시조인 全用의 19세손인 송탄(松灘) 응두(應斗)의 아들로서 천성이 순후하고 효심이 지극하여 아버이 섬기기를 정성을 다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을축년에는 부친께서 중병을 얻어 사경을 헤매일 때 잡수고 싶은 것을 물었던바, 기러기 고기를 원하시기에 개남은 울면서 하늘을 향해 빌었더니 이윽고 눈에 기러기 한 마리가 떨어져 이를 부친께 봉진하였더니 병이 나으셨다. 이로부터 개남의 효성이 널리 퍼져 천계(天啓) 7년(인조 5년 정묘)에 전라감영에서 조정에 상주하여 정려문도 세우

고 표창도 받았다. 그 후 자손들이 기러기가 떨어졌던 논을 매수하여 종토로 삼고 안락답(雁落畓)이라 칭하고 정문이 세워진 후 이곳을 효자리라 하였으며 지금의 효자동도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개남정려문 중수비의 하단 내용을 보면“정문이 세워진 후 이곳을 효자리라 하였으며 지금의 효자동도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새겨져 있으며, 전주역사박물관에서 2018년 인동 장씨가에서 기증한 120점의 유물을 중심으로“효자동의 유래 인동장씨家 이야기”특별전을 진행하였다.

역사적으로 효자동은 본래 전주군 우림면과 이동면 지역이었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현재의 효자동 1가는 우림면 송정리, 효자동 2가는 우림면 효자리, 효자동 3가는 이동면 홍산리가 되었다. 1935년 3월 1일 우림면과 난전면이 우전면으로 합쳐졌고,¹⁾ 1940년 11월 1일 이동면 4개리가 전주부에 편입되어 폐지되면서 이동면 홍산리가 우전면에 편입되었다.²⁾ 1957년 11월 6일 우전면 송정리, 효자리, 홍산리가 전주시에 편입되었고,³⁾ 같은 해 12월 12일 송정리를 효자동 1가로, 효자리를 효자동2가로, 홍산리를 효자동 3가로 하였다.⁴⁾ 1980년대부터 효자동 1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전주시의 원도심에서 가까운 동부(현 효자1동)에서 서쪽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팽창해 발전해온 지역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 2018년 7월 1일에 효자 5동이 신설되었다.⁵⁾

2000년대에는 삼천 서쪽인 효자동 2가와 3가에 서부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전라북도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북지방경찰청, KBS 전주방송총국 신사옥, 호남지방통계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지방우정청 등 전라북도의 주요 관공서와 시설이 들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 도령 제1호 (1935년 1월 30일)

[2] 조선총독부령 제220호 (1940년 10월 23일)

[3] 법률 제453호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57년 11월 6일)

[4] 전주시 조례 제108호

[5] 전주 혁신도시·효자동 분동 재편 티브로드 전주방송, 2017.12.1.

2.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소개

전주시 문화의집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12년 4월 5일 “전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시민의 창의적 문화 활동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해 설치되었다.

전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19년 12월 20일 일부 개정, 2020년 10월 8일 전부 개정, 2020년 10월 8일 전부개정으로 시대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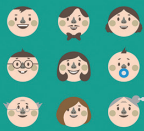
전주시 문화의집은 2000년 진북문화집 개관을 시작으로 2001년 삼천문화의집, 2002년 우아문화의집, 효자문화의집, 아중문화의집, 2003년 인후문화의집 6개소로 개관 운영 중 2005년 5월 아중문화의집이 전주시평생학습센터로 변모 개관하여 진북문화의집, 인후문화의집, 우아문화집, 삼천문화의집, 효자문화의집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문화의집 초기 운영 수탁 방식을 보면 삼천문화의집은 문화의집운영위원회, 진북, 우아, 아중문화의집은 주민자치위원회, 효자문화의집은 문화예술단체가 운영을 시작하여 변화를 거쳐 현재는 문화예술 법인,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다.

문화의집의 명칭 변화는 2014년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해 생활문화정책 및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생활문화센터가 전국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로 명칭이 변화하였다.

효자문화의집 개관

효자문화의집이 개관되는 2002년에 전주시는 본격적인 생활문화의 시대가


생활문화는 '행복'을 싣고~

09.18 저녁7시

오연호의 '행복 토크' 09.18(화) 저녁 7시
오마이뉴스 대표

무엇도 행복할 수 있을까?
특집 이후 저자 반사민희
·연상 :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주제 : 르네상스
·예술원프 꽃이님 현영준& 서정공주

이영희의 더불어 아이노리 09.18(화) 저녁 7시
5세~초등3학년생 25명

어른특강을 신청한 사람이 한하여
아이노리 프로그램 접수가능
·연상 : 세대로 놀러간 아이들

생활문화센터 개관전시 09.18(화) - 10월

바오리가 이세원 사진전 공개

우리 동네 공유책장 만들기 생활문화센터 개관 축하
이벤트 참가자만 참여
·내가 좋아하는가나 추천하고 싶은 책 한권의 책
·가방형 책은 공유책장에 보관되며 언제든지 책을 한권
·가져오시면 집에 있는 다른 책으로 교환가능합니다

09.19

생활문화축제 노는 날 '서부시장 행복난장'
장소: 서부시장 주차장(구 남노길비)

책텐트 09.19(수) 오후 2시 ~ 6시
진행 :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북-북

마이 브랜딩 09.19(수) 오후 2시 ~ 9시
진행 : 문화자원봉사단 '키퍼수'

'전통음식의 색다른 만남' 09.19(수) 오후 2시 ~ 6시
진행 : 대금동호회 '대금아름'

행복한 밥상 09.19(수) 오후 2시 ~ 6시
진행 : 이웃과 나누는 먹거리 동호회 '집밥'

청소년 문화자원봉사단 네트워크 '행복난장'

09.19(수) 오후 2시 ~ 6시
동네 아이들이 만드는 생활문화 놀이터

진행 : 효자동 해피아이넷
우원호, 서민호, 서천주, 우원준
도광·연광 지역아동센터, 효자청소년문화의집
효자사내아동집

**자스민 예술단 & 청소년 동아리 공연지
'도시 속 가을을 읊음'**

09.19(수)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서부시장 상점가 '금한상' 경음행사도 함께합니다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문화재단, 서울특별시문화재단, 서울특별시문화재단

열리는 시기였다. 3월 22일 우아문화의집, 3월 21일 효자문화의집, 4월 4일 아중문화의집이 문을 열었다.

효자문화의집 개관식은 2002년 3월 21일 현재 운영중인 효자3동 주민센터 2층에서 진행되었다. 초대 관장인 서양렬(現. 금암 노인복지관 관장)은 “가족 생활문화 쉼터로서의 기능을 지향하고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프로그램을 주로 늦은 오후에 편중시키는 등 저녁 10시까지 개방, 가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녁 시간의 프로그램을 강화 운영방침을 표방하여 지역민들의 기대 속에 개관식을 가졌다.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개관

2014년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에 의해 지역민들의 일상성과 자발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로 거듭나는 변화가 있었다.

효자문화의집은 문화시설과 유희공간을 리모델링 하여 2015년 9월“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개관식을 문화예술동호회와 전주시민들이 함께 “생활문화는 행복을 싣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활문화축제 형식으로 이틀간 진행하였다. 9월 18일 개관 공식행사와“행복 토크”특강 등으로 진행되었고, 19일까지“서부시장 행복난장”이 진행되었다.

기존 문화의집의 공간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리모델링 하여 지역 내 동호회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참여와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3.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일반현황

1) 개관

2002년 3월 21일 개관

2015년 9월 18일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 완료 및 재개관

2)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180번지(효자동 1가 408-9)

3) 운영시간

– 주중 : 9시~21시 (2층, 3층)

– 주말 : 10시~17시 (2층)

– 휴관 : 일요일, 국경일, 명절

4) 공간구성 :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2층(연면적 438.2m²)



북카페

면적 115.20m²

로비공간으로 카페, 도서 기능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진행하는 공간



퇴움방

면적 42.12m²

요가 등 건강 관련 동화들이 사용하는 공간



채움방

면적 48.2m²

강의, 세미나, 회의 등으로 활용하는 공간



쉼

면적 21.84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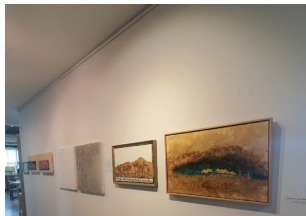
미술 동호회 전용 공간



이음방

면적 34.56m²

악기 동호회들이 사용하는 방음 공간



전시홀

면적 50.88m²

미술 전시 공간

또바기 : 면적 50.88m²,사무 전용 공간

기타 : 면적 40.40m²,탕비실, 화장실, 계단 등



효자문화의집

II

효자문화의집이 걸어온 길

1. 연보

2002년 - 2004년 /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

2002년 2월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이 전주시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3월 21일 현재 운영 중인 효자3동 주민센터 2층 개관식으로 2004년까지
서양렬 초대 관장 취임으로 운영되었다.

2002

- 03월 17개의 상반기 프로그램 개강, 4월 자원봉사단 발대식,
- 06월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결연식을 맺었다.
- 07월 23개의 하반기 프로그램 개강과
지역 아동을 위한 "꿈나무 교실", "엄마와 함께하는 동화구연" 프로그램 운영
- 10월 효자동 가족문화축제를 진행하였다.

2004

- 02월 겨울방학캠프 "선비문화 체험 캠프" 진행
- 06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당나귀 음악회를 개최
- 08월 여름방학캠프 "소달구지 캠프"
- 10월 효자동 가족문화축제 당나귀 음악회,
- 12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당나귀 음악회 진행,
문화복지 4호-8호를 발간하였다.

2003

- 01월 상반기 프로그램 40개를 개강
- 02월 "엄마와 함께 하는 동화구연"
- 04월 찾아가는 문화한마당 "삼천에서 놀자" 운영
- 05월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 효자동 역사 찾기를 진행
- 11월 효자문화의집 문화강좌 수강생 발표 및 전시회를 진행

2005년 - 2007년 / 놀이패 우리마당

2005년 전주시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기관은 놀이패 우리마당이 선정되어
김선태 관장이 취임하여 2007년까지 운영하였다.

2005

- 02월 정월 대보름맞이 "망월이야기"가 진행.
- 05월 전북사랑! 역사 문화기행(5월 21일-11월 26일)을 진행.
- 07월 32개 하반기 프로그램 개강, 8월 전주문화의집 공동발표회 "여인락" 진행.
- 09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삼천 사랑 생태탐사 프로그램인
삼천에서 사는 자연의 친구들은 누가 있을까?
한 여름밤의 당나귀 음악회를 진행

2007

- 05월 문화바우처 사업 시행
- 06월 전동휠체어 장애인 타악 연주단 프로그램을 운영
- 07월 사회취약 계층 수화 인형극 개최
- 10월 전주 삼천 깃발 축제를 진행
- 12월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문화예술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2006

- 02월 정월대보름맞이 "굿" 진행.
- 05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효자마을 상상 풍경 프로그램 진행
- 06월 문화바우처 '신나는 예술여행' 주관처로 선정
- 08월 도민 문화예술사회교육 '삼천사랑 생태탐사',
- 09월 이웃과 함께하는 당나귀 음악회,
- 10월 삼천문화 공간화사업 '갯강축제'

2008년 - 2010년 / 놀이패 우리마당

놀이패 우리마당이 전주시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기관으로 재선정되어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운영하였다.

2008

- 03월 공감 연습 프로젝트“예비초등학생을 위한 집중력을 높여라”운영.
- 04월 장애아동과 함께하는“정 심고 붓꽃타요”를 운영하였고,
- 05월 우리 가족 공감 통통 스토리 진행과
- 06월 “단옷날 옛 사진으로 즐기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운영.
- 09월 천년전주사자소학 프로젝트를 진행.
- 10월 ‘우리동네 잔치잔치 열렸네’발표회 및 ‘네자리, 내자리’전시회.

2010

- 02월 정월대보름‘서신동 달맞이 가세’행사 진행.
- 03월 세내가 권역 문화 예술공간화 프로젝트를 진행.
- 04월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삼천을 느리게 걷자’ 진행.
- 12월 전북 문화바우처 체험 수기 전시회를 진행.

2009

- 02월 세시풍속“정월 대보름 굿!”행사 진행.
- 04월 판화가‘지용출’전시(4/1~4/8)회 개최.
- 09월 전주시 문화의집 공동프로젝트‘한절리 문화지표조사’,
지역문화자원 활용사업‘항방산을 시로 쓰다’,
- 11월 인문학 강좌‘전주의 소소한 여성 이야기’를 진행.

2011년 - 2013년 / 사)문화연구 창

사)문화연구 창이 2011년 전주시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기관에 선정되어
2013년까지 운영을 맡게 되었고 강현정 관장이 취임하였다.

2011

- 01월 문화자원봉사단'효자동 사람들'사진 기획전시(언니 이야기)를 열었으며,
- 06월 전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봉사 네트워크를 운영하였다.
- 08월 '그림책 속~으로 들어간 효자마을' 진행, 가족 생태탐사대'세내놀이터',
- 11월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문화예술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 12월 동짓날'알이 동동, 정이 동동'진행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3

- 02월 서신동 정월대보름'전주천 달맞이 가세'행사 지원.
- 03월 우리 동네 구석구석 예술캠프-도심 속 소리'울림'을 진행.
- 04월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세내문화예술 동네를 꿈꾸는 아지트'진행.
- 08월 제12회'강의 날' 대회를 참가(세내로 놀러 간 아이들, 온새미로).
- 11월 제2회 세내포럼'세내야 우지마라',
문화자원봉사단'북북'그림자극 공연-효자동 이야기 개최.

2012

- 02월 서신동 정월대보름축제, 창의적체험활동 연구모임'움트는 소통'운영,
- 04월 평생학습마을만들기'세내플랫폼'기관네트워크를 진행.
- 05월 문화자원봉사단 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 09월 '호락호락 행복동'세내마을축제와
- 12월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문화예술분야 우수기관 으로 선정.

2014년 - 2016년 / 사)문화연구 창

사)문화연구 창이 전주시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기관으로 재 선정 되어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운영하였다.



2017년 - 2020년 / 예술기획 My Stage

전주시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기관으로 예술기획 My Stage가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선희진 관장이 취임하여 운영하였다.



2002년 - 2004년 /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

2002년 2월“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이 전주시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3월 21일 현재 운영 중인 효자3동 주민센터 2층 개관식으로 2004년까지 서양렬 초대 관장 취임으로 운영되었다.

2002년

3월 17개의 상반기 프로그램 개강, 4월 자원봉사단 발대식,

6월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결연식을 맺었다.

7월에 23개의 하반기 프로그램 개강과 지역 아동을 위한“꿈나무 교실”, “엄마와 함께하는 동화구연”프로그램 운영과

10월에 효자동 가족문화축제를 진행하였다.

2003년

1월 상반기 프로그램 40개를 개강하였으며,

2월 “엄마와 함께 하는 동화구연, 3월 노인을 위한“행복한 노후교실”,

4월 찾아가는 문화한마당“삼천에서 놀자”운영과

5월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 효자동 역사 찾기를 진행 하였다.

7월 33개의 하반기 프로그램 개강으로

8월 삼천문화마당“할아버지께서 부르셔”진행과

11월 효자문화의집 문화강좌 수강생 발표 및 전시회를 진행하였으며, 문화복지 1호-3호를 발간하였다.

2004년

1월 41개의 상반기 프로그램 개강을 시작으로

2월 겨울방학캠프“선비문화 체험 캠프”프로그램 진행,

6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당나귀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7월 41개의 하반기 프로그램 개강과

8월 여름방학캠프“소달구지 캠프”를 8월 6일과 7일 이틀간 진행하였다.

9월에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행복한 노후교실”을 개강하였으며, 추석

한마당“강강수월래”운영,

10월 효자동 가족문화축제 당나귀 음악회,

12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당나귀 음악회 진행, 세시풍속 한마당인“동지 팔 축제”를 진행함과 더불어 문화복지 4호-8호를 발간하였다.

2005년 - 2007년 / 놀이패 우리마당

2005년 전주시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기관은 놀이패 우리마당이 선정되어 김선태 관장이 취임하여 2007년까지 운영하였다.

2005년

1월 45개 상반기 프로그램 개강으로 6월까지 운영되었고,

2월 정월 대보름맞이“망월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다.

5월 전북사랑! 역사 문화기행(5월 21일-11월 26일)을 진행하였다.

7월 32개 하반기 프로그램 개강,

8월 진주문화의집 공동발표회“여인락”진행,

9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삼천 사랑 생태탐사 프로그램인 삼천에서 사는 자연의 친구들은 누가 있을까?, 한 여름밤의 당나귀 음악회를 진행하였으며

10월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당나귀 음악회를 진행하였다.

2006년

2월 정월대보름맞이“굿”진행, 3월 좋은 부모 되기를 꿈꾸는 엄마들을 위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엄마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5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효자마을 상상 풍경 프로그램을 9월까지 4회 진행하였으며,

6월 문화바우처‘신나는 예술여행’주관처로 선정되었다.

8월 도민 문화예술사회교육‘삼천사랑 생태탐사’,

9월 이웃과 함께하는 당나귀 음악회,

10월 삼천문화 공간화사업‘갯강축제’,

12월 세시풍속 나눔'동지축제'를 진행하였고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07년

4월 30개의 프로그램 및 12개 동호회 운영,

5월 문화바우처 사업 시행과

6월 전동휠체어 장애인 타악 연주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7월 사회취약 계층 수화 인형극을 열었고

10월에는 전주 삼천 갯밭 축제를 진행했으며,

11월 전동휠체어 장애인 타악연주단 창립공연 및 순회공연,

12월 동지축제를 진행했으며,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문화예술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08년 - 2010년 / 놀이패 우리마당

놀이패 우리마당이 전주시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기관으로 재선정되어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운영하였다.

2008년

3월 공감 연습 프로젝트“예비초등학생을 위한 집중력을 높여라”,

4월 27개 문화강좌 및 17개 동호회 운영, 장애아동과 함께하는“정 심고 봉 꽃타요”를 운영하였고,

5월 우리 가족 공감 통통 스토리 진행과

6월 “단옷날 옛 사진으로 즐기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운영하였다.

9월 30개 문화강좌 및 19개 동호회 운영을 시작으로 천년전주사자소학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10월 ‘우리동네 잔치잔치 열렸네’발표회 및 ‘네자리, 내자리’전시회, 효자·삼천 갯강 축제와

11월 사회 취약계층 수화인형극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2009년

2월 세시풍속“정월 대보름 굿!”행사 진행과

4월 판화가‘지용출’전시(4/1~4/8)회를 열었으며,

6월 문화예술기행 이집트 문명전“파라오와 미라”, 서신동 재뜸마을 생활 공동체 사업“재뜸1 과거, 현재, 미래와 소통하다”를 진행하였다.

9월 전주시 문화의집 공동프로젝트‘한절리 문화지표조사’, 지역문화자원 활용사업‘항방산을 시로 쓰다’,

11월 한절리 문해교실‘내 이름은 윤순기’, 문화자원봉사단 효자동사람들 인문학 강좌‘전주의 소소한 여성 이야기’를 진행하였다.

2010년

2월 정월대보름‘서신동 달맞이 가세’행사와

3월 세내가 권역 문화 예술공간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4월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삼천을 느리게 걷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세내를 그리다. 세내를 담다’교육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6월 문화자원봉사단‘효자동 사람들’-우리사회‘나눔문화’확산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참여 협약을 맺었으며,

12월 전북 문화바우처 체험 수기 전시회(전라북도청 로비)를 진행하였다.

2011년 - 2013년 / 사)문화연구 창

사)문화연구 창이 2011년 전주시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기관에 선정되어 2013년까지 운영을 맡게 되었고 강현정 관장이 취임하였다.

2011년

1월 문화자원봉사단‘효자동 사람들’사진 기획전시(언니 이야기)를 열었으며,

2월 정월대보름‘전주천 달맞이 가세’, 문화자원봉사단 효자동 사람들 소양교육이 진행되었다.

5월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세내로 놀러 간 아이들’발대식을 열었으며,

6월 전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봉사 네트워크를 운영하였다.

7월 제10회‘한국 강의 날’울산대회 환경지킴이 수상과 문화예술교육 문화 in-사진, 뮤지컬 교육 진행,

8월 ‘그림책 속~으로 들어간 효자마을’ 진행, 가족 생태탐사대‘세내놀이터’,

9월 우리동네 축제‘효,자,동’을 진행하였다.

10월 ‘2011 뮤직파크 인 전주 서신동 도내기 샘’ 공원 문화공연 진행,

11월 ‘전주 독서나눔 콘서트’ 진행과 우리동네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연구 모임‘옴트는~소통’을 가졌다. 11월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문화예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12월 효자동 마을 이야기와 함께하는 동짓날‘알이 동동, 정이 동동’진행과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2년

2월 서신동 정월대보름축제, 창의적체험활동 연구모임‘옴트는 소통’운영,

4월 평생학습마을만들기‘세내플랫폼’기관네트워크를 진행 했으며,

5월 문화자원봉사단 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6월 도랑 살리기 사업‘중복천 온새미로를 꿈꾸다’,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효자동 이야기쟁이’를 진행하였다.

9월 ‘호락호락 행복동’세내마을축제와

12월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가자! 도시로, 보자! 문화로’,동지팔죽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문화예술분야 우수 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2013년

2월 서신동 정월대보름‘전주천 달맞이 가세’행사 지원과

3월 우리 동네 구석구석 예술캠프-도심 속 소리‘울림’을 진행,

4월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세내문화예술 동네를 꿈꾸는 아지트’,

5월 도랑살리기 사업‘온새미로’활동을 홀수 주인 토요일에 진행하였고

6월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효자동바람’,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인‘북

북'신규 활동가의 봉사를 시작하였다.

8월 제12회'강의 날' 대회를 참가(세내로 놀러 간 아이들, 온새미로) 하였으며, 9월 전주문화의집 협회 시민문화축제(뜻밖의 휴가), 세내문화예술동네를 꿈꾸는 아지트'세내플랫폼', 책 읽어주는 실버문화봉사단 '북북'기관차 봉사활동, 진행과

11월 제2회 세내포럼'세내야 우지마라', 문화자원봉사단'북북'그림자극 공연-효자동 이야기를 열었다.

2014년 - 2016년 / 사)문화연구 창

사)문화연구 창이 전주시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기관으로 재 선정 되어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운영하였다.

2014년

1월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선정이 되었으며,

2월 제7회 서신동 정월대보름'대보름 달맞이가세'행사 지원과

3월 마을문화봉사단'생활문화봉사단'

5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선정 및 청소년 환경지킴이'온새로미'생태실천 활동과 6월 자스민 예술단 정기공연을 진행하였다.

7월 자스민 예술단 정기공연 진행, 실버문화봉사단'북-북'4기 활동과 8월 제12회 강의 날 대회 참가(온새미로)-청소년 노벨환경상 수상과 자스민 예술단 정기공연,

9월 자스민 예술단 정기공연, 마을문화축제'행복으로 채우다' - 수(水)상한 작당을 진행하였다.

10월 생활문화센터COP'집주인'연구모임, 담 넘어 예술캠프Ⅱ, 문화동호회 워크숍'힐링'진행과

11월 전주문화의집협회 포럼-전주의 생활문화 꽃피우다 진행,

12월 문화의집 회원 송년회"짹하고 해 뜰 날"을 가졌다.

2015년

2월 건지산문화축제‘커뮤니티매핑’, 제8회 서신동 정월대보름 축제 지원과

4월 토요문화학교‘온새로미를 꿈꾸다’교육 진행,

5월 책 읽어주는 문화 봉사단‘북-북’꽃 다집회, 자스민 예술단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개최하였다.

7월 자스민 예술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8월 자스민 예술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9월** 자스민 예술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진행과 생활문화센터 개관-생활문화센터 여는 날‘행복 톡톡’으로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개관(생활 밀착형)을 하였다.

10월 자스민 예술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생활문화센터 첫 번째 전시-이세현 사진작가‘경계’, 지역스토리랩_문화동호회 스토리 클럽 I, II, 생활문화 활동지원사업-Community of Practice‘상상바람’, 문화동호회 대금마을 10주년 연주회를 진행하였으며,

11월 생활문화센터 두 번째 전시- 화가데이‘자연의 색채’를 진행했으며, 문화예술동호회 사회공헌 활동(문화자원 봉사 대작전)과

12월 생활문화센터 세 번째 전시‘삼천의 삼천 가지 모습’, 콤마, 프로젝트_일상&뜻밖의 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동호회 네트워크 파티‘청춘’을 진행하였다.

2016년

1월 문화동호회 24개, 일반 특강프로그램 2개를 개설하여 진행(하모니카, 일본어)했으며,

5월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북-북’(돌봄교실), 문화가 있는 날‘생생 문화통’을 이바디 공원에서 진행,

6월 책 읽어주는 문화 봉사단‘북-북’(돌봄교실), 문화가 있는 날‘생생 문화통’을 서부시장에서 진행하였다.

7월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북-북’(돌봄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예술캠프‘THE 올림’, 학교-마을교육공동체‘또보또모’, 권역별 교류 프로젝트‘전·진프로젝트’를 전주, 진안에서 진행했고 8월 전국문화의집 축제‘생활

문화를 'Take out하다'를 열었다.

9월 북-북 활동가 책놀이 교육, 학교-마을교육공동체'또보또모', 권역별 교류 프로젝트'전·진(전주·진안)프로젝트'잇다' 생활문화축제 진행과

10월 문화예술과 노닐다'예술반상회', 특성화사업 - 문화동호회 워크숍'편을 짜다'를 진행하였다.

11월 문화봉사단 활동인 자원봉사단 호스트, 문화자원봉사 북-북 네트워크 파티를 열었으며,

12월 문화봉사단 활동으로 장미영 교수가 특강을 진행하였다.

2017년 - 2020년 / 예술기획 My Stage

전주시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기관으로 예술기획 My Stage 가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선홍진 관장이 취임하여 운영하였다.

2017년

1월 생활문화확대 및 생활문화확산을 위한 문화동호회 32개 운영과

3월 지역 내 문화인력 양성 사업으로 지역문화인력을 양성,

4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클래식, 국악, 또래와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5월 지역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인'언제 시작할까?'를 진행으로 전래놀이 보급과 생활문화동호회와 지역예술가의 콜라보 전주의 거리, 광장 활성화를 위한'지붕 없는 공연장'을 진행하였다.

7월 문화동호회&지역예술가와 함께하는 컬래버레이션 공연 및 전시회 사업'동네방네 반짝파티'진행과

9월 문화동호회 캘리그래피'먹그림이랑 놀자'로 평생학습한마당 참여, 문화동호회 캘리그래피'예쁜 글씨, 우리 글씨'로 전주독서대전 참여와 실버문화페스티벌'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대회에서 효자문화의집 문화동호회 '쭈욱하모니'가 한국문화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

10월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음악회 '마음나누기' 문화동호

회 대금마을이 우진문화공간에서 12회 정기 연주회를 열었으며, 모든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나누는 화합의 장인 효자마을 축제 진행과 전주 평생학습한마당 전주 독서대전에 참여하였다.

2018년

1월 생활문화 확대 및 생활문화확산을 위한 문화동호회 운영(32개), 지역 공간을 활용한 동호회 활동공간 효자문화사랑방 운영, 지역 내 문화인력 양성 사업, 지역 문화인력, 지역 문화청년 동장 진행과 전주 공예 명인과 함께하는 '지붕 없는 문화장터' 지역주민과 예술 인문학'오페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을 진행하였다.

2월 문화동호회 화가 데이 두 번째 전시회를 아무 갤러리에서 오픈하였으며, **3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어얼 쑈! 전래놀이'

4월 일상에서 즐기는 음악을 소재로 이야기하는 시간 "음악도서관-효자 문화데이"를 지역민과 공유하였다.

6월 7080어르신 대상 교육프로그램'시와 낭송이 공존하는 공간'프로그램으로 지역을 소재로 시를 쓰고 낭송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신의 이야기로 자작시 짓기, 지역주민 대상 인문프로그램'시 읽는 시요일-시시콜콜' 인문학교실, 지역주민 대상 인문프로젝트인'시심전심 나를 올린 시'지역 생활문화 동호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생활문화권역 확대을 위한 '오픈콘서트 지역을 열다'를 진행하였다.

7월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전주의 책 저자와의 만남'장은영-책 깎는 소년'8월 문화동호회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과 즐기는 공연&전시 사업인 음악 속의 전람회를 진행하였으며,

10월 전주 5개 문화의집 연합축제인 뜻밖의 휴가,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효자마을축제, 무용, 음악, 연기로 지역아이들과 함께하는 감정테라피, 1인 출판사 초청특강(모악출판사 대표 김완준)-'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강연을 열었으며,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으로 문화 소외계층 미혼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지역 대학교와 연계한 전주 거리 활성화 생활문화공연'지붕 없는 공연장'을 함께 진행하였다.

11월에는 지역의 재미있는 마을 이야기, 전문 국악인의 우리 가락 공연 전주 슬로시티 오순도순과

12월 주민토론회 형식으로 효자문화의집 어울림 성과 공유회를 열었으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9년

1월 엄마랑 아이랑 함께하는 유리병 속의 화원 테라리움 만들기 겨울 특강과 전주문화의집과 함께 즐기는 생활문화장터 꿀돼지 장터가 진행되었으며, 2월 방 안의 분위기를 바꾸자! 널술아트 액자 꾸미기 겨울 특강,

4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뮤지컬로 놀자!', 지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드림 on 오케스트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래놀이 보급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5월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와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연합 생활문화축제를 진행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동네 알리미'모꼬지 기획단'운영과 지역의 아이들 대상으로 한 어린이날 행사 -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상영하여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 지역주민 대상 인문프로그램'시 읽는 시요일-시와 함께 하는 발칙한 상상력'지역주민 대상 인문프로그램'우리동네 툄'전주 공예 명인과 함께하는 생활문화난장'전주수작'을 효자동 이바디공원에서 진행하였다.

7월 지역 생활문화동호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생활문화 권역 확대를 위한 '비보이 광장에서 놀자!'를 진행, 일상 속 음악을 소재로 한 인문예술학 특강인'토크콘서트 음악 좀 알고 가자!', 문화동호회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과 즐기는 공연과 전시가 함께 있는 동네 골목길 DP! '세 번만 만나 줘요!'를 진행하였으며,

8월 지역 주민 대상 생활교양프로그램인 생활문화유산 정원 관련 인문학 '다채로운 정원이 이야기'를 진행하였다.

9월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한가위 효자마을축제와

10월 지역주민 대상 차 마시며 수다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인 ‘수다로 만드는, 하고 싶은 문화’진행과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문화예술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11월 생활문화공간, 생활문화확산, 지역주민 커뮤니티, 생활문화권역확대, 생활문화활성화 관련 사업 참여자 및 담당자 성과공유 진행과

12월 효자문화의집 어울림 성과 공유를 주민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2020년은 전주시 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운영을 효자, 진북, 인후는 현 운영 수탁기관들이 1년간 연장 체제로 삼천, 우아는 1년간 전주시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어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는 예술기획 My Stage가 연장 운영하게 되었다.

2020년

1월 생활문화확대 및 생활문화확산을 위한 문화동호회 운영(30개), 지역 공간을 활용한 동호회 활동 공간 효자문화사랑방 운영,

4월 지역문화공동체 효자동 사람들 형성, 지역 내 문화인력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사업 진행,

6월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래놀이 보급 프로그램,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성의 오케스트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마음만 갖고 소통이 되니! 공간에 공감을 더하다.’생활문화 거점 공간, 지역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웃 소식 들으셨나요?’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토론회‘백수(白手)가 백수(百數)를 이야기하다’진행과 인문 예술 특강‘토크콘서트 음악 좀 알고 가자!’를 진행하였다.

10월 지역 주민 대상 인문 작곡 프로그램‘내가 만드는 나의 노래 희희낙락’진행, **11월** 생활문화공간, 생활문화확산, 지역주민커뮤니티, 생활문화권역확대,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 참여자 및 담당자 성과공유와 12월 효자문화의집 어울림 성과 공유를 주민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2. 효자문화의집 흔적들

1) 효자문화의집의 변화

문화의집은 국민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일환으로 1996년 10월 서대문 문화의집 문화의집 설립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조성이 되었으며,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생활문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문화의집은 지역민들의 일상성과 자발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로 전환되어 2020년까지 운영되었다.

효자문화의집 초기에는 문화교육강좌, 세분화된 문화의 생활화, 문화향유와 시민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운영되었고,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로 개칭되면서 지역민들의 창작공간,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문화를 한층 도약하는 공간,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문화 향유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효자문화의집 개관 이래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2002 - 2004), 놀이패 우리마당(2005 - 2010), 사)문화연구 창(2011 - 2016), 예술기획 My Stage(2017 - 2020)로 수탁 기관이 변화하면서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자유로운 문화활동, 예술공연과 전시, 문화예술 교육, 인문학, 회의, 세미나의 공간, 모든 지역민들이 문화의 주체가 되어 창조, 참여, 향유하는 문화공간, 누구나 언제나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하는 지역민의 소통 공간 역할을 하였다.

효자문화의집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 누구나 문화를 누리고 즐기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문화시설 공간 인프라를 통해 지역민의 주도적 활동과 지역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로 지역민이 함께하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문화예술을 누리는 방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2년에서 2020년까지 지역의 문화시설, 전주시 서남부권의 거점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수탁기관, 지역, 대상층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 지나온 사업들의 가치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 숫자로 보는 흔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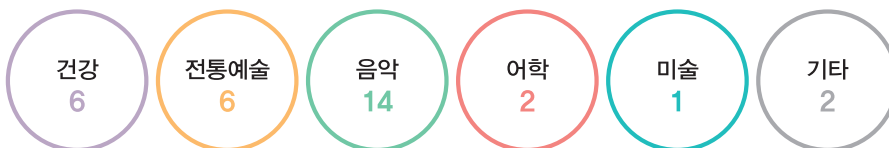
동호회 현황 (2017년 - 2020년)

2017년 - 31개 운영



- 건강** 건강요가, 생활요가, 파워요가, 힐링요가, 하타요가, SNPE바른자세 척추운동, 신바람에어댄스
- 전통예술** 효자풍물, 우림풍물, 먹그림문인화, 먹그림사군자, 대금마을, 목향회
- 음악** 롤루렐라 우쿨렐라, 기타렐레&플룻, 쭈욱하모니, 스트링기타, 산울림색소폰, 한울림오카리나, 월요기타, 줄리엣, 기타라스, 통기타소리, 드럼스쿨, 에델바이스, 하니
- 어학** 팝이 있는 생활영어, 침밀밀(중국어)
- 미술** 화가데이
- 기타** 전주스피치, 경제공부방

2018년 - 31개 운영



- 건강** 건강요가, 생활요가, 파워요가, 힐링요가, 하타요가, SNPE바른자세 척추운동
- 전통예술** 효자풍물, 우림풍물, 먹그림문인화, 먹그림사군자, 대금마을, 목향회
- 음악** 쭈욱하모니, 기타렐레&플룻, 한울림오카리나, 월요기타, 줄리엣, 기타라스, 스트링기타, 통기타소리, 드럼스쿨, 에델바이스, 산울림색소폰, 하니, 하모니카기초반, 라보체여성합창단
- 어학** 팝이 있는 생활영어, 침밀밀(중국어)
- 미술** 화가데이
- 기타** 전주스피치, 경제공부방

2019년 - 29개 운영



- 건강** 건강요가, 생활요가, 파워요가, 힐링요가, 하타요가
- 전통예술** 효자풍물, 우림풍물, 먹그림문인화, 먹그림사군자, 대금마을
- 음악** 한울림오카리나, 월요기타, 줄리엣, 기타라스, 통기타소리, 드럼스쿨, 에델바이스, 산울림색소폰, 하니, 효문하모니카, 신나는하모니카, 카훿취미반, 타악기양상블, 스트링기타
- 어학** 팝이 있는 생활영어, 첼밀밀(중국어)
- 미술** 화가데이, 민화사랑
- 기타** 전주스피치

2020년 - 29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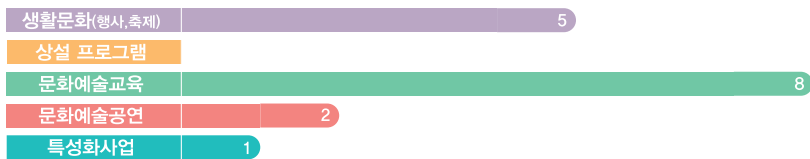
- 건강** 건강요가, 생활요가, 파워요가, 힐링요가, 하타요가
- 전통예술** 효자풍물, 우림풍물, 먹그림문인화, 먹그림사군자, 대금마을
- 음악** 한울림오카리나, 월요기타, 줄리엣, 기타라스, 통기타소리, 드럼스쿨, 에델바이스, 스트링기타, 산울림색소폰, 하니, 효문하모니카, 신나는하모니카, 땀따라카훿, 켈레, 토크솔
- 어학** 팝이 있는 생활영어, 첼밀밀(중국어)
- 미술** 화가데이
- 기타** 전주스피치

사업 현황 (2017-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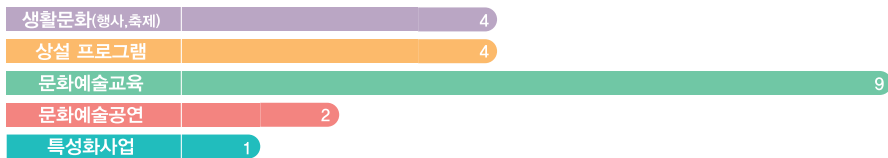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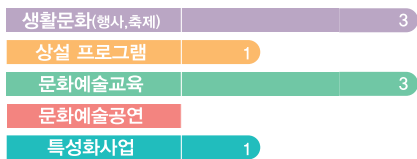
2018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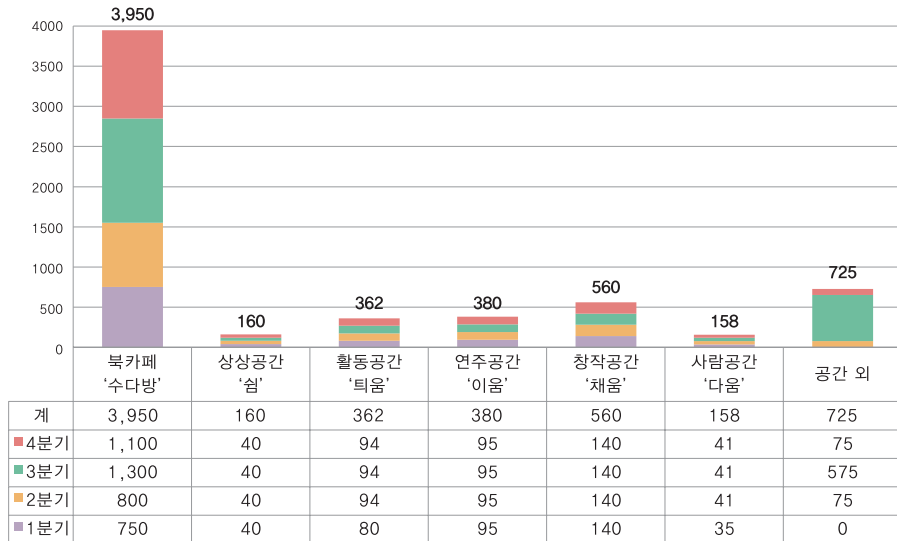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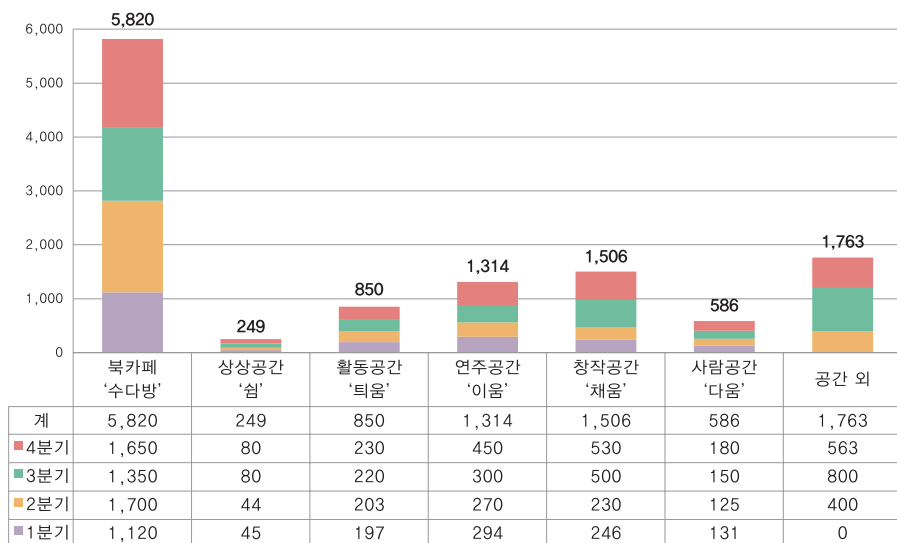


공간별 이용자 현황(2017-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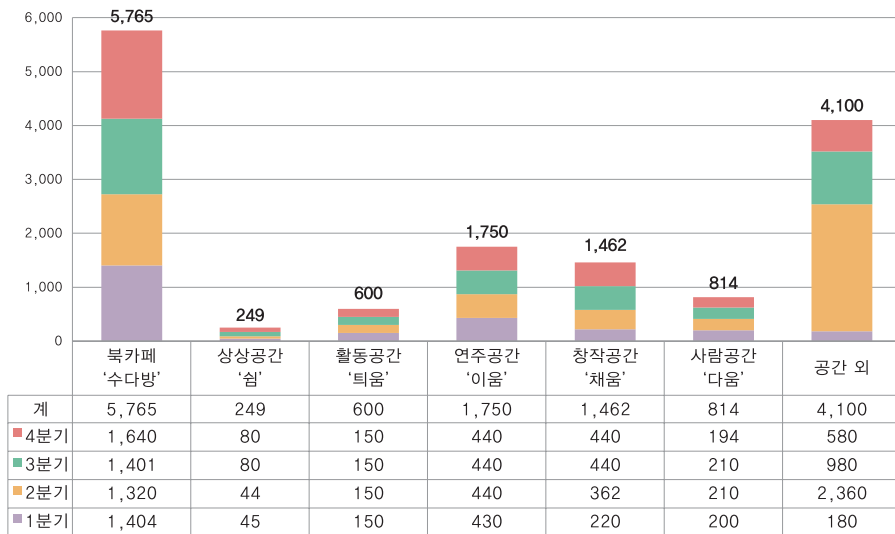
2017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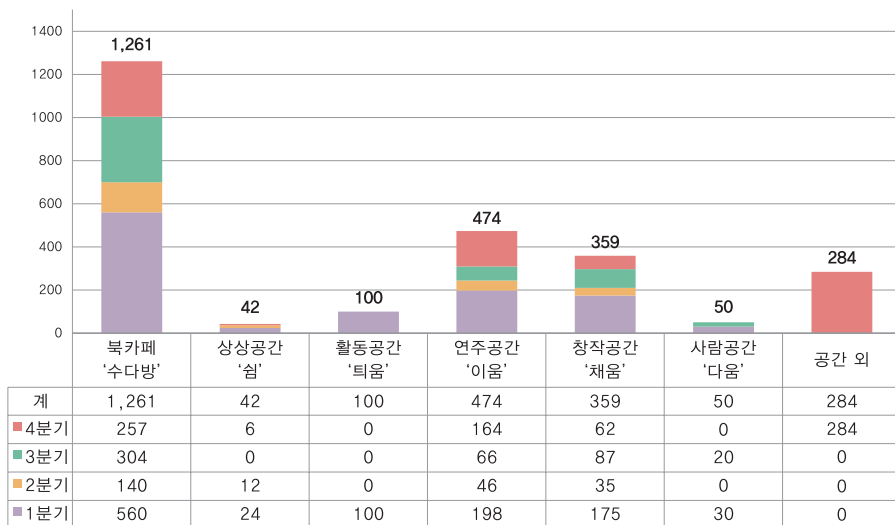
2018년 현황



2019년 현황



2020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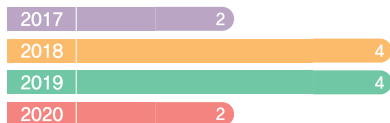


연도별 직원 수



연도별 공모(2017-2020) 선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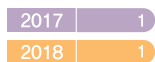
지역문화진흥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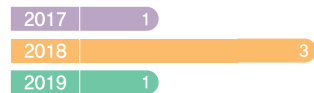
한국문화의집협회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전주문화재단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효자문화의전



주요 활동

1. 2002년 - 2004년

2002. 03. 21.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는 실생활 문화공간 효자문화의 집은“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이 수탁하여 개관되었다. 효자3동사무소 2층에 위치한 효자문화의 집은‘가족생활문화쉼터’로서의 기능과 가족문화를 지향하였다. 프로그램은 개관에 앞서 3월 18일부터 운영되었으며, 서양렬 초대 관장은 가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녁 10시까지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의집 개방에 역점을 두었다.

2004. 06. 18.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첫 번째 당나귀 음악회가 삼천둔치공간에서 진행했다. 당나귀 음악회는 사회 배려계층과 함께 하는 의미를 담은‘당신과 나는 귀한 사람’의 약자의 타이틀이다. 이 공연은 지역민과 사회배려층과 함께 3회를 여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2004. 10. 09.

‘당신과 나는 귀한 사람’의 타이틀로 이웃과 함께하는 두 번째 당나귀 음악회를 삼천둔치에서 개최하였다. 당나귀 음악회는 문화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민들과 사회배려층을 위한 문화나눔의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오픈 공연으로 전주시립국악단의 연주와 문화의집 수생들의 부부댄스 스포츠, 오카리나 연주, 가족 연극 등이 진행되었다. 참여자들과 함께‘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아름다운 세상’을 부르며 화합의 시간도 가졌으며, 사랑의 풍선 선물하기와 사진 촬영 등 부대행사 진행과 따뜻한 겨울을 위한 사랑의 성금 모금도 진행하였다.

2004. 12. 17.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효자문화의 집 세 번째 당·나·귀 음악회를 12월 17일 지역민과 함께 전주 동암재활원 무대에서 열렸다. 3회째를 맞는 이번

당나귀 음악회는 사회 배려층들과 함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과 화합, 소통하는 공연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송년음악회 형식으로 장애로 소외 받는 동암재활원 장애우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음악회이다.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술쇼, 통기타 공연, 다함께 차차차 등이 진행되고 효자문화의 집 수강생들의 공연이 열렸다.

2004. 12. 21.

오래전부터 철마다 그에 맞는 아름다운 풍속을 누린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해 추운 연말에 이웃들과 팔죽 한 그릇의 따스한 정을 나누는 '세시 풍속 한마당, 동지 팔죽제'를 개최 했다. 전주 동신교회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람들과 함께 팔죽을 나누며 따스한 담소를 즐기고, 놀이패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한국문화의집협회, 복권기금, 전주동신교회, 효자3동부녀회, 놀이패 우리마당 등이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2. 2005년 - 2010년

2005. 02. 20.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전주시민들과 함께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의 전통과 풍습을 다시 되새기고, 모든 재앙과 액을 풀어 희망과 복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놀이 '망월(望月)이야!'를 진행하였다. 세부 진행 행사는 달집 만들기, 소원지 매달기, 달집 돌기, 부럼, 더위팔기, 연날리기, 달집 태우기, 쥐불놀이, 대동놀이 등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펼쳤다.

2005. 08. 16.

전주문화의집 페스티벌 여인락(與人樂) 연합 행사를 진행 하였다. 전주시 5개 문화의집 동호회들이 참여하여 8월 16일에서 26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진행었으며, 효자문화의집은 하모니카 연주, 대금 연주 등으로 참여 하였다.

2005. 09. 24.

가족과 함께 떠나는 삼천사랑 생태탐사 프로그램을 9월 24일 토요일 낮 1시 30분~6시 주 삼천천 주변에서 진행하였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가족 대상이며, 강사로는 김진태(곤충학박사) 김 영(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들꽃모임 팀장), 삼천에서 사는 자연의 친구들이 누가 있을까? 삼천에서 사는 우리의 들꽃 및 곤충, 어류 탐사, 우리의 들꽃 이름 알아보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2006. 06. 24.

2006년도 문화나눔사업(문화바우처사업)의 전북지역 주관사업자로 효자문화의 집(대표 단체)과 삼천문화의 집, (사)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전북지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전북지역 문화나눔사업 주관사업자로 선정되어 국무총리복권위원회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문화예술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에게 공연예술(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전통예술(국악공연 등), 시각예술(미술 전시회 등), 영화(영화상영), 기타 박물관 전시회 관람, 지역축제(전주세계소리축제 등) 관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균등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6. 08. 26.

가족과 함께 삼천의 줄기를 거닐어 볼 수 있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삼천사랑 생태탐사'를 열었다. 환경전문가와 삼천의 생태를 찾아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곤충, 야생화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시간과 들꽃연구가들의 환경 이야기도 함께 진행하였다.

2006. 10. 27.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에 삼천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효자동, 삼천동 통합형 축제로 진행하였다. 지역 주민들과 예술인들이 도심의 자연을 보여주며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삼천둔치에서 이곳의 문화자원 복원 및 계승하는 축제를 10월 27일에서 28일까지 열었다.

2007. 05. 07.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보고 즐길 수 없었던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 12월 까지 전북지역의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경제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저 소득층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을 재고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시작 하였다.

2007. 05. 07.

효자문화의집과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의 도움으로 전동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는 9명의 장애인들이 모인 연주단‘물푸레’가 창단되어 장애인의 시각으로 참여하는 공연을 만들어 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7. 07. 24.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인형, 꿈과 사랑에 대한 소묘, 가족일기 등 손으로 표현하는 사회취약계층 수화 인형극‘꿀꿀이들의 여행’을 (사)한국농아인협회 전북협회와 전주시지부 어린이와 부모들이 한 달 동안 준비하여 24일 오후 5시에 효자문화의집에서 진행하였다.

2007. 10. 12.

‘삼천문화공간화사업’ 일환인‘2007 효자삼천갯강놀이 축제’와 ‘시각조형프로젝트’가 10월 12일에서 13일까지 전주시 삼천둔치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효자문화의집이 주최 했지만 효자동과 삼천동 동사무소와 효자3·4동, 삼천 2·3동 등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전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하였다. 2007 효자삼천갯강놀이축제는 큰 줄 당기기를 기본에 두고 60여 년 전까지 추석에 함대와 용리에서 벌어졌던 씨름을 오늘날에 맞게 지역 주민 장사를 선발하는 민속씨름대회 시연과 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다. 효자문화의집과 삼천문화의집의 찬조공연, 전

주기접놀이보존회와 진안중평굿보존회의 합굿 등 공연, 놀이, 경연, 체험, 장터 등 다섯 가지 테마로 진행되었다. ‘삼천 강변을 거닐다’를 주제로 한 ‘시각조형프로젝트’는 농경문화의 상징이자 주민들의 정통성과 존재감의 상징인 각 마을의 용기를 만날 수 있는 깃발축제를 비롯해 지도 그리기, 예술 다리 창작 공모전이 진행 되었다.

2007. 10. 23.

장애인들의 자립 기틀을 위해 5월 7일 창단한 전동휠체어타악 연주단‘물푸레’의 공연이 10월 23일 아트홀 오페라 공간에서 열렸다. 공연 구성은 장애인 공연단의 액을 물리치는 기원이 담긴‘비나리’, ‘물푸레’의 태평을 기원하는 무용‘태평무’, ‘물푸레’의 타악 공연 등 기존의 풍물패 프로그램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이날 공연에 참여한 효자문화의집 풍물동호회인 ‘풍악’이 함께 해 더욱 의미가 있었으며, 27일 오후 3시 김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과 30일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공연을 하였다.

2008. 02. 26.

취학 예정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1학년 과정에서 필요한 친사회적 행동 및 원만한 또래 관계 형성을 유지하여 실질적인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2월 26일부터 4월까지 10차시를 진행하였다.

2008. 04. 26.

2007년 진안 황금리 마을 가재 잡기에 이어 2008년 4월 26일 진안 부귀면 황금리 가치마을에서 정으로 가꾸는 나무 심기와 꽃향기 나는 진달래 화전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어린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산나물 캐기와 직접 화전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놀 거리가 어우러져 우리 지역의 소중함과 점점 잊고 있는 농촌의 중요성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효자문화의집 가족회원 10가구와, 진안 황금리 마을 10가구가 함께 하였다.

2008. 04. 24.

효자삼천지역 학생들과 6개 주민센터 및 자치위원회, 전주 역사박물관, 효자청소년 문화의집 등 지역내 공공시설과 교육기관, 문화시설 등이 대거 참여하며 주민들과 신명난 2008효자삼천갯강축제가 24일~26일까지 전주 삼천둔치에서 진행되었다. 주 행사로 놀이축제, 갯밭예술제, 부대행사, 특별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부대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 공연과 경연, 나눔장터, 바자회 등이 운영되었다. 기타 진행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 협의회'갯강평화통일그림대회'와 삼천의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계단벽화'삼천에 코끼리가 산다면'을 담았다.

2009. 02. 08.

효자문화의집은 진안중평굿보존회, 진안예총, 국악협회진안지부, 진안문화원, 진안전통문화전수관, 중평굿사랑모임, 진안문화의집, 최명희문학관, 삼천문화의집, 문화연구 창, 극예술연구회 봄날에 등 여러 단체들과 함께 2월 8일과 9일 진안군 중평마을에서 열리는'쌔갯'을 시작으로 진안을 일대에서 '당산갯과 지신밟이', '망월갯행사'를 펼쳤다.

2009. 03. 27.

롯데백화점과 전주효자문화의집이 함께 공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를 대신해 자전거를 이용하자는 취지로 제1회 LOTTE 환경자전거 캠페인을 진행하며 백화점 인근 주민들에게 자전거 100대를 증정 하였다.

2009. 04. 01.

사단법인 문화연구 창이 마련한 「전북의 재발견-소리」에 실린 지용출씨의 판화 작품전시회를 진행했다. 전시회는 1일 효자문화의집 전시 개막을 지역 순회 전시로 효자문화의집(1일-8일)을 시작으로, 인후문화의집(9-15일), 미나리갤러리(17-22일), 최명희문학관(23-29일)순서로 이어져 시민들이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순회 전시가 되었다.

2009. 10. 13.

효자문화의집 동호회와 프로그램 수강생이 함께“한땀한땀 세내로 모이다”전을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개최 하였다. 이번 전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서예, 사군자, 수채화 교실, 성전 꽃꽂이, 아이들의 종이접기와 글쓰기, 딜레마스타 등의 100여 작품이 10월 13부터 25일까지 전시되었다.

2009. 10. 15.

효자문화의집 화합의 한마당“효자고을 잔치잔치 열렸네”를 전주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문화의집 수강생 및 동호회가 함께 했으며, 전동휠체어 장애인 타악단“순수레”와 풍물동호회 풍악의 합동 공연을 시작으로 동화구연, 노래교실, 오카리나, 청심, 장구민요, 재즈댄스, 오카리나 동호회, 연지, 댄스스포츠, 대금마을, 기타, 클래식 기타 동호회, 장애인 타악단 물푸레, 풍악, 오전요가, 우리춤 체조, 드럼교실, 어린이드럼, 우림풍물, 밸리댄스, 만삼, 효자풍물 등 20여팀의 기량을 펼쳐 보이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2009. 10. 18.

서신동 재뜸마을‘신명나게 놀아보세!’를 문화연구창, 효자문화의집, 가치&같이, 플러스나눔, 서신초등학교와 협력하여 한소리 사물놀이, 한사랑 어린이 사물놀이, 소리꾼 정민영의 공연으로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2009. 12. 02.

북북 실버문화봉사단원들은 인형극과 함께 어르신들께 동화책을 읽어주며 같이 호흡하는 봉사활동을 은나래실버센터에서 펼쳤다.

2009. 12. 16.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로 들려주는'판소리 다섯마당' 공연을 고창 동리국악당(15일)과 1익산 원광대 60주년기념관(16일) 무대에 올렸다. 청각장애인은 물론 노인층과 아동들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공연단체'문화영토 판'

이 판소리 가사 중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어(古語)를 쉽게 풀어 제작한 청각장애인 대상 기획 공연이다.

2010. 02. 03.

정월대보름을 맞아 '제5회 정월대보름 전주천 달맞이 가세' 행사를 서신동 전주천 둔치에서 개최하였다. 한 해의 무사안녕을 위해 동락의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북춤, 민요 등 문화공연과 강강술래, 달집태우기 등의 행사를 진행 하였으며, 부대행사로 부럼 나눠먹기 및 연날리기 등 전통놀이도 지역민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2010. 03. 09.

아동 강좌 '즐거운 역사 교실' 개강과 도민 문화예술사회교육 프로그램인 '우리 가족 행복교실'을 개강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용 둔 어머니 대상으로 3월 2일 '옛날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특강을 진행하였다.

2010. 08. 17.

부모 자신의 성의식과 성가치관 점검과 자녀의 신체 및 심리발달을 이해, 수용하여 성문제를 예방하여 자녀들의 밝고 아름다운 성을 지켜주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성(性) 문화 지킴이' 강의 프로그램을 17일, 19일, 20일 지역 부모들을 대상으로 3회 진행하였다.

2010. 10. 23.

완주군 구이면과 효자문화의집이 구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자 73명을 대상으로 임실에서 도자기 체험과 롯데 시네마에서의 영화 관람 '신나는 예술여행'을 진행하였다.

3. 2011년 - 2016년

2011. 02. 13.

달집 태우기를 통해 한 해 소망을 빌고, 풍등을 띄우며 모두의 건강과 다복을 기원하는 제4회'전주천 달맞이 가세'정월 대보름 행사를 롯데백화점 건너편 전주 천변 일대에서 진행 하였다.

2011. 02. 14.

문화자원봉사단 효자동사람들 소양교육을 3차시 진행 하였다. 2월 14일 역할 이야기, 3월 14일 나를 바라보기, 4월 11일 지역 안에서 문화자원 봉사 활동 꺼리 이야기라는 주제로 소양교육을 하였다.

2011. 08. 13.

세내의 생명 이야기를 자연과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하여 생명력과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세내 노리터'프로그램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진행했다. 고산천 보트탐사와 폐품을 활용한 정크공예의 활동, 가족미션 등으로 마련되어 가족 생태 문화예술활동을 하였다.

2011. 08. 13.

생활권 유희공간에서 문화예술향유의 공간 다원화를 이루고 시민문화예술동호회가 주체가 되어 시민이 생산자이자 향유자가 되는 문화프로슈머 구현하는 2011 Music Park in Jeonju를 효자문화의집(서신 도내기생 공원), 삼천문화의집(삼천 거마공원), 진북문화의집(중앙 노송천)이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었다.

2011. 10. 31.

효자문화의집 직원과 봉사자들은 지체장애 특수교육기관 동암재활학교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문화놀이 체험의 날 행사를 장애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문화공연과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13. 02. 23.

정월대보름'전주천 달맞이 가세~'행사를 지원 진행 하였다. 잡귀를 쫓아내는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전주천에서 연합풍물패 50여 명의 판굿이 이뤄졌다.



공연은 전주시립국악단의 사물놀이, 누리예술단 진도북춤, 판소리, 소고춤과 서신동 출신의 B-boy 공연에 이어 기원무와 비나리가 진행되고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강강수월래, 개인의 염원을 담은 달집을 태우고 대동놀이가 진행되었다. 그 외 널뛰기, 투호놀이, 고리걸기, 소원지 쓰기, 부럼깨기, 연날리기 및 풍등 날리기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013. 03. 02.

세네로 놀리간 아이들“몸살을 앓는 세네를 안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하천인 세네(삼천)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동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현재부터 미래까지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 초등학교 고학년 20명과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30회를 진행하였다. 아이들이 생태와 문화예술을 결합한 교육을 통해 도심 속 생활 하천인 세네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세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동아리를 구성하여 생태지킴이 활동을 유도하였다.

2013. 09. 06.

전주 5개문화의집 연합 시민문화축제 '뜻밖의 휴가'가 사천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여 9월 6일부터 8일까지 삼천변 특설무대에서 개최하였다. 생활 밀착형 문화의집의 장점을 살려서 생활 속 이야기를 공연과 전시로 표현하였으며, 기획 토크쇼, 동아리 갈라, 뜻밖의 쇼, 전시, 캠프 등 프로그램마다 시민이 중심되는 축제로 진행되었다.

2013. 09. 27.



한강 아파트 맞은편 천변에서 출발해 하중도를 지나 농수산시장, 세내교를 반환해 돌아오는 시민과 함께 삼천변 걷기와 삼천변 자스민 야외무대에서 통기타 선율에 그윽한 노랫소리가 함께하는 작은 음악공연이 진행되었다.

2013. 11. 30.



문화자원봉사단'북-북(Book-Book)'이 전주국립박물관 근처에 있는 두 개의 비석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2편의 창작 그림자극 '효자동 이야기'를 아하 아트홀에서 열었다. 우리 동네 효자동 이야기 발굴 3년간의 문화자원봉사단 북북 회원들의 땀과 열정과 노력으로 2개의 그림자극이 만들어졌다.

2013. 12. 20.

전북환경운동연합'아름다운 사람들'환경교육상을 수상 하였다. 세대를 중심으로 생태와 예술을 통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세대로 간 아이들'을 3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연속성을 위해 중학교 동아리'온새미로'를 결성해 중복천 탐사와 수질 개선 활동으로 선정되었다.

2014. 02. 08.

서신동 서일근린공원 일대에서'제7회 서신동 정월대보름 축제'를 진행하였다. '전주천 달맞이 가세'를 주제로, 세시풍속의 하나인 정월대보름을 아파트 밀집지역인 서신동에서 재현하고 서신동 주변 상가를 도는'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연합풍물패 50여 명의'판굿'이 펼쳐졌다.



전주시립국악단 민요, 누리에술단 진도북춤, 설장구, 전북대 싱건지 공연 진행과 강강수월래, 기원무와 비나리가 진행 후 달집태우기로 운영되었다.

2014. 03. 21.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책 읽기 문화 확산을 목표로 효자문화의집이 운영하는 효자생활문화봉사단'Book-Book'이 3월 2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문화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Book-Book'은 문화자원 봉사 활성화를 위해 3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상반기 역량강화 교육도 병행 하였다.



2014. 06. 25.

'문화가 있는 날'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자·스·민 예술단공연이 6월 25일을 시작으로 8월까지 자스민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개최했다. 6월 공연은 완산서초등학교 태권도 댄스, 격파, 완산서초등학교 드림하이, 파우리스 댄스스포츠, 우림풍물, 7080 포스송이 진행되었다.

2014. 07. 30.





'문화가 있는 날' 자스민 예술단의 두 번째 공연이 삼천 자스민 야외무대에서 전북연금관리공단 전속 악단인 '상록어울림아카데미봉사단'의 아코디언 공연, 효자문화의집 하모니카 공연, 우림풍물 공연, 7080 포크송으로 진행되었다.

2014. 09. 20.

효자동 일곱 번째 마을축제'수(水)상한 작당'이 삼천 둔치 자스민 야외무대에서 청소년들의 수(秀)상한 장기 자랑과 자스민 예술단, 지역 청소년과 문화동호회의 문화공연이 진행되었다. '수(水)상한 작당' 마을축제는 청소년·주민이 참여하는 물총놀이, 북불북 물놀이게임, 실버문화봉사단 '북—북', 청소년환경지킴이'온새미로' 해피아이넷 효자·삼천지역 아이들의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전주 효자시니어클럽, 전주 icoop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주부채문화관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였다. 효자동 마을축제'수(水)상한 작당'은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지역 주민 모두가 주체적인 참여를 하는 축제로 운영되었다.





2014. 11. 20.

〈전주의 생활문화 꽃 피우다〉를 주제로 전주문화의집협회 우아문화의집, 인후문화의집, 삼천문화의집, 진북문화의집, 효자문화의집이 모여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4. 12. 20.

문화동호회와 2014년을 마무리하며 친교를 갖는 효자문화의집“짹하고 해뜰 날” 송년회를 동호회 회원, 강사, 지역민들과 효자문화집에서 진행하였다.

2015. 02. 1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의집협회가 주최하고 삼천문화의집, 우아문화의집, 인후문화의집, 진북문화의집, 효자문화의집이 주관하는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건지산문화학교’입학식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차장에서 개최되었다. 입학식 후 전주 코끼리유치원 원생들과 함께 건지산 탐방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전주시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5개 문화의집 실무자 11명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맵핑 교육을 통해 건지산문화학교를 도출하였으며, 지역 명소를 찾아내 스토리텔링으로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생활문화 콘텐츠를 알리고, 세대 간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2015. 02. 28.

서신동 정월 대보름 축제는 변화를 시도하여 장소를 이원화 운영 되었다. 선수촌공원에서는 강강수월래, 달집태우기 등을 전주천변에서는 자갈들 위에 달집을 만들었다. 장소가 이원화되어 홍보하는데 우려가 있었으나 많은 전주 시민들이 참여하여 소원을 빌었다.



2015. 04. 01.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후원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온새미로를 꿈꾸다' 프로그램을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천의 숨어 있는 가치와 청소년의 감각을 깨우는 작업으로, 동네 하천인 '세내'를 청소년의 관점으로 기록하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총 30차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참여자들은 삼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물모니터링(어류)과 문화예술활동 사진기록으로 삼천을 조금 더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가꾸고자 유해 어종과 유해 식물 제거, 습지 관리에 대한 고민도 진행하였다.



2015. 04. 01.

효자3동주민센터와 효자문화의집 주관으로 "자스민예술단"의 첫 정기공연이 삼천 야외 천변 무대에서 펼쳐졌다. "자스민예술단"은 효자3동 주민센터, 효자문화의집, 지역문화동호회, 효자해피아이넷, 지역예술인이 협력하여 2012년 6월 결성되었으며, 9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삼천 천변에서 공연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이 음악으로 웃고 즐기며 나눌 수 있는 화목의 장을 마련하였다.





2015. 09. 18.

생활문화센터 개관 행사로 '행복톡톡' 특강을 시작으로 생활문화축제 '서부시장 행복난장'을 19일 개최 하였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저자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자 행복 특강으로 문화예술동호회, 전주시민 150여 명이 문화를 통해 행복사회를 만들기 위한 화두를 던지고 생활문화에 대한 가치를 담론화하였다. 효자문화의집 예술캠프를 3년 동안 진행해 온 청년예술가들의 축배콘서트와 문화동호회와 문화자원봉사단 등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과정을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영상으로 담아 내었다. 이세현 사진작가의 개관 전시 '경계'는 이러한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공간에서 10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2015. 10. 09.

문화의집 생활문화활동지원인 '울림 캠프3 상상바람'이 정음칠보면 태산선비문화관에서 7세에서 13세 자녀를 둔 20가족과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었다.





2015. 10. 16.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문화재단과 전주문화의집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15 전주시 생활문화축제'뜻밖의 휴가'가 16일부터 17일까지 덕진공원 일대에서 전주시 5개 문화의집과 전주시 생활문화 동호회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는 '도시가 축제장! 같이의 가치!'를 주제로 60여 개의 생활문화동호회가 참여하여 공연 및 전시, 체험부스 등 4개 분야 72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문화의집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주민 네트워크형 문화 콘텐츠 축제라는데 새로운 의미를 두고 있으며, '뜻밖의 캠프'라는 타이틀로 진행될 예술캠프는 놀이와 예술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문화의집별로 운영될 아카이브 전시캠프'같이의 가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이는 등 참여 시민들에게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와 저변을 확대하였다.

2015. 11. 25.

진안 백운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을 찾아간 문화 자원봉사활동대작전 여행(여기! 행복!)은 자스민 예술단과 호남형 청년문화리더 생활문화기획팀이 연계한 문화자원봉사 활동과 전주 효자문화의집과 한국문화의집협회 주

관의 새로운 시도로 진행되었다.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체험 구성과 아이들 사연으로 엮어지는 마을콘서트 프로그램이 완성 되었으며, 댄싱9 출연팀의 '갬블러크루' B-boy 공연과 남성중창단 '프렌데레(prendere)' 클래식 공연은 백운면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커다란 감성을 자극하는 맞춤형 체험과 공연을 선보였다. 참여동호회는 통소리사랑, 나꿈예술단, 실버문화봉사단 '북-북', 쭈~욱 하모니 4개 동호회 42명, 생활문화기획팀 5명과 별룬테이너 역할의 갬블러크루, 프렌데레를 포함 59명이 참여하였다.

2015. 12. 19.

삼천의 삼천가지 모습 온새미로 사진전을 가졌다. 이 사진전은 토요문화학교를 통해 참가한 학생들이 1년 동안 아이들 관점에서 바라본 삼천 가지 삼천을 각기 다른 생각과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한 도심 속 지역 하천의 변화를 생태는 물론 문화예술교육 방식으로 담아낸 '수상한' 사진전이 가족, 친구, 예술가, 생태·환경단체, 그리고 전주 시민들에게 오픈되었다.



2015. 12. 22.

70년대 음악다방을 재현한 송년파티 '청춘'을 진행하였다. 1970년대 우리 지역의 젊음의 장이었던 음악다방 '활주로' 재현을 위해 연극인 정진권 씨가 진행을 맡아 양갈래 머리 소녀들을 설레게 했던 DJ 오빠의 멋들어진 사연 소

개와 추억의 노래, 군것질거리 등을 담아냈다. 문화동호회의 사연 소개와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의 2015년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와 우수동호회 시상을 통해 올 한해 발자취를 기념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16. 02. 24.

지역민들의 생활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효자문화의집이 생활문화센터로 오픈하면서 만들어진 북카페 수다방에서 지역 아동 100여명을 초대하여 문화가 있는 날'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예술단체'댄스팩토리'를 초대하여 해설이 있는 위대한 우리 문화 유산-국악기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국악기의 역사와 악기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시간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주제가, 동요 등으로 친숙하게 다가가 아이들이 편안하게 감상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무대로 진행하였다.



2016. 04. 27.

생활문화동호회 및 공연기획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들을 생활예술단 및 공연 기획단으로 구성하여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문화를 생산하는 새로운

시도의 생활문화축제 '동네에서 놀자! 생생문화통'을 27일 삼천천 야외공연장을 시작으로 5월 25일 효자동 이바디 공원, 6월 25일 서부시장에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하였다.



참여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과 교육 진행으로 주민들의 힘으로 생활문화가 지속적 보급 및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27일 삼천천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생활예술단 및 공연기획단의 발대식 후 남성 중창단 프렌데레의 축하 공연 등을 진행하였다.

2016. 04. 27.

학교 교육력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학교, 마을이 서로 연계 협력하는 전주교육지원청 '학교-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기관으로 효자문화의집이 선정되어 7월에서 9월까지 운영되었다.

2016. 07. 27.

동네를 넘어 지역을 잇는 전·진 프로젝트를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와

진안문화의집이 함께 진행하였다. 지역이 다른 생활문화시설·생활문화동호회들이 협력해 생활문화 중심의 축제를 만들어가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이다. 7월 27일 진안문화의집 공연장에서 진행된 '생활문화가 잔치다! 전진 프로젝트'는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동호회 주~옥 하모니의 공연 진행과 전주와 진안 생활문화동호회 회원들과 단체 실무자의 원탁회의가 진행 되었다. 8월 31일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에서 북카페 '수'다방에서 두 번째 교류음악회 및 원탁회의를 진행하였다. 2차례의 회의를 통해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하며 느꼈던 소회를 나눴고 생활문화동호회 축제에 함께 하고 싶고, 해보고 싶은 아이디어를 전주와 진안 생활문화동호회 회원들과 단체 실무자가 모여 원탁회의를 진행하였다. 전주, 진안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축제인 생활문화잔치'전·진'이 9월 24에 진안문화의집 일대에서 생활문화 체험'경험을 잇다', 장터'이어짐을 잇다', 동호회 공연'사람을 잇다', 깜짝이벤트'가면 무도회'를 진행하였다.



동네를 넘어 지역을 잇는 전·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시설들의 문화공동체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 소감 / 짚음~ 하모니카 대표 이병태〉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함께 만들고 기획하는 과정속에서 나 스스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이 두 배로 찾아온 것 같고, 생활문화라는 단어가 왜 생활문화인지에 대한 정의와 동호회들의 성장이 만들어지는 축제가 된 것 같다. 감성 교류음악회 또한 지역감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고 문화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축제를 만드는 부분에 원탁회의는 굉장히 좋은 장치가 돼 주었다. 이런 중요한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식구들을 비롯해 집안에 있는 우리 동호회 식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16. 08. 24.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는 전북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 클래스'사업에 '예술반상회'가 선정되어 지역의 문화예술기관·단체와 문화공간을 매개로 도민들의 체험형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하였다. 고영직(10. 11), 김찬호(10. 19), 심한기(10. 25), 이범준(11. 01), 김월식(11. 08), 하승우(11. 15), 정민룡(11. 22), 이그나이트(11. 29) 반장들이 참여하였다.



2016. 08. 26.

삼천문화의집, 우아문화의집, 인후문화의집 등 5개 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전

국의 문화의집, 생활문화 동호회 등이 참여하여 '생활문화를 테이크 아웃(Take out) 하라'는 주제로 2016 생활문화축제가 전주시청 잔디광장에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

전주시청 잔디광장에는 전국 문화의 집 부스가 설치돼 프로그램 홍보는 물론 작품 등을 판매하고 참여 문화의집마다 특색에 맞는 장터, 체험 공간을 운영하였다. 회원들이 만든 캘리그래피원목 액자, POP글씨로 쓴 회원들의 작품에는 생활문화 흔적들이 담겨 있고, 민화체험, 천연 화장품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 부스에서는 시민들의 체험활동이 진행되었다. 아이들을 위한 '별난 놀이터'에는 다치지 않도록 벧담이 놓여 부모, 아이들이 마음 편히 축제를 즐겼으며, 밧줄을 감아 만든 의자들은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었다. 저녁 시간 프로그램 '만인의 식탁'은 직접 만든 음식을 판매하고 함께 맛보는 저녁 시간을 전주 시민들과 함께 하였다.



2016. 09. 30.

전주시민갤러리(덕진공원 내)에서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서예·문인화 동호회가 '취묵회' 전을 9월 30일에서 10월 5일까지 열었다.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첫 번째 회원전으로 이명순 지도강사를 비롯해 김난기, 김미경, 김배규, 김정목, 김효순, 나형순, 신숙희, 심현재, 양남영, 양동균, 양선자, 이성기, 전희범, 정영식, 조성우, 주미희, 한인순 작가 18명이 참여하였다.

〈참여 작가 소감 / 김미경 작가〉

우리 동호회는 문화 예술의 우수성과 옛 정신의 전통을 잇는 활발하면서도 묵묵한 붓놀림을 간직하고 있다. 이번 전시가 한가로운 가을 속 공원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높여 줄 것으로 여긴다.

2016. 10. 29.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생활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16 전국 생활

문화제가 29일~30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숲에서 '나에게 우리를 더하다'라는 주제 아래 전국 12개 시도에서 120여 개 생활문화동호회, 1,500여 명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생활문화 동호회 교류 활성화 대회'에서는 사전 심사를 거친 최종 다섯 팀이 발제자로 나서,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가 3등에 선정되었다.

4. 2017년 - 2020년

2017. 04. 08.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로 창의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토요노리박스'를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요일에 진행하였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방송댄스, 클래식 작곡가의 생애, 또래와 함께 포럼, 국악속의 우리 이야기가 진행 되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댄스라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들이 문화적 욕구를 발산하고, 함께 소통하는 문화의 장과 지역문화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지역에서 역할을 느끼는 기회 제공하였으며, 클래식과 국악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잘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알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생각하고 이해하는 폭을 넓혔다. 이와 더불어 또래 음악회를 통해 삶에 대해 또래들이 멘토와 멘티가 되어주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회성을 기르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적 주체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진행하였다.



2017. 05. 1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사업인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언제 시작할까?'에 선정되어 5월부터 10월까지 21차시를 진행하였다. 가정,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를 인정받으며, 같은 세대들의 문화 활동으로 정신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노후의 멋진 삶의 방법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어르신들에게 맞춘 건전하고 건강한 전래놀이 프로그램과 함께 배우고 부르는 국악 수업 프로그램을 지역 롯데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하여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아닌 프로그램의 주인이 되어있는 어르신들을 볼 수 있었다.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가족,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지역에서 전래놀이 보급자 역할과 효자마을 축제 시'언제 시작할까'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주축이 되어 인근 경로당 어르신들과의 율놀이 시합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효자문화의집 공연 시 어르신을 초대하여 다양한 생활문화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만들었다.



2017. 05. 20.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거리와 광장 등 유희공간을 예술 동아리 공연과 청년 버스킹 공연, 공예품 전시·체험 행사가 진행되는'지붕없는 공연장'행사가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 전주시 5개 문화의집이 공동 참여하여 5월에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 되었다.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는 5월 20일, 27일, 6월 3일 마전숲 공원에서 트럼본앙상블 연주와 시민 참여'나도 한번 버스킹', 악기 체험 등이 진행되었다. 6월 8일, 15일, 22일, 7월 20일, 27일, 8월 3일, 10일, 17일, 31일, 9월 14일은 혁신도시 엽순근린공원에서 통기타, 시민 참여, 판소리, 트럼본 4중주, 트럼본 4중주, 바이올린 듀엣, 오보에 연주 등이 진행되었다.

2017. 07. 26.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문화의집협회 공모사업인'2017년 문화의집 생활문화활동' 선정되어 7월에서 10월까지'동네방네 반짝파티'를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동호회의 공연과 전시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 하였다. 지역의 다양한 계층과의 교류를 통해 생활문화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7월 26일 화가데이의 전시회와 효자풍물, 주옥 하모니 등 6개 팀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8월 30일은 묵향회, 먹그림 사군자&문인화의 전시회와 통기타소리사랑, 드림스쿨 등 8개 팀의 공연 진행과 9월 27일 화가데이 명안나 작가 개인전 및 클래식기타&오보에 국악과의 만남 공연이 진행되었다. 10월 20일은 묵향회, 먹그림 사군자&문인화 이명순 작가 개인전과 줄리엣 등 문화동호회 8팀과 한소리에술단의 야외공연이 진행 되었다. 동호회와 동호회, 동호회와 멘토 간의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높이고 동호회 활동의 가치를 지역과 함께 하는 가치로 선순환 하는 사업이었다. 특히 효자문화의집 하모니가 동호회인 주옥하모니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실버문화페스티벌에 참가하여 평소에 다져진 실력에 멘토(송도현)노하우가 더해져 샤이니재능상(금상-한국문화위원연합회장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2017. 08. 01.

장애인 예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마음 나누기” 프로그램을 4회 진행하였다.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 조사와 문화 나눔을 원하는 생활문화동호회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열어줌으로써 서로 만나지 못했던 계층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기회 마련하였다.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 사전 조사는 2017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공감콘서트 참여 단체와 전북장애인 인권연대 담쟁이 인형극단, 정다운주간보호센터 꿈꾸는 달팽이, 2017 전라북도 장애인 인권대회 동네 인권 36.5 행사를 방문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10월 20일 야외무대에서 전북여성장애인합창단과 ‘쭈욱하모니’ 공연, 10월 25일 장애인 단체‘꿈꾸는 달팽이’와 효자 동호회 ‘쭈욱하모니’와 롯데아파트 경로당 공연, 11월 8일 하나유치원에서 장애인 단체 담쟁이, 한울림 오카리나양상블 연주, 11월 23일‘지구촌 소리사랑’ 장애인 풍물패, 효자 동호회 ‘에텔바이스’, ‘쭈욱하모니’의 연주가 진행되었다.



2017. 08. 01.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대금마을’동호회의 정기연주회를 우진문화공간에서 21일 오후 5시 열었다. 공연의 시작은 이창선 대금연주자의 사회 아래 정현국 회장의‘소쇄원’ 연주, 전 회원이 연주하는‘조계수 다스름 1,2,3장’,‘원장현류 짧은 산조’, ‘해주 아리랑’,‘상주 아리랑, 죽성가, 호반촌메들리’,‘민요연곡’순서로 진행되었다.

2017. 10. 20.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나누는 화합의 효자마을축제'Fun & 판! 판! 판!'이 지역 호박촌 주차장에서 300여 명의 지역민들과 진행 되었다. 지역 주민과 효자문화동호회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축제를 기획하였으며, 실버에서 장애인, 중고등 학교 동아리, 지역아동센터까지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객이 아닌 직접 만들어가고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역예술인들의 참여로 축제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주민센터, 민간자생단체, 유관기관의 참여 및 협조를 통한 체험 부스 운영되었다.



축제 프로그램은 장애인 여성 합창단 등 6팀 공연으로 이루어진 흥겨운 소리판, 롯데 1차 경로당 등 6팀의 경로당 대항 율놀이대회가 열린 전래놀이 놀자판, 도토리지역아동센터 등 6팀 참가의 떡볶이 만들기 대회를 진행한 맛있는 먹자판, 서전주중 락밴드 등 12팀의 효자 가왕 소리판, 동호회 짬뽕 하모니 등 6팀의 오감감성 자랑판, 한국문화공간협회 등 5개 기관이 참가하여 천연비누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체험 프로그램, 즐거운 놀자판 등 함께 만드는 축제를 추진함으로써 주민 간의 유대감 형성과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8. 01. 19.

오페라를 시대적 배경과 내용 설명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오페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여행'을 지역민들과 2월까지 5회 진행 하였다. 이 인문학 강의에 참석한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효자합창단을 만드는 결실이 되었다.



2018. 01. 26.

전주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통해 생활 문화 활성화와 문화특별시의 기반 조성을 위해 효자, 인후, 진북, 우아, 삼천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5개소에서 진행되었다. 한지밭의 한지밭장 유배근, 지승 제조의 지승장 김선애, 낙죽의 전주낙죽장 이신입, 함죽선의 선자장 엄재수, 단선의 선자장 방화선 무형문화재 명인들의 공예시연과 체험 프로그램과 생활문화 작가들의 공예체험, 생활문화 공연 등이 각 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특성에 맞게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2018. 04. 13.

클래식 인문학 강의와 하우스콘서트를 함께 진행한 효자문화데이‘음악도서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다. 음악을 좋아하는 지역민들이 모여 음악적 대화를 나누고 인문학 강의를 통해 그 깊이를 더하고, 하우스콘서트를 통해 연주를 감상하고, 연주자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일상의 재미를 함께 하였다. 클래식, 오페라, 팝송 등 다양한 음악을 인문학으로 6회 진행과 지역 예술단체와 전주대학교 음악학과와의 협약을 통해서 하우스콘서트를 진행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음악을 매개체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의 재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 06. 08.

시를 사랑하고 시낭송을 좋아하는 지역민들이 함께 모여 시낭송을 통해 시를 보급하고 나아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지역의 이야기를 직접 표현해봄으로써 함께 공유하는 '시와 낭송이 공존하는 공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은 시와 시낭송을 함께 배우고 참여자 발표, 지역 경로당 등을 방문, 시 낭송 프로그램 진행, 활동 간 일상의 이야기와 지역 이야기를 담은 시집, 영상을 만들어 지역 공간을 활용한 작은 서재에 사업 결과물인 "효자동 愛" 시집을 보급하였다.



2018. 06. 27.

지역 교류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동호회의 활동 확대와 네트워크 조성을 목적으로 "OPEN CONCERT' 지역을 열다"를 6월 27일, 8월 29일, 9월 19일에 효자문화의집 문화동호회, 효자 권역 내의 생활문화동호회,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이 참여하여 3회 공연을 열었다. 6월 오픈콘서트 '지역을 열다'는 혁신도시 LX한국국토정보공사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참여단체는 혁신필하모닉오케스트라, 나르샤오페라앙상블, 아마빌레 윈드오케스트라 100여

명이 출연하여 혁신동 지역민 500여명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기획 단계에서는 혁신도시에 위치한 업순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당일 우천 소식과 무더위로 LX한국국토정보공사 대강당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공연장 오픈 20분 만에 400석의 객석이 매워졌으며, 통로에도 혁신 주민들의 열정으로 자리가 없었으며, 장소를 제공한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공연 기념품까지 준비하였다. 공연팀의 곡마다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에 혁신동 지역민들의 차기 공연 문의와 출연팀들도 다음 공연기획을 기대했다.

8월 오픈콘서트‘지역을 열다’는 효자동 문화공간 이름에서 진행되었다. 출연진은 시낭송가, 전주만돌린오케스트라, 전주새꿈소리합창단, 한울림 오카리나, 센세이션브라스 앙상블 등 5팀 46명이 지역주민 150명과 함께 진행하였다. 9월 오픈콘서트‘지역을 열다’는 신시가지 비보이 광장을 생활문화 공연으로 열었다.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통소리 사랑 기타 동호회,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라보체 중창단과 센세이션브라스 앙상블의 콜라보 공연이 진행되었다. 늦여름 비보이 광장 무대에서 아마추어 소프라노가 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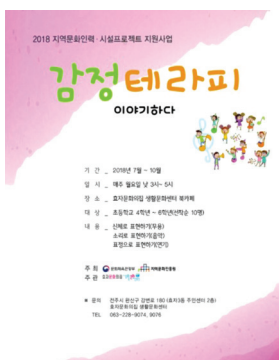




는 오페라 아리아는 주위 파라솔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전주 시민들의 호응이 뜨거웠던 오픈 콘서트였다. 사업이 종료되고 9월 21일 출연진들과 자체 평가 및 간담회를 진행하여 오케스트라, 성악, 합창, 시낭송 등 다양한 생활문화 동호회 연주를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 분위기 조성 및 동호회 간의 협업 공연 진행으로 음악의 질적 향상과 교류 기회 제공, 다른 장소에서의 지역을 여는 공연으로 지역 주민과 생활문화동호회의 생활문화 활성화와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2018. 06. 29.

전주 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가 협력해 특별한 생활문화 콘서트를 문화의집 생활센터 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는 ‘이웃 된지 1년이...’라는 주제로 전주대학교와 연계하여 음악학과 학생들의 바이올린, 피아노(신디), 첼로 구성의 클래식 공연을 하였다. 기획시에는 효자동 효문공원에서 계획하였으나 악기들이 장마 습도에 약해 장소를 변경하여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북카페에서 공연을 열었다.



2018. 07. 01.

지역 문화인력 프로젝트 지원 사업인 ‘감정 테라피’는 지역 주민 15명과 10월 31일까지 진행 하였다. 참여 지역민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겪는 갈등 이야기를 무용, 음악, 연기 역할 프로그램을 통하여 감정을 여러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갈등

등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새로운 삶의 자극과 경험으로 감정표현과 원활한 사회생활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참여하는 주민들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도출된 결과를 분석하여 참여자의 니즈가 반영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안에서 문제점 해결하는 방식으로 참여자의 ‘이야기하다’, 지역문화인력의 ‘결과 분석 및 니즈에 대한 고민’, 참여자, 지역문화인력, 강사의 ‘생활문화 공간 속의 변화’라는 테마로 참여자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도출된 결과를 분석한 니즈를 활용한 감정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8. 07. 27.

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인 “음악속의 전람회”를 7월에서 9월까지 생활문화동호회 공연 및 미술작품 전시회 3회 진행하였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기획단을 구성하여 개인역량과 동호회 자생력 강화, 다른 장르의 동호회 교류를 통해 생활문화 콘텐츠를 다양화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7월 27일 ‘브라보 마이 라이프 콘서트 I’은 라보체, 에텔바이스의 공연과 화가데이의 결실 외 8개 작품을 전시하였다. 8월 31일 ‘브라보 마이 라이프 콘서트 II’는 라보체, 에텔바이스, 디*아트 색소폰 공연과 화가데이의 ‘기다림’ 외 8개 작품으로 진행되었다. 9월 28일 ‘브라보 마이 라이프 콘서트 III’은 라보체, 에텔바이스, 전주 크로마하프, 클라리넷 독주 공연 진행과 화가데이 작가들의 ‘흐르는 곳에서’ 외 9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 사업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는 사업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뒷받침 해주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동호회의 특색을 살린 생활문화 공연과 더불어 특색 있는 전시가 되었다.





2018. 08.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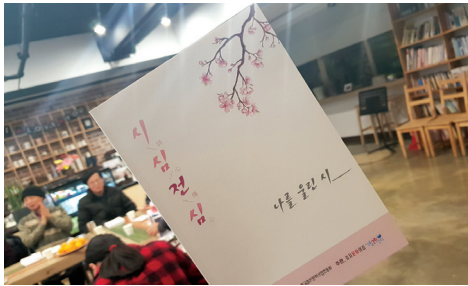
인문활동가 양성·파견 사업으로 진행된'시와 함께하는 인문학교실 <시시콜콜>'은 평소 인문학에 관심 있었던 주민들을 유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0차시를 진행하였으며, 강사로 는 하미숙 인문활동가가 진행하였다. 인문학 주제로는 처음 읽는 서정시1(백석의 시1, 2), 에드워드 호퍼&김기택의 시, 기형도 시집 『입 속의 검은 잎』, 안도현 시집 『간절하게 철없이』, 페미니즘 시 읽기(고정희, 최승자 등), 앙리 루소의 그림과 진은영의 시, 장석남 『고요는 도망가지 말아라』, 오규원 시인의 무의미의 시 『두두』를 읽고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시를 위한 영화 <패터슨>을 감상했으며, 문태준 시인 작품 낭독의 발견, 시의 언어 - 은유와 패러디, 생활 속의 시, 시가 된 영화, 영화가 된 시, 송찬호 『고양이가 돌아오는 저녁』, 오늘의 시와 시인, 허수경 시인을

애도하며 그의 시 세계를 탐독했다. 또한, 노동시를 말하다, 낭독의 힘, 발견의 미 등으로 다양한 문학이 시와 영화의 세계와 협응하는 시간이었다.



2018. 08. 01.

지역 내 문학에 관심을 두고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시집을 읽고 '내가 뽑은 시'를 2편 정도 선별하여 시 작품에 대한 느낌과 선정한 이유 등을 참여자들이 직접 산문으로 써서 앤솔로지 형식의 책을 발간하는 인문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참여자들은 능동적인 활동을 하면서 '나를 울린 시'라는 주제로 참여자 모두가 함께 글을 써서 엮은 『시심전심』을 발간하였다.



2018. 08. 30.

전주시립도서관 주관으로 시민들의 독서 생활화와 지역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8 전주의 책'에 선정된 '책 깎는 소년'의 장은영 작가와 지역민들과 작가의 의도와 작품 설명 등 독자와 함께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가졌다.



2018. 10. 15.

전주문화재단 생애주기별 사업 "너와 나 즐거운 일!" 프로그램을 기쁨의 집 11월 8일까지 미혼모 5명, 자녀 4명과 진행 하였다. 미혼모들의 직업군 탐색을 목적으로 네일아트 프로그램과 미술 프로그램으로 변화해가는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기 참여자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더불어 이를 통해 향후 진로 선택(자격증 취득)에 작은 도움을 주었으며, 처음에 어색했던 참여자와 강사들이 성과 공유회 후 식사를 하며 웃는 모습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과 프로그램 추진 일정이 짧아 기쁨의 집 원장님께서 지속적인 사업을 요구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2018. 10. 16.

문화동호회와 지역 동아리들의 공연과 민간자생단체 바자회로 구성된 2018 효자마을축제가 호박춘 주차장에서 지역민들과 진행되었다.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동호회 통기타소리사랑, 대금마을, 라보체, 서전주중학교 동아리 락밴드,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 힙합, 도담지역아동센터 댄스, 예술단체 아카펠라 조이폴의 공연으로 구성되었다. 먹거리 판매 및 바자회 진행을 효자시니어클럽에서 진행하여 지역 자생단체들과 연계를 통해 마을 축제 콘텐츠 개발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8. 10. 31.

색소폰 연주와 재즈밴드의 독특한 매력을 살려 시민들과 함께 지붕 없는 공연장 문화의집 기획 프로그램 “별별별 in PeoPle” 버스킹 연주를 신시가지 비보이광장에서 열었다. 신시가지 공연 공간인 비보이 광장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가을밤 재즈공연은 재즈밴드 ‘하루차이’와 장경수 색소폰 연주로 진행되었으며, 재즈 음악의 장점인 애드립 연주는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냈다. 공연 진행 시 할로윈데이를 맞아 여러 모습으로 변장하고 문화광장을 찾은 젊은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색적이면서 독특한 생활문화 공연 진행으로 차후 기획프로그램에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공연이다.

2018. 12. 21.

진주효자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인 ‘새꿈소리합창단’의 제1회 정기연주회를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북카페에서 개최하였다. 새꿈소리합창단은 만60세 이상의 어르신 21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지역의 문화시설에서 공연을 진행하여 노인 일자리 참여자 가족들과 어르신, 지역민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었다.

전주 시민들에게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문화'꿀돼지장터'를 5개 문화의집에서 열었다. 2018년도에 이어 열리는 장터로 뮤지션, 생활문화동호회의 공연, 생활문화 작가들의 공예체험, 먹거리 부스 등이 운영되었다. 18일 삼천문화의집, 22일 진북문화의집, 23일 효자문화의집, 24일 우아문화의집, 25일 인후문화의집에서 장터를 운영하였다.



테라리움 만들기?

테라리움은 다양한 식물과 동물, 그리고 물과 흙을 사용하여 만든 미니 생태계입니다. 테라리움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으며, 실내 공간을 꾸미고 식물과 동물을 키우는 데 사용됩니다. 테라리움은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테라리움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으며, 실내 공간을 꾸미고 식물과 동물을 키우는 데 사용됩니다. 테라리움은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수업 목표 테라리움의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테라리움의 종류와 용도를 설명할 수 있다.

기 전 1시간 10분 **12월 23일 ~ 24일** 테라리움 만들기 수업 1시간 10분

장 다목적강당 (1층) 10:00 ~ 11:00

대상 초등학생

비고 1. 테라리움 만들기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은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료 없음






테라리움 만들기

12월 23일 ~ 24일

10:00 ~ 11:00

다목적강당 (1층)

* 신청서 양식 1월 10일 (수요일) 발송

지역주민을 위한 ‘엄마랑 아이랑 함께 유리병 속의 화원 - 테라리움 만들기와’, ‘방안의 분위기를 바꾸자! 넬솔아트 액자꾸미기’등 겨울 특강을 개강하여 2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에 진행하였다.

2019. 03. 05.

지역 예술단체 한소리와 방과후 마을 학교 운영 사업인 '전래놀이 & 국악 동요'를 초등학생 20명으로 구성되어 42차시 협업 운영하였다. 전래놀이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여 신체 발달과 지적, 정서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악 동요를 전래놀이와 접목하여 청소년들에게 전래놀이를 보급하는 프로그램이다.



2019. 04. 06.

사람과 사람을 잇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드림 on 챔버오케스트라 교육사업은 장애인인권연대와 협업으로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공간에서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발달장애 인 청소년 연주자들의 재능 발굴 성장, 문화예술의 향유 제공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서로의 인식개선 및 삶의 가치를 발견
에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연주자가 만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시선의 변화로 장애
인이 아닌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립, 활약해 나가며 장애인 연주자들의 꿈
과 모델을 함께 이야기하고 진행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음악을 좋아하
는 발달장애인 연주자,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인 연주자들이 마음껏 연주하
고 공연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장애인 예술가들이 경제적 자립과 함께 전
문적인 연주자로서 무대에 설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지역의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이 함께 호흡하고 서로 어울리며 진정한 문화예술의 아름다
움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단체 대표자, 장애인 부모들과 효자문
화의집생활문화센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장애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부

분과 비장애인 연주자들의 합주 필요성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구성도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가 음악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한 강사진은 물론 여러 장애인 단체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진행되었다.

2019. 04. 11.

지역의 전래시장 공간에서 문화 활동, 강좌, 지역 아트리폼 등을 통해서 생활문화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우리 동네 알리미“모꼬지 기획단”이 4월부터 10월 서부시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지역, 사람, 공간, 활동의 만남으로 새로운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기획, 참여, 소통, 공유를 담아 지속적인 생활문화 인프라 구축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민 기획단과 어린이, 청소년 기획단 구성하여 지역 리폼, 동네 탐방, 골목길 영화제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주 골목길 문화행사에서는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부사업인 문화 공간 Art Space ‘지역 아트 리폼’은 다양한 가게들이 모여 있는 재래시장 골목길마다 특성 파악 및 부여하기 위해 주민 기획단, 예술가와 재래시장 주인들과 편하게 참여하고 리폼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통의



메뉴판, 입간판, 명함 등을 제작하였다.

어디로 갈까‘골목길 문화행사’는 성과공유회 성격으로 골목 안에서 지역민들과의 매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생활문화 행사 진행, 지속 가능한 문화향유 아이템 선정 등 재래시장 골목 공간의 문화 정체성, 지역의 문화적 가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사업 내용을 보면 문화 공간 Art Space ‘지역 아트 리폼’ 사진 전시회와 어디로 갈까‘우리동네 탐방’책자 홍보, ‘골목길 영화제’시사회, 동호회 공연, 음식 나누기 등으로 진행하였다.

지역 아동, 청소년 모꼬지 활동은 참여자들과 체험프로그램, 문화 공간 Art Space(지역 아트 리폼) 결합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사업 장소인 청년몰, 상인회 강의실, 서부시장에서 서부시장 골목길에 어린이,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 공간 만들기, 골목길 안의 어린이, 청소년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발, 지역 아트 리폼과의 결합으로 문화예술체험교육을 지역의 삶의 공간과 연결하는

방향성을 주안점으로 하여, 아트 리폼과 결합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문화 상징물 만들기로 지역과의 소통 방법을 알아가고 골목길을 놀이 공간으로 바꾸어 갔다.

성과를 보면 지역아트리폼 일환으로 명함이 없던 인근 상인 우선으로 모꼬지 마을 기획단이 만든 로고를 넣은 공통된 디자인의 명함을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서부시장 소식지 총 9,000장을 제작 및 배포하여 상인들에게는 상가홍보를 주민들에게는 서부시장 소식을 알리는 역할과 청춘시전에서 지역 아동들과 체험프로그램, 지역아트리폼을 하며 사전 조사를 나온 예비 입점 청년대표자들에게 활동 모습과 사업설명을 통해 청춘시전의 청년기업이 8개로 늘어나는 사업성과를 이루었다.

2019. 04. 12.

전주시교육지원청 방과후 마을학교 사업에 선정되어“뮤지컬로 놀자”프로그램을 재래시장 서부시장 청년몰과 상인회 회관에서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지역의 환경을 알아가는 문화 활동으로 재래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와 청소년들이 배우고 싶은 뮤지컬을 습득하여 지역활동(재능기부, 봉사)에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프로그램이다.



2019. 05. 04.

삼천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가 함께 삼천동 거마공원에서 '삼천초록별축제'를 주관 하였다. 인근 문화시설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지역 축제로 상호지지구조와 밭줄을 이용해 만든 자연 그대로의 초록별 모험 놀이터 운영, 현장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인화해주는 '움직이는 가족 사진관' 생활공예를 체험 부스 18곳이 운영되었다.

부대 프로그램으로 초록별 끼 한마당, 삼천 낚시경연대회, 심폐소생술 실습, 소화기 사용법 교육, 새참·주전부리 코너, 우리동네 수다 카페 등이 마련되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 행복한 추억 장소로 운영되었다.

2019. 06. 10.

시와 함께 시작하는 작지만 확실하고 행복한 월요일, '시확행'이라는 주제로 '시시콜콜' 프로그램을 6월에서 10월까지 하미숙 작가의 진행으로 시작되었다. 참여 연령대를 보면 30대부터 70대 초반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구성으로 다른 세대를 살아온 인생 선배와 후배의 만남이라는 의미가 있다. 6월 프로그램은 '시와 함께 시작하는 작지만 확실하고 행복한 월요일', '시확행'이라는 주제로 시작한 시시콜콜 첫 강의 시간은 참여자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 참여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그만큼 밀착력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현대시 중 최근에 발표된 시편들을 대상으로 낭독하고 감상을 교환하는 시간이었다.

7월 시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오늘의 젊은 시인과 신작시'는 아직 시집으로 엮이지 않은 시편들을 읽고 감상하는 시간이다. 시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인들이 문학잡지에 발표한 가장 최근의 시편들을 낭독하고 감상하는 일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시인의 눈을 통해 외부세계를 바라보기도 하고 현재를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시들을 참여자들은 서로 의미를 주고받으며 시의 깊이를 더듬어 보았다

8월 시가 있는 수요일 저녁 1부는 '백석을 읽는 시간'과 앤솔로지 시집『사랑

해도 혼나지 않은 꿈이었다』를 통해 참여자들과 함께 시를 읽고 낭독과 감상 시간을 가졌다. 백석의 시를 읽으면서, 평안도 지역의 장소가 나오는 시 감상, 그 시절 시장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2부에서는 여러 시인들의 시를 묶은 앤솔로지 시집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의미파악이 힘든 다소 난해한 시도 각자의 눈으로 읽고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9월 시가 있는 월요일 아침, 1부는 김혜자 시인의 「합일」을 시작으로 하여 도종환의 「병든 짐승」을 살펴보았다. 참여자들은 의미파악이 힘든 다소 난해한 시도 각자의 눈으로 읽고 소감을 발표했다. 특히 각 시에서 느껴지는 경험의 세계를 각자의 경험과 빗대어 서로의 느낌을 주고받는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10월 시와 함께하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송재학 시인의 「늪의 내간체를 언다」를 시작으로 12편의 시를 낭송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했다. 의미파악이 힘든 다소 난해한 시도 각자의 눈으로 읽고 소감을 발표했다. 이번 작품들은 모두 인간세계의 시간의 유한함에서 오는 소회와 이를 받아들이는 순응, 그리고 자연에서 오는 풍경의 아름다움과 시적 언어의 형상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 시에서 느껴지는 경험의 세계를 각자의 경험과 빗대어 서로의 느낌을 주고받는 시간이었다.



2019. 06. 12.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사업인 인문전공자 협업 인문 프로그램을 웹툰 이권중 작가와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 하였다. 전주를 대상으로 하여

주민의 입장으로 이야기해보며 느낀 점이나 문제점 등을 스토리텔링하여 이해하기 쉬운 만화로 제작하여 편집과 출력, 출판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지역 주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정제하며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자기 삶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만화 창작활동으로 살고 있는 동네를 이야기해보고 아기자기하게 만화로 표현해보는 참여자도 있었고, 자신의 종교 생활을 만화로 나타내 종교적 삶의 풍요로움을 재미있게 표현한 참여자도 있었다.

인문협업자 이권중은 만화를 컴퓨팅하여 데이터화 하고 데이터화한 것을 기반으로 출력, 출판할 수 있는 방식, 데이터 파일을 참여자와 문화의집에 제공하여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이야기 발굴, 간단한 만화 기법으로 자신만의 콘텐츠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9. 06. 19.

음악 토크 콘서트“음악 좀 알고 가자”프로그램이 6월부터 11월 매주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은희천(前 전주대학교 교수) 강사와 진행되었다. 음악 토크 콘서트 ‘음악 좀 알고 가자’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음악 인문학 강좌로 지역민들의 수요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하였고, 사업 종료 시까지 대부분 열정적인 청강을 하였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음악 인문학을 진행한다는 것은 모험성이 있으나 기획 단계



부터 철저한 준비로 매회 30-40명의 매니아 층을 형성하였으며, 특히 참여한 청강생들의 바이럴 홍보로 지역의 명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 매월 진행되는 인문학으로 참여 인원들의 지속성을 유지하였으며, 인문학 강의 후 강사와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더욱 흥미로웠다. 강사의 토크 형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관련된 유명한 연주들이 스크린에서 진행되어 현장감과 공감성이 더욱 상승되었으며, 요약된 내용들의 페이퍼와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청강생들의 이해를 더욱 상승시켰다. “음악 좀 알고 가자”라는 인문학으로 중간 중간 지역 문화공간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공연에 같이 동참하는 파급효과를 만들어 냈다. 사업 종료 후 청강생들의 2020년 지속적인 진행의 요구가 있어 클래식 동호회가 결성되었다. 지역의 다양한 계층(연령, 성별 등)의 청강생들이 음악이라는 주제로 지역적 화합을 이

루었으며, 지역문화 공간 활성화에도 성과를 이루었다.

2019. 06. 26.

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동네 골목길 DP! '세 번만 만나줘요'(7시) 사업은 생활문화동호회 공연 및 미술 작품 전시회로 3회 진행되었다. 참여 동호회들이 사업담당자와 기획단을 구성하여 기획 및 진행 회의로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구성하였고,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는 행정업무, 공연 하드 및 인력 관리, 홍보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6월 26일 서부시장 청춘시전, 6월 29일 효자동 이바디공원, 7월 14일 전북신학개혁연구원 강당에서 화가데이의 전시회와 에텔바이스 동호회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사업성과 중 화가데이 작품들을 활용 엽서를 제작하여 지역민들에게 배포하여 화가데이 동호회 작품들의 가치를 공감하였다.



2019. 06. 29.

전주공예 명인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난장'전주수작(手作)'을 6월 29일 효자동 이바디공원에서 개최하였다. '전주수작(手作)'은 전주시 5개 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생활권역에서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수공예 명인들과 매칭하여 명인들의 예술적 가치와 무형문화의 가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 방향은 ‘전주 수작(手作)’의 명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가치와 의미를 우리 주변, 우리 일상에서 여유롭게 체험하며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참여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3m의 판옥선 제작과 자기만의 자유로운 수작 만들기를 통해 전주 수작(手作)의 의미와 가치를 담고자 하였다. 우리 지역 각양각색 분야의 생활달인을 발굴하여 사람과 사람 관계 맺기를 통해 달인들의 가치를 공감하고 체험하는 시간과 생활문화, 사회적경제, 소외된 계층과 장애우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는 LH토지공사전북본부의 홍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협찬, 사회적기업 유)다농라이스 혼합미 후원 등 통합적 행사로 진행되었다.

효자동 이바디공원 공간을 십자로 구성하여 중앙에‘마주침 장소’를 만들어 명인, 달인과 지역민들을 잇는 공간적 의미를 두고 구성하였다. 기획 초기에는 부스 설치를 지양하고 노천카페 스타일로 나무와 나무 사이에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당일 우천 관계로 부스를 설치하여 진행하였다. 오전에 이슬비가 내리더니 오후가 되면서 장대비로 바뀌었지만,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모두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했다. 참여한 셀러들의 반응도 좋았다. 그러나 우천 관계로 일찍 끝내려 했을 때, 연장하자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주 공예 명인과 함께 하는 수작(秀作)콘서트는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10호 엄재수 선자장과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50호 최대규 나전장의 수공예 전시, 토크콘서트, 수작시연 등을 하였다. 이바디공원의 정자자 있는 곳의 공간 활용과 양송희 아나운서 진행으로 명인들의 예술적 가치를 의미 있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지역 생활 달인 우리 동네 수작은 지역 생활 속 다양한 달인이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한지 부채 만들기 등을 체험하였다. 생활문화장터에서는 지역 공방(인)을 중심으로 공예체험과 주변 환경을 활용한 밧줄 놀이터 및 스팟 놀이터 조성하여 아이들의 놀이터를 운영하였으며, 아트마켓 운영, 지역 착한 경매 등이 운영되었다. 이바디 공원 중앙에 메인무대를



설치하여 동호회, 전주대학교 음악학과 현악 앙상블, 지역 국악 학생들의 공연이 교통방송 조준모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바디공원 옆 물빛채 공원에서는 전주공예명인과 함께하는 생활문화난장 ‘전주 수작(手作)’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배(판옥선)를 협동조합 예술로 똑딱과 협업으로 참여, 지역민들과 협조하여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만의 가치 있는 전주수작(手作)을 진행하여 눈길을 끌었다. 많은 볼거리, 체험 등이 있었지만,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각자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체험하는 ‘나만의 수작품 만들기’는 참여자들에게는 전주공예 명인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었고 생활문화 난장 ‘전주수작(手作)’의 의미를 담아 더욱 되새기게 해주었다.

2019. 07. 27.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인 효자 거리 문화 창작소 비보이 광장에서 놀이공연을 7월, 10월에 신시가지 비보이 광장에서 진행 하였다. 사업 진행 장소인 비보이 광장은 전주 신시가지 상가 밀집 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 전주시 야외공연장으로 낮에는 직장인 거리, 밤에는 청년들의 거리, 주말에는 청소년의 공간으로 기본 무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는 넓은 광장과 벤치가 비치되어 있어 지역의 생활문화동호인과 젊은 예술인들이 공연과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공간 활성화를 위해 선택하였다.

7월 공연은 발달장애인 드림온 오케스트라, 청소년뮤지컬, 어르신 합창단이 참여 하였다. 10월 공연은 발달장애인 드림온 오케스트라, 청소년뮤지컬, 어르신 합창단 개별 공연과 장애인 오케스트라와 어르신 합창단, 청소년 뮤지컬 팀의 콜라버레이션 공연을 기획하여 참여자들의 새로운 공연 경험을 하였다.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공간에서 어르신 합창단의 공연에 장애인 오케스트



라가 연주하고 지역의 동호회와 상가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속에서 서로 협력 소통하면서 문화의 생산과 향유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생활문화체험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의 공간 활성화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

2019. 08. 06.

정원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정원 이야기'읽다, 거닐다, 느끼다' 인문학 강의와 답사 프로그램으로 12월까지 이현우 조경학 박사와 함초롱 문화예술교육사가 진행하였다. 인간은 시간과 이야기가 더해진 담장 안의 공간에 역사를 만들어가며 살아간다는 점에 착안해 생활문화유산인'정원'을 프로젝트의 주제로 선택했다. 선조의 정원과 현대의 정원을 알아가며, 옛 정원에서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참여 지역민들이 한국의

정원에 대해 알아가며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도록 인문학 강의와 답사 교육 일정으로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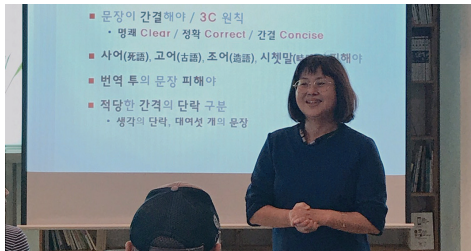
평균 참여 인원 15명으로 계획되었으나 수강 신청 인원 70여 명, 첫 수업참여 32명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오리엔테이션 수업에서 이론 수업 70%이상의 참여자에게 수료증 전달한다는 내용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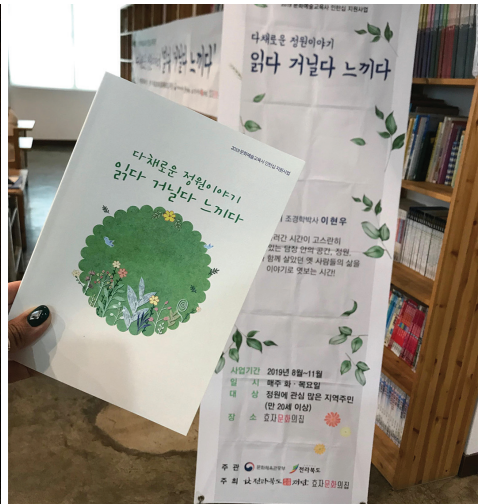
현장답사는 15명의 인원 한정이 있었으나 개인적으로 현장답사지에 방문하여 함께 견학을 한 참여자도 있었으며, 답사지는 부여 공남지, 연꽃 기행, 진안 수선루, 담양 소쇄원, 담양 식영정, 정읍 피향정, 정읍 산림조합 카페 정원 등을 방문하였다.

총 31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운영 기간 동안 총 567명(재방문인원포함)의 지역 주민이 시설 방문 및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11월까지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인원수는 567명(재방문인원포함)으로 집계됐고, 수료증 발급대상자는 평균 출석 인원 15명 중 67%에 해당하는 10명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수료증을 발급받았으며, 프로그램의 수업내용과 참여자들이 작성한 수기를 모아 스토리텔링북을 제작하여 참여자들에게 배부도 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에 '전국 최초로 진행된 정원의 인문학 강의'라는 평가를 받았고, '천만 그루 정원도시'추진위원회 최현규 운영위원장이 직접 시설 방문하여 정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2019. 09. 07.

한가위 효자마을축제가 9월 7일 (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효자동 호박촌 주차장에서 '한가위 효자마을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한가위 효자마을축제는 효자3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효자시니어클럽, 호박촌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2019 효자문화의집 특성화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생활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마을 축제이다. 무대 행사는 지역 주민인 최형준 씨의 사회를 시작



으로, 지역 동호회와 함께하는‘신나는 공연 한가락’, 지역 주민들이 준비한 ‘맛좋은 음식 한가득’, 전래놀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체험·놀이 한마당’을 운영하였다.

부대행사로‘한가위’를 주제로 명절 스트레스 없는 명절 맛이를 위해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과 효자 주민 노래자랑 등을 진행하였다.

2019. 09. 23.

수다로 만드는, 하고 싶은 문화‘마음 수다! 손 수다!’프로그램은 2019 지역 문화인력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10월까지 6회를 진행하였다. 포슬린 아트 4회, 티 클래스 1회, 티 파티 1회, 총 5회로 단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일상 속에서 마시는 차 이야기와 자신들이 꿈꾸는 문화를 사람들과 소통하며 차 문화가 있는 문화 티 파티를 통해 참여자들이 평상시에 경험해보고 싶어 했던 차 문화를 접하는 시간이었다.



2019. 12. 26.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동호회, 지역민들과 '효자 어울림 송년 파티' 성과공유회를 진행하였다. 2019년 성과공유회는 참여자들과 지난 1년의 동호회 활동과 효자생활문화센터 활동을 프리젠테이션으로 공유하였고, 2020년 동호회의 활성화와 효자생활문화센터의 방향성에 대해 담론을 이어가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공연은 없었지만, 성과공유회를 마치고 다과를 나누면서 동호회 회원들과 지역민들의 화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20. 06. 09.

국악 동요를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래놀이를 접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신체 발달과 지적, 정서발달을 꾀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시에 국악의 특성을 살려 음악적인 감수성을 키우는 '전래야 동요랑 놀자'를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 20명과 전래놀이와 국악 동요를 접목하여 85차시를 진행하였으며, 지역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국악 단체와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0. 06. 09.

‘마음만 갖고 소통이 되니! 공간에 공감을 더하다’는 발달장애인 연주자들을 가능성을 지닌 친구로 바라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래, 가족들이 지역사회 간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2년째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으로 사회배려층에 대한 생활문화를 실천하는 시간이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발달장애인, 비장애인, 학부모, 지역민들이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의 중요성은 현시점의 활동보다 미래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장애인 연주자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오케스트라 협주를 통해 서로의 소리를 듣는 배려와 보이지 않는 소통을 통해 자존감과 공동체적 인성을 갖춘 건강한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우며, 이들의 문화향유 기회, 문화적 감수성 향상, 예술적 가능성,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순 반복형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단원들의 통합과 소통의 가치를 널리 공유할 수 있는 인식개선 콘서트, 사회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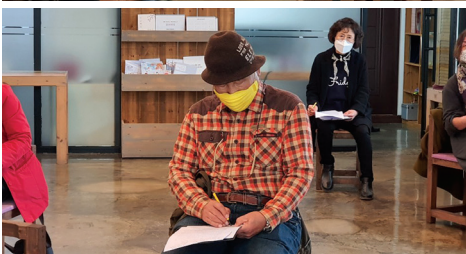
연 등을 진행하여 장애인, 비장애인 연주자들이 음악 속에서 화음을 맞추며 서로 사랑하고, 자유롭고, 편안한 활동을 하였다.

발달장애인 연주자 14명, 비장애인 연주자 8명, 지휘자 1명, 강사진 5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로 매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기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학부모도 매주 같이 참석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인식개선의 시간을 가졌다. 발달장애인 학부모, 지역민, 전문예술인, 일반 장애인,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가 모여 전주 시민들의 오케스트라를 지향하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활동이 단원들의 즐거움, 자존감,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가족, 강사 등 모두의 노력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통해 지역사회문화, 장애인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며, 감동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회에 보람된 연주를 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꿈꾸고 있다.

2020. 06. 17.

클래식(음악) 이야기를 인문학적으로 풀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토크콘서트‘음악 좀 알고 가자 II’는 2019년 참여한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는 연속사업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6회를 운영하였다. ‘음악 좀 알고 가자 I’은 수강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 일수를 늘리고 조금 더 자유로운 토크콘서트 특유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전년도 프로그램에서 많은 호응을 이끈 은희천(前 전주대학교 교수) 강사를 재초빙하여 전년도 수강자들의 재참여와 참여자들의 바이럴 홍보의 효과로 새로운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이 지속됨으로 인하여‘음악 좀 알고 가자’인문학 마니아층이 더 견고해졌다. 새로운 지역민의 유입과 매회 수강자들의 열띤 반응으로 코로나 19로 여러 가지 제약과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사업기대치가 높았던 사업이다. 2020년 참여자들의 프로그램의 지속 요구가 계속되었으며 활발한 동아리 활동 등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의 마니아가 형성되었기에 2021년 프로그램 지속과 참여자들과 인문학 동호회를 만들고자 한다.





2020. 06. 26.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웃 소식 들으셨나요?'는 우리 지역의 소소하게만 생각했던 일상의 이야기, 이웃의 이야기, 생활문화 이야기를 이웃과 서로 소통하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야기 등을 담은 제작 과정에 지역민이 참여하는 참여형 콘텐츠이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SNS에서 방송하여 생활문화센터 2차 홍보와 생활문화센터 공간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민 구성의 효자 탐방 제작단을 구성하여 이웃들의 이야기,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 명인, 명소들을 아카이빙하고 지역민들과 소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효자 탐방 제작단의 사연, 소식들을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북카페에서 방송국 스튜디오 형식으로 하여 재미와 흥미를 더 했고 주민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였다. 진행 역시 前) 여성시대 김선식 진행자가 맡아 참여자들의 인기가 많았다. 사업 진행을 위한 효자 탐방 제작단의 특강도 4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지역 탐방을 위한 스마트폰 촬영법, 마을 공동체의 필요성, SNS 홍보 방법, 생활문화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어 이 사업에 대한 의미와 진행에 필요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매달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7회 진행되었고, 28개 참여자의 소식과 34개의 음악 소개,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 탐방은



4개소로 축소 진행하였으며, 7회의 송출을 하였다. 성과 공유회는 지역 문화 공간인 이룸 공연장에서 코로나19로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지만, 사업 과정에 필요한 휴대폰 촬영법, 공동체, 나만의 생활문화, 홍보 방법 참여자들의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특강이라는 평가와 지역의 장소, 먹거리, 공방 등을 공유한 내용으로 우리 동네 책자를 만들어 기록화한 책자의 긍정적인 평가 및 지속적으로 지역민과 아카이빙 책을 만들어 갈 문화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지역민들의 성과를 공감하였다.



또한,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과의 SNS 실시간 송출로 사업 기대치를 높였으며, 간담회 개최로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시간과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지역민들이 동네 이야기를 담는 의미 있는 ‘이웃 소식 들으셨나요?’를 연속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웃 소식 들으셨나요?’는 2020년 우리 지역의 소소하게만 생각했던 일상의 이야기, 이웃의 이야기, 생활문화 이야기를 이웃과 서로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주민 홍보 모임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문화센터 휴관 및 인원 제한으로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과도 페이스북(SNS) 방송하여 생활문화센터 2차 홍보와 활성화 확산에 이바지하였다. 참여자들의 추천이 활발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공방, 빵집 등을 인터뷰하고 결과물인 책자에 사연과 인터뷰 등을 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 목적에 대한 공감대를 얻었고, 마을 홍보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성공적인 문화콘텐츠를 완성한 사업이었다.

2020. 07. 24.

‘백수(白手)가 백수(百數)를 이야기하다.’ 프로그램은 2020년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서 가장 의미를 두고 기획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백수(白手)가 백수(百數)를 이야기하다.’라는 제목의 탄생 배경부터 이야기하고 싶다. 서부시장에서 진행했던 ‘모꼬지 기획단’ 회의를 청년몰 옆 커피숍에서 하는데 슬리퍼에 츄리닝 복장의 젊은 사람 몇 명이 모여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어, 주인에게 물어보니 백수들이 하는 독서 모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과정에서 생활문화를 모르는 백수들이 문화에 대한 백 가지 방안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쓰게 되었다.

기획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양한 것을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모든 생각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나온다는 점을 느끼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기획 당시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의 생각은 ‘지역의 생활문화 특성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어떤 시설이나 공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만드는 것이 아닌가? 문화시설들이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다가서고, 물어보고, 계획하고, 실행을 했는지? 지역민들의 의견 속에

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동호회,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지는데……이러한 질문들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어느 한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문화시설들이 한 번쯤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정책적으로 변화되는 생활문화 키워드, 방향성을 문화의집은 수용하고 있는지? 지역민들은 알고 있는지? 지역민들은 얼마나 주체적으로 우리의 생활문화를 누리고 조성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층과 담론을 나누고 무언가 듣고 싶었다.

지역민들의 니즈 반영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지역민들의 자발적, 주체적 참여율은 어떻게 되는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역민들의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지역에서 문화의집 이용도, 인지도 즉,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사업으로 지역민들의 참여와 문화의집 프로그램의 활성화, 역할 등에 변화를 추구하여 지역 속에 살아 움직이는 생활문화 조성과 지역민이 좋아하는 동네 생활문화에 활성화 방안 제시에 지역의 다양한 지역민, 기관, 시설 등의 참여로 폭넓은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의 담론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모습을 듣고, 보고, 그려보고 싶었다. 효자문화의 집생활문화센터만의 생각보다는 전주 문화의집, 관련 종사자, 지역민, 활동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하였다.

사업은 7월부터 10월까지 '백수(白手)가 백수(百數)를 이야기하다' 동호회 이야기, 지역 이야기, 문화종사자 이야기, 성과공유회로 4회 진행되었으며, 외부 강사보다는 전주 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인력들이 진행하여 진솔한 이야기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7월 24일 '백수(白手)가 백수(百數)를 이야기하다' 동호회 이야기는 동호회 김정숙 선생님의 즉흥적인 하모니카 연주로 시작되었으며, 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동호회, 지역 동호회와 함께 인후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고미숙 관장의 '나와 너, 우리가 있는 취향 공동체'라는 주제로 강의와 동호회 활성화, 지역에서 바라는 동호회 활동 및 지역 내 문화 공간, 시설과의 연계 활동, 동호회 연계를 통한 콜라보 활동 방안, 전문예술가와의 활동으로 동호회 질적 향상 방안, 동호회 활동과 공동체 활동의 관계성, 지역 문화 공간들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10월 16일 '백수(白手)가 백수(百數)를 이야기하다' 문화 인력 이야기는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종사자, 전문예술인, 생활문화 활동가들과 '문화종사자,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진복(前 우아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관장)의 주제 강의와 문화시설 종사자들의 역할과 변화, 문화인력들의 아이디어 공감 및 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연상법, 기획서의 작성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11월 05일 '백수(白手)가 백수(百數)를 이야기하다' 지역 이야기는 완주문화도시 지원센터 전성호 팀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다.

지역민, 지역문화 활동가, 민간자생단체, 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종사자, 동호회 등이 참여하여 지역민과 민간자생단체 그리고 지역 문화시설들이 바라는 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의 기능과 역할 및 네트워크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또한 문화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호회와의 교류 방안과 사회에 재능기부라는 관점으로 동호회 활동과 문화시설의 기능, 개인 취미 활동과 문화시설의 연계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공간으로써의 기능, 개개인이 잘하는 것을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는 공간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을 알아가고 참여자가 문화체험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젊은 층(다양한 층)이 생활문화센터를 많이 활용할 수 방안, 평생교육의 기능과 행복을 충족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 방향 등은 물론이고, 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의 홍보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11월 20일 성과공유회는 기획 당시 3개 세부 프로그램에서 도출된 이야기 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종사자와 문화예술인으로 축소하여 지역의 문화시설인 문화공간 이룸 공연장에서 진행하였다. 선흥진(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관장), 고미숙(인후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관장), 이진복 대표가 패널로 참석하여 즉흥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과 사업 진행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백수(白手)가 백수(百數)를 이야기하다'는 5개 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문화시설, 지역민 등 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며, 코로나19로

참여자들의 수적, 다양성이 축소되어 아쉬움이 남지만 2021년 연속사업으로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만들고자 한다.





2020. 10. 16.

‘희희낙락’202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프로그램으로 음악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습득하며,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 그 위에 소리를 입혀보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효자동 어르신들의 양질의 노년 생활을 위한 ‘희희낙락’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 관리 등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을 수행하여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가 어르신들의 소통과 문화 활동의 공간이 되는 모습을 만들어 보았다.

효자동 어르신들과 함께 쉽고 재미있는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력 향상과 집중을 통한 기억력 회복, 수용·포용력 습득으로 인한 표현언어기술 향상 등의 지적 영역과 정신 건강을 위한 감정표현과 여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동기유발, 긍정적 정서, 언어교류, 자기정리, 여가 선용 기회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사회·정서적 영역 증진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노년기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 주체가 될수 있기를 바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총 15차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매시간 프로그램마다 참여자들 간의 의견 및 음악적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음악적 견해와 궁금증을 알고 해결해가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와 강사 사이의 활발한 의견교류로 참여자가 원하는 방향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등 참여자 중심이다. 프로그램의 수업 내용과 참여자들이 만든 결과물을 모아 작곡 책자를 제작하였으며, 참여자들이 작사·작곡한 음악을 음원 CD에 담아 책자와 함께 참여자들에게 배부하였다. 작곡을 주제로 수업에 참여하여 참여자가 만들어 보고 싶은 노래의 주제에 대해 강사와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성과는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표현과 창작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내면의 가치다.

사업 설문 조사를 보면 참여자들은 ‘여유시간을 활용한 자기계발(85.7%)’,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함(14.3%)’에 관심이 많았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자

기계발 및 개인역량 향상(71.4%)', '집중적인 지식 제공(28.6%)', '여유 시간 활용이 용이하다(28.6%)'는 조사 결과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만족한 프로그램이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역민,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지역의 문화콘텐츠가 필요하다. 금번 작곡 프로그램을 보면 전혀 참여자가 없을 것 같은 작곡 분야였지만, 지역 특성과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에 음악 동호회가 많다는 분석으로 시도하게 되었다. 2021년에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대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고민을 통해 참여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한다.





2020. 10. 23.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특성화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마을 축제를 열지 못하고 권역 내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는 '홈코노미 문화축제-문화를 싣고 달리는 트럭'으로 진행하였다.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전주시민들과 코로나로 인해 여러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

어왔던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공연무대를 제공하고 전주시민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주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예술적 감각을 교류하며 느끼고 지역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갈증 해소를 위한 행사였다.

‘홈노미 문화축제-문화를 싣고 달리는 트럭’행사는 2020년 10월 23일 (금) 오후 2시부터 서신대우 아파트, 서신동 2차 광진장미 아파트, 효천 우미린 더퍼스트 아파트에서 금관5중주 공연을 펼쳤다.

문화시설의 휴관으로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지역 동호회,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일상에 지쳐있는 전주시민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이 있는 문화예술 향유 제공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거점 문화시설의 활동 역할 방안을 제시한 특성화 사업이었다.





효자문화의전



동호회 소개

1) 건강 분야 동호회

건강요가

활동 시간 : 09:00 ~ 10:45(월, 수요일)

소개 :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하루를 여는 동호회로 50-60대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통요가에 근거하여 아사나와 명상 등을 지도하여 굳어 있는 몸을 깨우고 뭉쳐있는 내 몸을 최대한 풀어주고 열어주는 준비운동으로 서서히 몸을 풀어가며,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는 자세로 머리, 목, 어깨, 팔, 다리, 등, 허리, 엉덩이 등 신체의 모든 관절이 유연해지는 요가 프로그램으로 50-60대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다. 건강요가 동호회에 남자회원이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요가 동작 특성상 가입을 못하는 일이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동호회이다.

생활요가

활동 시간 : 09:00 ~ 10:05(화, 목요일)

소개 :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요가와 명상이 웰빙문화와 함께 새롭게 주목을 받은 요가 프로그램으로 몸매 관리에도 좋지만, 마음의 안정에 중점을 두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요가 프로그램이다.

힐링요가

활동 시간 : 10:15 ~ 11:45(화, 목요일)

소개 : 요가명에서도 힐링 느낌이 드는 동호회이다. 마음을 진정시켜줄 음 악과 함께 릴렉싱한 상태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다소 쉬운 동작들로 구성되어 요가의 기본동작을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파워요가

활동 시간 : 18:30 ~ 19:30(화, 목요일)

소개 : 초보자들이 스트레칭과 강화 동작을 쉽게 따라 하면서 강도를 높여 가며 다양한 동작으로 의식적인 호흡과 다이나믹한 몸의 균형을 잡는 요가 이다. 파워 요가는 근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면서 전통적인 요가의 자세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과 유산소 운동적인 요소도 강하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 자세가 높고 전통적인 요가보다 심혈관계 등 단련에 보다 효과적인 요가 프로그램이다.

하타요가

활동 시간 : 17:15 ~ 18:30(화,목요일)

소개 : 한 동작을 오랫동안 유지하여 몸의 근력과 유연성을 기르는 요가 프로그램이다. 동작을 1분 정도 유지하면 숨을 들이쉬는 게 힘들어지고, 3 분정도에 몸 안에 새로운 기운을 느끼게 되는 요가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인 자세를 탐구하고, 올바른 아사나 하나 하나를 길게 정확하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스타일의 요가이다.

SNP 바른 자세 척추운동

활동 공간 : 퇴움

활동 시간 : 11:00 ~ 12:30(월요일), 14:00 ~ 15:30(목요일)

소개 : 허리디스크와 통증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운동이다. 변형된 척추와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고 굳어진 곳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척추운동으로 건강 예방 및 증진을 위한 동호회 프로그램이다. SNPE 바른 자세 척추운동의 수련과 SNPE 척추 운동 도구의 활용을 생활화하여 비뚤어진 자세를 바로잡고 100세 시대에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운동이다.

신바람 에어댄스

활동 공간 : 퇴움

활동 시간 : 10:00 ~ 12:00(금요일)

소개 : 동호회 명칭처럼 신나는 댄스 프로그램으로 음악에 맞추어 춤을 활용하여 건강을 찾는 동호회 프로그램이다. 이 시간만은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안이 시끌벅적하며 동호회 에어댄스 공간은 야단법석 웃음들이 만개하는 신나는 동호회이다.

효자풍물

활동 공간 : 이음

활동 시간 : 19:15 ~ 21:00(수요일), 19:30 ~ 21:00(목요일)

소개 : 우리 전통음악 사물놀이를 익히며 지역행사나 경로시설에서 봉사하며 사물놀이와 함께 삶의 여유를 찾는 40대-50대의 중·장년층 회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동호회이다. 2017 효자문화의집 기획사업“동네방네 반짝파티”에 기획 동호회 참여오프닝 공연을 열었다.

우림풍

활동 공간 : 틈음

활동 시간 : 10:00 ~ 12:00(토요일)

소개 : 지역문화 활동 및 시민과 함께 하는 풍물·사물로 70대 - 80대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공연 봉사를 나가며 풍물 및 사물 연습을 하고 요양원 방문 위로공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묵향회

활동 공간 : 다움

활동 시간 : 10:00 ~ 12:00(수,금요일)

소개 : 서예와 문인화를 기초부터 배우며, 즐기는 동호회로 2006년부터 활동을 하였으며, 묵향의 정서 속에서 여가 함양과 더불어 다양한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등 점차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동호회이다.

먹그림 사군자, 먹그림 문인화

활동 공간 : 다음

활동 시간 : 19:00 ~ 21:00(목요일 사군자),
10:00 ~ 12:00(화, 목요일 문인화)

소개 : 문인화를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문인화 그리기를 연마함으로써 정서함양은 물론 회원 간의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고 우선 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문인화를 통한 취미 활동 및 여가 선양과 성취감을 증진 시키고자 하는 동호회로 2017 효자문화의집 기획사업“동네방네반짝파티”에 전시를 열며 참여하였다.

대금마을

활동 공간 : 채움, 상상공간

활동 시간 : 19:00 ~ 21:00(화요일, 채움),
18:00 ~ 20:00(화요일, 상상공간)

소개 : 각계각층의 일반인들이 대금을 매개로 모인 동호회로 정기적인 모임과 연습을 통해 기량을 닦고 매년 발표회를 열고 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새만금 상설 공연, 전주한옥마을 한복데이 등 다양한 지역문화 행사에 초청돼 공연을 펼치고 있는 동호회이다.

쭈욱 하모니

활동 공간 : 이음

활동 시간 : 13:30 ~ 15:00(수요일)

소개 :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고 연주자의 기량에 따라 다양한 소리를 내는 하모니카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의 하모니카 동호회로 효자문화의 집생활문화센터 및 지역행사에도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는 동호회이다. 2017년 효자문화의집 기획사업‘동네방네반짝파티’에 기획 동호회로 참여하고 2017년 효자문화의집‘효자마을축제(판!판!판!)’공연에 참가했다. 2018년 효자3동 나눔 봉사 오프닝 공연, 2018년 전주신기독병원과 함께 하는‘황금빛 내 인생’행사에 참여하였으며, 2017년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최의 실버문화페스티벌‘샤이니스타를 찾아라’에 참여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샤이니 재능상(금상)을 수상하였다.

한울림 오카리나 앙상블

활동 공간 : 다움

활동 시간 : 10:00 ~ 12:00(월,수요일)

소개 : 새소리를 닮은 오카리나로 동요에서 가요까지 다양한 음악을 함께 모여 연습하고 연주하고 있으며, 동아리 모임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실력도 일신우일신 향상하고 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연주가 가능한 동호회이다. 2017년 효자문화의집 기획사업‘동네방네반짝파티’, 효자문화의집 효자마을축제(판!판!판!)공연에 참가하였으며, 2018년은 효자문화의집 기획사업‘음악 속의 전람회’참여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동호회이다.

산울림색소폰

활동 공간 : 다음

활동 시간 : 13:00 ~ 15:00(목, 금요일)

소개 : 산울림색소폰은 대중적인 곡들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는 동호회이다. 색소폰을 통해 생활의 활력은 물론 봉사의 기쁨과 건강까지 챙기며 회원들은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며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사회 활동을 보면 2017년 효자문화의집 기획사업‘동네방네반짝파티’, 효자문화의집‘효자마을축제(판!판!판!)’공연에 참가하였으며, 2018년 효자3동 어르신 생일잔치 축하 공연, 효자문화의집 효자마을 축제 공연 참가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2019년 서원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개강식 초청공연과 효자문화의집 효자마을축제 공연에도 참가하였다.

월요기타

활동 공간 : 이음

활동 시간 : 19:00 ~ 21:00(월요일)

소개 : 저녁 시간대의 기타 동호회로 주 회원들이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를 열정적으로 초급부터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동호회이다.

기타라스

활동 공간 : 이음

활동 시간 : 19:00 ~ 21:00(화요일)

소개 : 기타 소리는 행복을 주고,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기타를 좋아하고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직장인들로 구성된 동호회이다.

줄리엣 기타

활동 공간 : 이음

활동 시간 : 13:00 ~ 17:00(화요일)

소개 : 혼자 노는 것 보다 다 같이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뭔가 모르개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여성들이 모여 기타를 치고 노래하며 봉사하는 40대 - 50대 여성들로 구성된 10년 차 클래식 기타 동호회이다.
2017년 효자문화의집 기획사업‘동네방네반짝파티’, 효자문화의집 효자마을축제(판!판!판!)공연 참가와 2018년 효자문화의집 효자마을축제, 효자문화의집 송년파티 공연에 참가하였다.

통기타소리사랑

활동 공간 : 이음

활동 시간 : 14:00 ~ 16:30(수, 목요일)

소개 : 기타 하나로 7080 시간 여행을 하고, 지나간 그 시대의 노래들을 사랑하며 기타와 함께 사람들이 어울리는 동호회로 지역 문화행사에도 많은 참여와 사회공헌 공연 활동도 하는 동호회이다.

2017년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린 예술인문학 토크콘서트 오프닝 공연과 국립무형유산원의 진주평생학습한마당 동호회 공연에 참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효자마을축제에도 참가하였다.

드럼 스쿨

활동 공간 : 이음

활동 시간 : 17:00 ~ 19:15(수요일)

소개 :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동호회 중 가장 야단법석한 동호회이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드럼을 두드리며, 스트레스도 함께 날려버리는 회원들의 활동 모습이 가장 멋있게 보이는 드럼 동호회로 2017 효자문화의집 기획사업‘동네방네반짝파티’에 참여하였다.

하니

활동 공간 : 북카페

활동 시간 : 19:00 ~ 20:30(월요일)

소개 : 작은 악기지만 폭넓은 옥타브를 갖고 있어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 하모니카를 통하여 건강하고, 즐겁고, 신나게 일상의 활력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하모니카 동호회로 2017년 효자문화의집 기획사업‘동네방네반짝파티’, 효자문화의집‘효자마을축제(판!판!판!)’공연참여와 2018년 효자문화의집 효자마을축제 공연, 효자문화의집 송년 파티에서 멋진 연주를 보여주었던 동호회이다.

라보체 여성합창단

활동 공간 : 북카페

활동 시간 : 17:30 ~ 19:00(화요일)

소개 : 라보체 여성합창단은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사업인 2018년 인문학‘오페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여행’강사와 참석자들이 중심이 되어 창단이 된 여성합창단이다. 문화예술 향유자에서 동호회로 변화되어 2018년 효자문화의집 기획사업“음악속의 전람회”와 효자문화의집 기획사업‘오픈콘서트-지역을 열다’ 공연을 함께 하였다.

에델바이스

활동 공간 : 이음

활동 시간 : 14:00 ~ 16:00(월, 금요일)

소개 : 감성을 자극하는 발라드에 목소리를 더해 연주하는 효자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동호회 중 가장 대외 활동이 강한 기타 동호회로 2017년 효자문화의집 기획사업‘동네방네반짝파티’, 효자문화의집 효자마을축제(판!판!판!)공연 참가하였으며, 2018년은 효자문화의집 기획사업‘음악속의 전람회’, 효자문화의집 효자마을축제, 2019년 전주문화의집 전주공예명인과 함께하는 ‘전주수작 효자문화의집’ 동호회 공연 참여, 효자문화의집 기획사업 ‘세 번만 만나 줘요!’공연에도 참여한 동호회이다.

신나는 하모니카

활동 공간 : 채움

활동 시간 : 11:10 ~ 12:30(금요일)

소개 : 하모니카에 관심 있고 하모니카 연주로 즐기는 인생 2막을 여는 지역민들로 구성된 하모니카 동호회로, 문화를 즐기며, 더욱 많은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공연을 진행하여 나눔 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동호회이다.

아이리쉬

활동 공간 : 이음

활동 시간 : 14:00 ~ 15:30(금요일)

소개 :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 ‘My Heart Will Go on’ 도입부의 피리 소리의 주인공이다. 영롱한 음색과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듯한 한숨 섞인 음색이 묘한 조화를 이루는 악기로 이국적인 음색이 나기 때문에 조금만 능숙해지면 다른 악기와 합주할 때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동호회이다.

효문 하모니카

활동 공간 : 채움

활동 시간 : 09:00 ~ 11:00(금요일)

소개 : 70대에서 80대 시니어들로 구성된 동호회로 하모니카 기초반 동호회로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시니어들의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70~80대 시니어들 대부분은 예전에 한 번쯤 하모니카를 붙어본 경험이 있어 오랜만에 다시 접해도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이 점이 있는 동호회이다.

딴따라 카혼

활동 공간 : 이음

활동 시간 : 09:00 ~ 10:30(금요일 카혼)

소개 : 누구나 한 번쯤 연주해보고 싶다고 느끼는 악기에 해당되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로 반복적인 리듬 패턴만으로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무한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악기 동호회이다. 2019년 카혼 취미반에서 딴따라 카혼으로 동호회명을 바꾸어 활동을 하고 있다.

타악기 앙상블

활동 공간 : 이음

활동 시간 : 10:40 ~ 12:00(금요일 카혼)

소개 : 스스로를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악기로 심장 소리를 닮은 자연의 소리로 정신 건강을 도모하고, 굳게 앉거나 서서 바른 자세로 연주하며 손바닥 자극으로 몸이 좋아지는 건강 악기 동호회이다. 2019년 쥘베에서 타악기 앙상블로 동호회명을 바꾸어 활동을 하고 있다.

팝이 있는 생활영어

활동 공간 : 채움

활동 시간 : 10:00 ~ 12:00(수요일)

소개 : 유명팝송을 통해 영어 발음을 익히고 또 노래를 불러보는 연습시간을 가져 즐거움과 영어에 대한 공포감을 줄이고 영어발음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동호회로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기획프로그램인 '음악 좀 알고 가자'에 100% 수강생이기도 한 동호회이다.

첨밀밀

활동 공간 : 채움

활동 시간 : 10:00 ~ 12:00(화요일)

소개 : 중국어의 발음부터 시작하여 기초 실용 회화에 이르기까지 중국어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현실적인 생활 중국어를 알아가는 동호회이다.

화가데이

활동 공간 : 상상공간

활동 시간 : 14:00 ~ 16:00(화요일), 13:00 ~ 15:00(토요일)

소개 :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공간 중 전경이 가장 좋은 방에서 아름다운 작품 활동을 하는 동호회이다. 눈이 오는 날이면 전면 창에 비치는 풍경 자체가 작품 같다.

화가데이는 소소한 생활 속에 새로운 각도의 자연도 만나고 물감을 색색이 풀며 꿈과 힐링, 심신안정, 열정을 더하는 유화 그리기를 하는 동호회이다. 2017년 효자문화의집 기획사업‘동네방네반짝파티’, 2018년 효자문화의집 기획사업‘음악 속의 전람회’ 2019년 효자문화의집 기획사업‘세 번만 만나줘요!’행사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민화사랑

활동 공간 : 다움

활동 시간 : 10:00 ~ 12:00(금요일)

소개 :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우리 일상생활을 담은 동호회이다. 우리의 생활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여 그림 그리는 재미가 더 느껴지는 취미 활동의 동호회이다.

전주스피치

활동 공간 : 채움

활동 시간 : 19:00 ~ 21:00(월요일)

소개 : 다양한 테마를 정하고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발표하는 연습을 하는 동호회이다. 회원들은 무엇보다 생각이 다양한 점과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느끼기도 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공감한다.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들이 매력인 동호회로 매달 마지막 주에는 독서 토론도 진행하고 있다.

경제 공부방

활동 공간 : 채움

활동 시간 : 13:00~ 16:00(첫째, 셋째 주 토요일)

소개 : 변화하는 세상,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 토론하는 동호회로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정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동호회로 회원자격은 개인, 사업자, 회사원, 자기계발을 하고 싶은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동호회이다.



효자문화의전



함께한 사람들 이야기

문화공간 이룸 이사장 이윤정

안녕하세요 대표님. 효자문화의집과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음악 속의 전람회”를 문화공간 이룸에서 진행하셨는데, 전문 연주자가 아닌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공연에 대한 느낀 점을 말해주세요.

문화공간 이룸을 열기 전부터 관장님과 아는 사이였어요. 관장님도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에 살고 있는 전주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를 위해 항상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 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또한 문화공간을 운영하면서 항상 지역민들과 문화로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지요. 관장님과는 공연 소개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어요.“음악 속의 전람회”공연은 문화공간 이룸 개관 후 첫 공연이었어요. 이전까지 저는 전문 연주자이다 보니 생활문화라는 것을 잘 몰랐고, 지역에 많은 예술동호회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전문 연주자의 공연만 봐왔는데, 공연장을 개관하고는 비전공자들, 즉 아마추어 연주자들에게도 열려있는 공연장

을 운영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 첫 사업이“음악 속의 전람회”가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전문 연주자가 아닌 아마추어들의 공연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과 기대가 함께였어요. 아마추어들은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전문 연주자들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무대 하나하나가 소중하잖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문화공간 이룸은 공연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 무대에 올라가는 마음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드문 만큼 소중하고, 연주를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과 열정을 보았을 때는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60대가 넘으신 통기타동호회 회원들이 공연을 할 때에도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답니다.

음악이 이렇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지요. 오카리나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긴장되어 떨면서도 끝까지 무대를 완성하는 모습을 보면서‘이 공간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이구나’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책임감이 드는 동시에 사명감도 들었지요. 이런 분들을 위한 무대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효자문화의집은 민간공연시설과 협력을 하면서 지역민을 위한 생활문화실현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오페라, 패밀리 락(樂) 콘서트 등을 진행하게 된 과정과 진행 과정에서 만족스러웠던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패밀리 락(樂) 콘서트”는 공연장을 짓기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공연이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들이 모두 바쁘고, 대화도 부족하고 핸드폰만 보는 생활이 주가 되잖아요. 특별한 날에도 대부분의 가족들이 겨우 외식을 하는 정도로만 그치지, 함께 모여 무언가를 공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고 있고요. 대화가 줄어들면서 세상은 더 각박해지는데, 이 가족음악회를 통해 대화의 기회를 만들고, 가족의 추억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음악은 하나하나의 음정과 박자가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화음은 곧 화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절실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참가할 가족들을 모집해 첫 회에는 4-5팀이 지원을 했어요. 그분들에게 이 사업의 의도와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추억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주나 무대에 서는 것에 부담을 갖지 말고 참여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에 참여한 가족들이 같이 무대에서 연습하고 수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그러면서도 서로 소원했었던 관계도 이것을 계기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막 생긴 작은 공연장에 참여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참여자들이 공연이 끝난 후 해준 말들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마음이 넉넉하고 뿌듯한 순간이었지요. 이 사업을 통해 가족들과 대화 할 시간도 많아지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바랐던 것을 이루었다는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새로운 모습을 찾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가족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획자인 저의 그저 혼자만의 바람들이었지, 실현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참여한 가족들을 통해 바라던 바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 받았어요. 이 패밀리 락(樂) 콘서트는 공연장이 없어지더라도 끝까지 끌고 가야 할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효자동 동네에서 문화공간‘이름’은 어떤 공간인가요?

문화공간‘이름’을 특정인들을 위한 공간, 아트홀이 아닌 문화공간으로 이름을 지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문 연주자들은 언제든지 어떠한 무대든 빌릴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지역민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요. 공연장을 운영하다 보니 연주자로서의 시각뿐만 아니라 지역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관장님과도 아는 사이다 보니 앞으로의 사업이나 지역, 지역민들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관심 분야가 저와 일치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열정에 부합하여 이 지역에 문화의 꽃을 피워야겠다는 포부가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어떤 지역민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하고 생각하게 되어요.

2019년도에 자선음악회를 하고 난 후에는 사회배려층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모든 지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랑의 묘약”이나 “드림 온 오케스트라” 공연도 진행했던 것이에요. 특히 오페라 “사랑의 묘약”같은 경우는 공연장에 오페라나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것이 구비되어있는 시설이 아니어서 걱정이 많았어요. 또한, 대부분이 비전공자들이어서 이분들이 정말 뮤지컬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을 했지만 이런 것은 항상 기우인 것 같아요. 일을 저지르면 방법을 찾게 되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지점을 향해 달리게 되잖아요.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정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2020년도에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을 했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나와 한마음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모여야 할 수 있는 일이 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그 너머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패밀리 락”과 “사랑의 묘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 마음이 모아 열심히 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무대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지역민들에게 공연의 기회나 무대를 기획해서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라는 것이 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야 누리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님은 생활문화에 관심이 많은지, 전문 공연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문화와 전문 공연에 대한 관심은 반반이에요. 생활문화 쪽으로만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에서 전문 연주자들을 데려올 데려올 수도 없었고, 공연도 많이 할 수 없었어요. 지역민들은 퀄리티 높은 다양한 공연들을 원하지만 소공연장만의 매력도 있어요. 무대 연주자와 객석이 가까워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무대 말이에요. 좀 더 밀착되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연도 필요하죠. 그래서 생활문화는 생활문화대로, 전문 공연은 전문 공연대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지 한 쪽으로만 치우치면 저도 결핍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균형 있게 조절하며 나가야지. 한쪽으로만 진행하는 것은 지역민들도 원하지 않으셔서 공연장을 찾는 지역민들도 예전처럼 이룸에서 여러 공연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신답니다. 지역민들이 공연에 대한 후기 같은 것들을 이야기 해주면 저도 연주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요. 그럼 연주자들도 공연으로 다시 찾아주기도 해요. 그런 지역민들의 후기를 듣고 나면 저도 뿌듯하고 '이룸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이라는 타이틀을 꾸준히 밀고 나가고 싶어요.

민간 공연장을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

니예요. 처음에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초반에는 "여기에 이런 곳이 있었어요?"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고 계신답니다. 생활문화 관련 공연을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전문 공연을 보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마니아층이 생겨난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 공연자와 관객들이 서로 니즈와 윈즈가 적절하게 유지되면서 상호교환이 이루어지는 공연이 성공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퀄리티를 키워가는 것이, 생활문화나 전문 공연이나 모두 필요로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효자문화의집과 협업한 소감과 함께 자유로운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활문화 분야로는 관장님이 전문가이고, 전문적인 연주로는 제가 전문가이시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이끌어왔듯이 효자문화의집과 함께 협업하여 더 많은 생활문화 프로그램이나 문화강의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효자문화의집 요가 동호회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가 동호회는
오래전부터 효자문화의집과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자문화의집에서 어떻게
동호회를 결성하게 되었나요?**

지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요가는 매우 필요한 신체 운동입니다. 특히 다른 운동처럼 다이내믹하지는 않지만, 정신과 신체가 함께 협응하는 운동이라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적화된 운동이지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요가 시간을 처음에는 오전 5시에 새벽 요가부터 시작해서 오전 요가로 진행했어요. 초기에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작을 한 건데 일반 회원들을 받으면서 지금의 요가 동호회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효자문화의집에서 아침 일찍 시작하는
동호회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힘든
점이나 문제점이 있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동호회는 오전에 일찍 시작합니다. 예전에 동호회 시간이 기존 진행하던 시간보다 늦은 시간으로 변경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각자 개인 일정이 있어서 시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요. 그러나 효자문화의집에서 회원들의 특성과 활동 시간을 고려해 기존 시간대로의 운영을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셔서 많은 회원들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효자동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라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회원들이 많아서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중요한데 이런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관장님과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받아 요가를 진행하기에 알맞은 공간을 내주어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자문화의집 요가 동호회는 많은 분들이 꾸준히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요가 동호회는 대부분 높은 연령대의 시니어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60세 이상의 회원들이 대다수예요. 정년퇴임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분들이지요. 건강과 정신수양 그리고 소통을 위해 나오는 회원들이 많답니다. 집에만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와 동호회 활동도 하고, 가끔은 동호회 활동 후 점심도 함께 먹고, 소통의 자리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연을 맺어가며 꾸준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과를 하며 사적인 자리에서 친목을 도모하고 요가교실에서 마주할 때는 온전히 집중하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데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동호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2021년 효자문화의집과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모두가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지만,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뿐 아니라 모두 다시 모여 함께 활동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가는 마음 수양, 정신 수양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이다 보니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에 병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한 분들도 당연히 유지하기 위해 요가를 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코로나 19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가를 진행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이 좋아지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효과를 알기 때문에 회원들도 무척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아가야지요. 예전처럼 효자문화의집 공간에서 회원들과 즐겁게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가데이 동호회 명안나 작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동호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같은 목적인 그림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지역민하고 꾸준히 활동을 하게 되었나요?

힘든 것보다는 매우 즐거운 시간입니다. 같이 그림 그리는 것들이 행복합니다. 우리 동호회가 모일 수 있는 이유는 각자 해보고 싶은 꿈들이 있기에 동호회 활동을 합니다. 우선 장소가 넓어서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이젤 등 각종 화구나 준비물이 많은데 효자문화의 집은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동호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보니 여러 여건들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효자문화의 집은 실내 환경도 좋지만, 분위기가 따뜻하다고 느껴져서 자주 오고 싶어져요.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알찬 동호회 프로그램도 풍성한 것이 많아서 좋습니다.

효자문화의집에서 작품 활동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1년에 1-2회 효자문화의집에서 동호회의 작품전시회 등을 진행했어요. 제 개인전도 효자문화의집 공간에서 진행을 했었답니다. 그림도 그리고 전시 공간까지 두루 마련을 해주시니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지요. 사실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동호회 회원들은 자기계발을 위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활동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게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배려해주는 부분이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효자 시니어클럽과도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만큼 자주 마주치다 보니 친밀감도 생기고, 공감은 물론 서로 나누고 의지하는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작품 활동이 더욱 즐거웠어요.

**효자문화의집에서는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작품들을 전시하고
싶나요?**

회원들과 같이 그린 작품을 전시하고 싶어요. 서로가 그린 그림을 효자문화의 집에 전시 공간에 하고 싶습니다. 각자 작품세계를 공유하고 효자문화의 집에 오는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방문객들에게도 관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전시 기획을 하고 회원들과 함께 그릴 것을 고민하고 협업과 공동 작업으로 한 작품을 전시를 통해서 효자문화의집만의 개성 있는 전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효자문화의집과
함께 진행했던 행사들이 있나요?
좋았던 점이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세요.**

과거 효자문화의집은 야외공연이나 외부행사 위주로 진행이 되어서 사전정보를 알기도 어려웠고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행사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여 방법도 관람 위주의 수동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 많았다면, 현재는 효자문화집 시설 공간에서 직접 참여하여, 예술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다양한 인문학적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동호회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간 배우고 체험한 결과물을 전시하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역시 '시대에 발맞춰 운영을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는 음악, 미술은 물론이고 영화와 문학의 장으로까지 영역이 확장되어서 동호회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효자문화의집은 방문할 때마다 늘 직원들이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웃으면서 반겨주고, 선훈진 관장님도 항상 관심 가져주고 늘 고민하고 더 새롭고 참여자들이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열정이 넘치시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효자문화의 집은 단순한 문화체험의 장이 아니라, 편안한 이웃들이 서로 넘나드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자 3동 오경자 주민

**안녕하세요 오경자 어머님.
효자문화의집과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10년 전인 2010년에 통장 업무를 보면서 그때 효자문화의집을 알았어요. 당시 배너 광고와 전단지 등의 홍보물을 통해 저렴한 수강료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를 즐기면서 소소하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싶어 효자문화의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배움의 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약기 중에는 오카리나를 배웠어요. 오카리나는 가볍게 접근하기 쉽고, 배우는 과정 또한 너무 재미있었어요. 기초를 마치고 중급과정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프로그램이 개편되어 오카리나 강습을 받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만큼 효자문화의집은 제게 있어서 삶의 한쪽을 채워주는 곳이었어요.

**효자문화의집에서 했던 기획 프로그램 중
“이웃 소식 들으셨나요?”에 꾸준히
출석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나만의 시간이 생긴 것 같아 좋았어요. 사연을 쓸 때마다 옛 추억들이 생각이 났어요. 집안일, 회사 일이든 거기에 신경에 쓰이지 오직 나에 대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번 “이웃 소식 들으셨나요?”를 통해서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공감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래도 좋았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코로나 19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만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자문화의집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A. 저도 이번에 ‘텃밭’이웃 소식 들으셨나요? ‘음악 좀 알고 가자’에 모두 참여했는데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효자문화의집은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아요. ‘텃밭’은 처음부터 참여해서 배추를 가꾸면서 수확하고 김장까지 마무리 짓는 과정까지 참여하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함께 한 사람들과 공동체 의식을 돈독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경험한 만큼, 문화의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자문화의집에서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새로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호회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효자문화의 집 프로그램은 늘 신선하고 새로운 다양한 예술과 인문 분야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한 명이라도 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난국이 하루라도 빨리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지역 사람들에게 문화의 꽃을 피우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계속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요.

효자 3동 이정화 주민

안녕하세요 이정화 어머님. 효자문화의집 공간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효자동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저희 아이들이 효자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교육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어서 인연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체를 단련하는 운동 프로그램만 소극적으로 참여하던 중이었는데, 점점 여러 프로그램을 접하다 보니 재미가 붙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성 회원이 되었지요. 초기에는 지금처럼 문화의집과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어요. 통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의집과도 자주 교류하였고, 통장직을 그만둘 무렵 관장님이 바뀌면서 동사무소, 문화의집과 교류가 더 잦아지면서 활동의 영역도 넓혀가게 되었어요. 더구나 선흥진 관장님이 새로 오시게 되면서 효자문화의집이 더욱 활기가 넘쳤어요. 그간 없었던 문학 프로그램도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고 야외에서 행사는 다양한 체험들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마을 공동체 활동들도 하면서 마치 저도 효자문화의집의 한식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효자문화의집을 자주 찾는 이유가 있을까요?

통장의 업무 기간이 끝난 후에는 지역사회 협의체도 하고, 마을 공동체도 함께 참여하다 보니 효자문화의집을 더 자주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찾는 만큼 편해지기도 했고요. 통장 업무가 이제 끝나서 주민센터에 갈 일이 없었는데, 예전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효자문화의집의 다양하고 유익한 사업들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마을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효자동 사람들”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마을 공동체 ‘효자동 사람들’을 했을 때는 동네 텃밭에서 배추를 직접 재배하면서 지나가는 동네 주민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들이 생각나고 직접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꾸면서 배추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좋았어요. 채소를 기른 다기보다 화초를 가꾸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손으로 심고 키워서 김장까지 하는 과정들이 즐거웠습니다. 물론 벌레를 직접 잡을 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다 같이 웃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하네요.

문화의집과 문화를 엮어서 꽃밭 조성을 통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림대회 등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요?

남부시장 쪽 천변에 유채꽃을 심었던 기억이 있어요. 꽃을 심었더니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찾고 그야말로 전주시민들의 포토존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이 꽃길을 걸으면서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꽃밭과 꽃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사진도 찍고, 볼거리와 쉼터가 되는 공간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현재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성원맨션과 미송아파트 사이 부지에 아이들을 위한 꽃밭 공간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부지 앞에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주차하면서 담배도 피

우고 하니 담배꽂초나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쓰레기통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지만, 쓰레기통을 만들면 또 버리는 쓰레기가 넘쳐나서 주변 환경이 오히려 안 좋아질까 봐 염려스럽기도 하니, 좋은 방안을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효자문화의집에서 진행했던 기획 프로그램 중“음악 좀 알고 가자”가 많은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해설과 영상을 곁들이며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바쁜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동안은 여유를 느끼지 못했는데, 효자문화의집에서 진행한“음악 좀 알고 가자”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음악감상과 여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악보를 보면서 이런저런 음악 지식들을 듣는데, 학교 다닐 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마음 한구석에 무엇인가 뿌듯하게 차오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게 바로 삶의 여유라는 것인가보다 생각이 들었죠. 사실 아주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왜 그동안 실행에 옮길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보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효자문화의집에서 체험한 음악 프로그램 덕에 새삼스럽게 저 자신의 내면에 대

해 생각해 보았어요. 추억도 떠오르고, 그동안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자신을 황폐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면서 비로소 내 삶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여유를 가지고 멀리서 바라보니 오히려 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부드러운 생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뻗뻗하면 부러지잖아요. 음악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소중한 생각을 일깨우게 한 것은, 효자문화의집 프로그램에 참여한 덕이지요.

효자동이 요즘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지역 주민으로서 어떠신가요?

효자동 주민으로서 조금씩 바뀌어 가는 마을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즐거워요. 문화의 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하니 참 좋은 것 같아요. 효자문화의 집을 아직도 모르는 이웃들과 만나는 지인들에게도 효자문화의집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소개도 해주곤 한답니다. 예전에는 문화의집이 있다는 말만 들었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는 자세히 몰랐는데, 현재는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현재 효자문화의집은 친근한 웃음으로 회원들을 맞아 주시고 정이 많으셔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부감이 없으세요. 그래서 더욱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막연히 문

화의집이라고 생각하면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동네 사랑방이면서 사람의 이야기와 더불어 문화가 샘솟는 인문학 공간이 되고 있어요. 효자문화의집이 더욱 많이 알려져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복은 함께 누려야 더 커지는 거잖아요.

지역활동가 양경란

**안녕하세요 대표님. 효자문화의집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제가 효자문화의집을 알게 된 것은 아무래도 효자동 주민이고, 이곳저곳에서 활동가로 강의를 하다 보니 효자문화의집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강사들이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현재 관장님은 효자문화의집에 관장으로 오시기 전부터 다른 자리에서 알게 있었는데, 마침 이곳에서 수탁을 하게 되어서 활동가와 문화의집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서로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생각도 나누고 효자문화의집에 대한 관심이 더 생겼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배울만한 것이나 출강할 일이 없어서 큰 접점이 없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을 하게 되면서 지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관장님의 문화에 대한 방향이 제가 생각한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효자문화의집에서 활동한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관장님과의 소중한 인연과 함께 참여하는 지역 사람들과도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문화살롱을 운영하고 있는데
효자문화의집과 함께 진행을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현재 문화살롱에서 공유 공간을 제 공방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확보가 쉽지 않아서 부담감들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간을 내려면 사업자를 내야 하는 어려움과 공간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커서 힘들어하는 작가들이 많아요. 문화살롱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지나다니다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공방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아닌,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 궁금해서 그냥 오시는 분들이지요. 효자문화의집도 동호회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오는 것만이 아닌 공유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살롱의 공유공간처럼 효자문화의집도 공유 공간이라는 개념을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에요. 현재 문화의집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잖아요. 연령대의 폭을 확장하여 3-40대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그 연령대의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야 하고 또 관심사도 그 세대에 맞는지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고민해야겠지요. 지역민들이“어떤 것을 하고 싶은데 무엇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공간을 내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내준다고 믿고 있어요. 최선과 차선을 동일 선상에서 두고 이 문제에 대하여 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도 싶습니다.

효자문화의집에서 진행했던“백수가 백수를 이야기하다-문화인력 이야기”강의에 참여한 소감을 말해주세요.

이번 연도에 효자문화의집에서 진행했던 사업 중“백수가 백수를 이야기하다-문화인력 이야기”에서 기획서 작성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전문 기획자들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동네에서 해보고 싶다 하는 기획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뽑힐 확률도 더 많고요. 나중에 보면 정보를 몰라서 그랬다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견 관심

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기획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고 하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서 한 일이에요.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모여서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매개체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랜선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전주시에서도 비대면 시대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간접적으로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활동가는 물론이고 전주시의 담당자들이 고민해보고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몰라 어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라도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참여자가 많지 않더라도 서로 알아가면서 영역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가능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니까요. 비대면의 시기가 계속될수록 서로 간의 끈끈한 연대가 가장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지역활동가로서 효자문화의집과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할지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역활동가로서 젊은 층들도 활동할 수 있는 생활문화 프로그램들을 함께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마을 공동체도 현재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셔서 여가 시간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사람들을 모으려니 인프라가 모이지 않잖아요. 이번에 진행했던 김장 나눔의 날도 진행 중에는 모두 모여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매개가 사라지고 끝나고 나니 다시 모이기가 힘들어졌어요. 온두레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없어요. 문화의집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하려는 분들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데 아쉬움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3-40대도 본인들의 소그룹들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의집에서 문화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배워서 나중을 위해 준비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적지만 참여 연령층을 확장해서 기획하고 고민하다 보면, 앞으로는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활동가로서
효자문화의집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저는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하니 여러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아이 엄마들은 만나 어떠한 사업이 있고, 지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면 재미있겠다, 해보자'해도 막상 행정적인 공모절차나 서류를 작성할 일이 생기면 다들 못 한다고 말씀들을 하지요. '우리 같이 서류를 써 볼까?'라고 해도 '나는 서류 쓸 줄 몰라서 못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많은 것을 노력하고 준비해도 나이를 먹을수록 제가 일하는 분야의 주 활동을 할 매개체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남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문화의집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 방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관장님의 운영방침이 활동가들이나 지역민들의 귀가 되고 입이 되어주는 일을 잘 해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효자문화의집과 앞으로 많은 일들을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암 노인 복지관 **서양열** 관장(효자문화의집 초대 관장)

효자문화의집 초대 관장으로 지내셨는데, 당시 지역에서 문화의집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선함과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 있는 문화공간 자체가 거의 없던 시절이라서 그런지 공간을 찾아온 많은 시민들에게 신선한 공간으로 기억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주‘신박한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취임 당시에는 문화의집이라는 곳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매우 미약한 상황이었고, 방향성 자체가 부족하던 시절이라서 주민들에게 주는 신선함과 관심은 상당했던 거 같습니다. 주민과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치열한 경쟁률을 자랑할 정도로 참여자들이 많았지요. 당시로써는 매우 획기적인 문화공간이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효자문화의집의 운영 방향성과 지향점은 무엇이었나요?

문화 소외계층에 주목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문화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문화에 대한 권리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만들고자 했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당시 문화와 사회의 트렌드를 숙고하여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향하고자 했지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문화 활동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 나서기 위한 지향점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거 같습니다.

효자문화의집은‘가족생활문화센터’로서의 기능과 가족문화를 지향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가족이 모두 함께하길 원했고, 가족이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는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가길 희망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면서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

인 사람살이의 터전이지요.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집 밖으로 나와 또 하나의 새로운 체험을 하고 결속력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를 문화의집이 해결해보자고 기획을 했지요. 이전까지는 가족이 함께 문화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매우 부족했고, 가족이 무엇인가를 함께 한다는 자체는 사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생활문화쉼터'를 표방했고, 그 이름으로 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설립 당시 현재와는 공간의 구조가 다른데
효자문화의집 공간에서 지역민들과 어떤
활동을 진행하셨나요?**

아침 8시 30분부터 문을 열어서 밤 10시까지 운영했습니다. 야간 늦게까지 운영하다 보니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 전개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당나귀(당신과 나는 귀한 사람)음악회와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3세대 문화축제 등을 아주 신명나게 진행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진행되는 프

로그램은 직원들의 헌신성,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가 만들어진 결실이었고, 기억하기에는 수십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주민들을 만나도록 운영했던 거 같습니다. 또한, 당나귀(당신과 나는 귀한 사람)음악회는 지역 주민들이 문화 활동을 누리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고, 문화학습동아리 회원과 문화 활동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멋진 활동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당나귀 음악회는 금암노인복지관 이정선 부장(전), 효자시니어클럽 박효순 실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3세대 문화축제 사업이 기억납니다. 3세대 문화축제는 다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된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지역 주민들의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했고, 축제를 통해서 3세대가 함께 협력하고, 회혼례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해 준 효자문화집의 소중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운영 기간 중 사회 배려층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당나귀 공연과 그 외 사회 배려층을 위한 활동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를 누리지 못한 분들에게 주목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하지만, 그 시절에는 문화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다양한 문화 활동 체험의 기회를 다차원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 재활원이나 아동 시설 등에 찾아가서 공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 현장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기억은 매우 의미 있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효자문화의집 초대 관장님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처음 문화의집을 갔을 때, 모두가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젊은 관장과 직원들의 도전은 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에서 보기에는 매우 어색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사무소와 주민들과 하나가 되어가고, 하나 된 마음으로 사업을 디자인하고, 그 사업을 수행했던 소중한 기억은 관장으로 잇을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끔 오후 5시경 동장님께서 사

주시던 맥주 한 잔, 젊은 청년일꾼들을 격려해주던 동사무소 식구들, 아들처럼 안아주고 격려해주시고 안아주시던 부녀회장님, 주민자생조직과 함께한 나들이,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한 지역행사, 주민문화 동아리와 지역사회 다양한 현장을 방문한 시간 등등...그 시간을 통해서 다양하고 각계각층에서 지역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났고, 주민들과 교류하는 방식을 배웠고, 주민조직의 중요성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관장으로서서는 주민과 교류하는 방식을 배운 것이 가장 소중한 기억인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양열 관장님이 바라보는 효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일상적 삶의 거점이 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지역의 거점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곳이지요. 이러한 관점은 바로 효자생활문화센터의 소중한 가치이며, 결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민들의 문화거점공간으로 소중한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들의 삶의 문화 활동과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드림 온 오케스트라 대표 오혜숙

안녕하세요 대표님. 드림 온 오케스트라의 첫 시작을 효자문화의집과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효자문화의집과 함께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효자문화의집의 하모니카와 기타 동호회와 우진문화회관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에 위더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관장님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위더스 대표와 인권연대 대표, 관장님과 함께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답니다. 장애라는 것이 실제로 보지 않으면 피하게 되고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관장님은 장애우에 대한 이해도 높고, 아이들의 말 한마디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장애우에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첫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장님께 연락을 받고 당시 제 아들 지원이가 다니던 기전대학교 앙상블과 함께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공연 참여가 결정된 후, 열심히 연습해서 만족스러운 공연을 할 수 있었어요. 공연에서는 3곡을 연주했는데, 여인의 향기, 쇼스타코비치의 곡, 마법의 성 이렇게 세 곡을 연주했

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우 음악인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연락해서 지금의 드림 온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되었어요.

효자문화의집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일을 하는데 찾아오는 지역민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효자문화의집과 함께한 지는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년간 효자문화의집에 있으면서 느낀 건, 이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본인이 즐거워서 방문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연도에 진행한 문화의집 프로그램 중 '음악 좀 알고 가자' 프로그램도 클래식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호회도 요가나 하모니카, 기타, 생활영어 등 관심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을 보면 다들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드림 온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혼자 음악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부모가 함께 레슨도 받고, 같이 연습도 할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

인데, 드림 온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로 아
이가 원하고, 부모가 원하고, 하고 싶은 마
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계속 성장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비롯해 아침 9시에 시작하는 하
모니카 동호회 회원분과도 날마다 함께 이
야기를 하곤 해요. 정치, 건강 이야기 등 여
러 분야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일상이야기도
하고 자식 이야기들도 한답니다. 이야기하
면서 효자문화의집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 소개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분들도 아침
에 효자문화의집에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저도 그분들께 커피도 드
리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참 좋아요. 일
단 효자문화의집에 오면 일상이 즐거워지니
까 일자리 사업을 위한 일이 아니어도 사업
을 진행하는 과정이 즐거우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인연들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자문화의집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장애에는 신체장애와 발달장애가 있는데 드
림 온 오케스트라의 장애우 단원들은 모두
발달장애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발달장애인
들은 언제 어떻게 돌발행동을 할지 알 수 없
는데, 강사 선생님은 모두 잘 이해해 주세
요. 아이들이 계속 같은 말을 해도 말 하나

하나 지나치지 않고 다 대답 해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사회의 계
층들을 모두 품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나
은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과 만나야 하는
지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문화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문화를 향유하는 층도 중요하
지만 기획하고 이끌어 가는 리더의 마인드
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앞
으로도 효자문화의집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드림 온 오케스트라와도 함
께 계속 나아가고 싶어요.

다채로운 정원이야기 **이현우** 강사



‘나는 이런 사람이다.’ 또는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을 소개해주세요.

지난 2019년 늦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전주 시 효자문화의집과 소중한 인연이 닿아 『다채로운 정원이야기, 읽다 거닐다 느끼다』라는 기획프로젝트로 31강 수업을 진행하였던 강사 ‘이현우’라고 합니다. 자기소개라는 타이틀 아래 무엇을 쓸까 하니,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 아닌 고민이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저에게 ‘다채로운 정원이야기’는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주신 기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효자문화의집에서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지원사업>을 기획해주신 문화예술교육사 함초롱 선생님과

인연이 낳아준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구나 정원을 꿈꾸며, 나무나 꽃이 있는 환경을 염원하지만, 여의치 않은 환경에서 저마다 정원이 있는 삶을 그리며 그만큼 목말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생활 주변 어디에든 우리와 가까이 정원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일례로, 제가 사는 18층 아파트에는 작지만 안락한 베란다 공간에 작은 화분들을 이용하여 저만의 소담한 정원 공간을 갖고 지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마음을 확장해서 바라본다면, 아침에 눈 뜨고 바라본 창밖에 펼쳐진 풍경 속 전주천의 모습 또한 나의 정원이 될 수 있으며, 멀리 보이는 먼 산도 내게는 나만의

정원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늘 행복한‘정원 인문학자’로 불리고 싶은 한 사람의 조정가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정원문화산업팀의 지원사업인 <2020 전주시 초록정원사 기본교육과정>교육 운영 총괄책임을 맡아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무척 바쁜 일정이지만, 반면 무언가를 배우고 또다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정원 이야기]를 진행하게 된 과정을 부탁드립니다.

당시 사람의 감정을 담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정원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원(庭園)이란 그저 식물을 기르고 가꾸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으로만 정원이란 단어를 치부하는 일반인들의 상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라는 한계가 더 그랬습니다. 이런 저만의 꿈같은 이야기를 다분히 흘려듣지 않고, 진지한 태도로 함께해준 함초롱 선생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어쩌면 세계는 행운이기까지 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안 된다고 할 때, 어디 한 번 해볼까? 라는 도전정신을 알게 해준 그녀(함초롱 선생님)의 모험심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채로운 정원이야기] 교육에 대해 알려주세요!

<다채로운 정원이야기>는 우리나라 도처에 산재한 전통조경 공간을 마치 직접 답사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시각적 자료 및 문헌 고찰을 통해 각각의 공간마다의 장소성(場所性)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끌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공간에 대한 개별적인 의미 및 특별한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였던‘정원 인문학’강좌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달 1~2회 현장답사를 통해, 이론으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다채로운 정원이야기는 아름다운 전통정원 공간과 관련된 풍부한 이야기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각 공간에 배태(胚胎)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함으로써, 따분하다 치부될 수도 있을 우리 고유의 전통조경 및 정원에 대한 관심 고조에 일조할 수만 있다면 그 교육목적은 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가끔 그때 수업을 들으셨던 학생들에게 안부 전화나 카톡 메시지가 이따금 오곤 합니다.그 오래전 수업을 잊지 않고 기억해준다는 이유만으로도 저는 무척 행복

한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는 나아가 효자문화의집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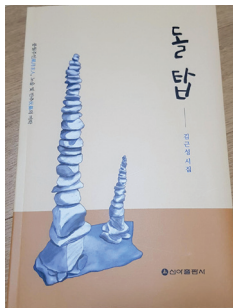
[다채로운 정원이야기]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말해주세요.

효자문화의집에 간혹 오셔서 다양한 강좌를 들으시던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당시 선홍진 관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강좌가 끝나고 수료하신 분들이 주축이 되어 효자문화의집 가족들과 함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으시다는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강좌가 개설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강좌의 만족도가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어서 저 또한 당시 무척 고무되었고, 지금까지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그 당시 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대접해주셨던 저녁 식사는 참으로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훈훈한 정이 참으로 맛있었습니다.

[다채로운 정원이야기]를 진행하시면서 강사로서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저 정원(庭園)이라는 단순한 말에서 전혀 감흥을 얻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수업이 진행되고 시일이 지나면서 멀리서도 기어이 찾아와주셔서 강좌 참여에 열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멀리서도 결석을 하지 않으시려고 힘들게 찾아오시던 분들이 있어 너무도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분 중 어떤 어르신(김근성 선생님)은 그 당시의 수업을 들던 장면 하나하나를 회상하며 쓰신 글로 귀한 시집(신아출판사, 『돌탑』중 '정원이야기 공부하다' 등)을 발간하셨다고, 그 기념으로 제게도 시집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강사로서 이보다 더 뿌듯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보통 강사들은 프로그램이 끝나면 함께 참여했던 분들과 지속적으로 후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책 선물까지 받으니 강사로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제가 선



제2부 | 거미

- 42 첫 수업
- 44 분수 잊고
- 46 정원이야기 공부하다
- 48 당신은 행복한 사람
- 50 가벼움
- 51 암살
- 52 흰벽당에서
- 53 식영정에서

정원이야기 공부하다

희수인이 줄집 속에
"임다. 거뒀다. 드끼다"
정원 인문학 수강
맨 뒷자리에서 눈 뜨면 귀 쫑긋

옆자리 밝은 지인님
"함자대로 뿌리를 이루셨네"
희수에게 임지 치, 치하 말씀
강사 들에 축복을 담아 드림게요.

무엇 하려고
열심히였소
누가 묻는다면
"배움의 열정 노후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라고 합니다.

물로 받은 그 해당 시집을 이어지는 부분에 공유해 드립니다.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강좌가 끝나고 2020년에도 <다채로운 정원 이야기 2>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앵콜 강의를 원하시던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올 초 코로나 19가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고 가면서 전국적으로 모든 공공시설이 폐쇄되었고, 그 여파는 효자문화의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채로운 정원 이야기> 시리즈는 더이상 이어질 수 없었고, 그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후에라도 다시 또 강좌가 개설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예전처럼 즐겁게 강의를 이어보고 싶습니다. 언제라도 기꺼이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정원이야기]를 참여하였던 수강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선현들의 말씀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던가요. 소중한 인연들이 모여 총 31강의 수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마치 어린아이가 유치원 선생님을 바라보듯,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부족한 강사의 한 마디 한 마디를 경청해주심에 마냥 힘이 나서 즐

겁게 또 기쁘게 강의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2019 다채로운 정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곳에 계셨기에 존 재할 수 있었던 추억입니다. 이제 어디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든 건강들 하십시오.

조경학 박사가 추천하는 한국의 비밀 정원은 어디이며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담양 소쇄원(瀟灑園) 원림(園林)

소쇄원(瀟灑園)은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지곡리 12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 원림입니다. 한국 민간원림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어 명승 제40호로 지정된 곳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외와 순응, 도가적 삶을 산 조선 시대 선비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서 경관의 아름다움이 가장 탁월하게 드러난 문화유산의 보배이지요. 내원(內園)의 면적은 1,400여 평의 공간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조성된 건축, 조경물은 상징적 체계에서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절묘하게 이뤄내며, 곳곳에 조선 시대 선비들의 심상이 오롯이 묻어나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외원(外園)까지 포함하면 수 만 평에 이르며,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대봉대와 광풍각 그리고 제월당이 있으며, 긴 담장이 동쪽에 걸쳐 있고, 북쪽의



산 사면에서 흘러내린 물이 계곡을 이루고 흘러 내려와 담장 밑을 통과하여 소쇄원의 중심을 관통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소쇄원’의 주요한 조경 수목은 대나무와 매화, 소나무, 난, 동백, 오동, 배롱, 산사나무, 측백, 치자, 살구, 산수유, 황매화 등이 있으며, 초본류는 석창포와 창포, 맥문동, 꽃무릇, 국화 등이 있습니다. 점경물(點景物)로는 너럭바위, 흘러내리는 폭포, 절상모양의 탑암(榻岩)과 책상바위 상암(床岩), 흙을 판 고목(劄木)으로 물을 이어가는 두 개의 연못, 상하지(上下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는 애양단(愛陽壇), 계곡을 건너지르는 외나무다리 약작(略約), 경사지에 적절히 단을 쌓아 꽃과 나무를 심고 담장으로 내부공간을 아우르고 감싸는 조화로운 곳이지요. 이러한 공간의 조성은 조선 중종 때의 선비로 조광조의 제자인 소쇄공(瀟灑公) 양산보(梁山甫)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정확한 조영 시기는 1530년대에 시작하여 그의 자식과 손자

대에 이르러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승이 기묘사화(1519년)로 사사(賜死)되자 현세적인 꿈을 접고 은둔하여 처사(處士)로서의 삶을 산 것인데요. 이후 정유재란으로 건물이 불에 타기도 했지만, 후손들에 의하여 다시 복원, 중수되어 현재까지 15대에 걸쳐 후손들이 잘 가꾸어 나가고 있는 조선 최고의 민간정원이라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한국적인 비밀의 정원이 또 있을까 싶어, 첫 번째로 추천하는 우리 고유의 정원입니다. 사시 사철 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은 고즈넉한 시간을 담아 오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요.

2) 창덕궁(昌德宮) 후원(後苑)

사적 제122호인 창덕궁(昌德宮)은 1405년 경복궁(景福宮) 다음으로 지어진 별궁(別宮)입니다. 정궁(正宮)인 경복궁의 동쪽에 있다 해서 '동궐(東闕)'이라고도 하지요. 금천교가 세워지고(1411) 돈화문이 건립되는가 하면(1412) 조선 제9대 성종 때부터는

여러 임금들이 여기서 지내 본궁 역할을 하는 궁궐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창덕궁은 불에 타 소실되었으니, 이는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자, 이에 화가 난 백성들이 궁궐을 방화한 것입니다.

1611년 광해군에 의해 재건된 궁은 자연과 인공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인정전, 대조전, 선정전, 낙선재 등 많은 문화재가 곳곳에 있어 눈길을 끄니다. 창덕궁은 1997년 12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유네스코(UNESCO) 세계 유산위원회에서 수원 화성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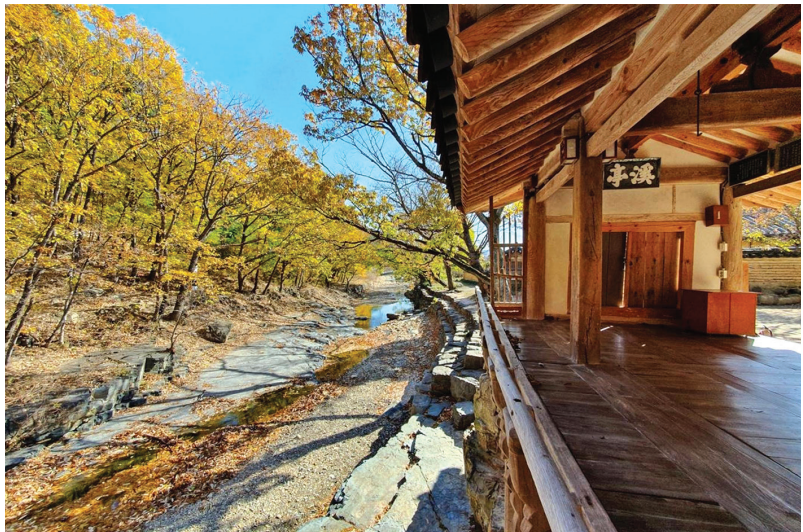
창덕궁 후원은 태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임금을 비롯한 왕족들이 휴식하던 곳입니다. 창덕궁 후원(後苑)은 북원(北苑), 금원(禁苑)이라고도 불렸으며, 고종 이후 비원(秘苑)으로도 불렸습니다. 낮은 야산과 골짜기에 원래 자연 그대로 모습을 간직한 채 꼭 필요한 곳에만 사람의 손을 댄 우리나라의 으뜸가는 정원이니 제가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용정(芙蓉亭)과 부용지(婦容池), 주합루(宙合樓)와 어수문(魚水門), 영화당(映花堂), 불로문(不老門), 애련정(愛蓮亭), 연경당(演慶堂) 등을 비롯한 수많은 정자와 샘들이 곳곳에 있고, 특히 가을날 단풍들 때와 낙엽 질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창덕궁 후원은 느긋하고 여유 있는 공간이며 스스로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 수양처(修養處)이고 학업의 수련장이기도 하니, 우리나라 조원문화(造苑文化)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궁궐정원이라는 점에서 정원사(庭園史)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니, 언제고 시간을 내어 꼭 한 번은 다녀오시기를 권합니다.

3) 경주 독락당(獨樂堂) 계정(溪亭)

독락당(獨樂堂) 계정(溪亭)은 조선 중종 때의 문신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이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하여 은거하던 독락당(獨樂堂) 보물 제 413호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의 부속 건물입니다. 독락당을 건립한 이듬해인 1533년에 완공되었으며, 일명 양진암





(養眞庵)이라고도 하지요. 내부에는 석봉(石峯) 한호(韓濩)가 쓴 '계정(溪亭)'이라는 현판과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쓴 편액들이 걸려 있어 눈길을 끄니다.

회재는 독락당과 계정 주변에 있던 자연에 사산오대(四山五臺)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사산오대를 자신의 정원으로 삼았습니다.

사산(四山)이란 독락당 주위의 네 개의 산으로, 화개산(華蓋山), 자옥산, 무학산(舞鶴山), 도덕산(道德山)을 일컫습니다. 동쪽에 있는 화개산은 원래 어래산 혹은 어린산이었고, 서쪽에 있는 자옥산은 예부터 자옥산으로 불리었으며, 남쪽에 있는 무학산은 원래 무릉산이었고, 북쪽에 있는 도덕산

은 원래 득덕산이었답니다. 오대(五臺)란 계정이 서 있는 자계천 주변의 바위에 이름을 붙인 것으로 세심대(洗心臺), 관어대(觀魚臺), 탁영대(濯纓臺), 영귀대(詠歸臺), 정심대(澄心臺)를 가리킵니다. 독락당 계정을 떠받친 반석이 '물고기가 노니는 것을 바라보는 곳'이라는 뜻의 관어대(觀魚臺)고, 계정 맞은편에 병풍처럼 두른 바위가 영귀대(靈龜臺)이며, 계정 북쪽에 작은 폭포를 이루어 '갓끈을 씻는 곳'이라는 뜻의 탁영대이고, 탁영대 북쪽 일대를 정심대라 하고, 옥산서원 밖 너럭바위를 세심대(洗心臺)라 지칭합니다. 세심대(洗心臺)란, 말 그대로 '마음속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내고 심신을 수양한다'는 의미죠. 정원의 작정자(作庭者)인 이언적은 독락당의 주변의 자연인 산오대를 정원으로 삼아 조석으로 산책하거나 자신의 심신을 수양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독락당과 계정에는 최소한의 꽃밭을 가꾸고 자연을 정원으로 삼았으니, 지금도 이언적이 심었다는 산수유와 향나무, 주엽나무가 존재합니다. 계정은 주변의 물, 바위, 나무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자연과 하나가 되는 우리의 전통 건축 및 자연과 벗하여 하나가 된 전통정원의 멋을 잘 보여주니, 이 또한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혹여 경주에 가시거든, 이 멋진 풍광도 꼭 눈에 담아 오시기를 권해봅니다.

[이현우]에게 [다채로운 정원이야기]를 한 단어 또는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1권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원문은 조선 정조代 문장가 유한준(兪漢雋, 1732~1811)의 석농화원발(石農畵苑跋)에서 “알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보게 된다(知則爲眞愛 愛則爲眞看 看則畜之 而非徒畜也, 지즉위진애 애즉위진간 간즉축지 이비도축야)이죠.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되게 보게 되며 볼 줄 알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그저 쌓아두는 것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의 묘는 사랑하는 것, 보는 것, 모으는 것, 이 세 가지의 껍데기에 있지 않고, 잘 아는 데 있다(故妙不在三者之皮粕而在乎知)”는 말 뒤에 이어집니다. 여기서 짐짓 유한준이 강조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는 것이었으니, 정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로 제 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 두서없는 글 읽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사 함초롱

나는 이런 사람이다. 또는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립니다. 2019년 6월, 여름이라지만 바깥 활동하기 좋은 때에 전주 효자동에 위치한 효자문화의집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을 진행할 문화예술사로서 효자문화의집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민화, 도예, 캘리그래피, 비누공예 등을 강의하는 지인들이 있어 생활문화에 거리감이 느껴지지는 않아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에 난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프로그램 제공자 입장에서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세세한 부분까지도 기획하면서 점검해야 하는 등 고려할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앞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척 설레었습니다.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효자문화의집에서 문화예술교육사로서 경험한 시간이 앞으로 제가 지향하는 문화프로그램의 초석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사님은 효자문화의집에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나요?

효자문화의집에서 채용공고가 공지될 때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일과 다르기에 이직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에 효자문화의집 홈페이지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곱씹으며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오던 때였죠. 효자문화의집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부딪치면서 내공을 다지는 것을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서류와 면접을 거쳐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기획·운영 담당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사님이 생각하는 효자문화의집은 어떤 공간인가요?

효자문화의집은 사람·공간·어울림이라 생각합니다. 나(누구나)를 시작으로 내 친구, 내 이웃이 모이게 되고 효자문화의집

이 공유의 장소가 되고 그곳에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하는 생활문화의 사교장(社交場)이라 생각합니다. 사교장에서 지금은 약해진 사회성을 다시금 느끼고 주민 한명 한명이 주인이 되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문화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이 가진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 우리 동네를 만들어가는 출발점 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다채로운 정원이야기'읽다 거닐다 느끼다']는 교육사님의 기획으로 프로그램이 탄생하였는데 기획하게 된 계기와 그 과정이 궁금해요.

4-1. 정원

효자문화의집에서 근무하며 첫 번째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2019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2주. 이 시간 안에 기획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제출해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볼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집(공간)', '가족', '초록', '가정의 인테리어', '가정집 정원', '나만의 공간을 꾸미다', '집'이라는 나의 공간에 어울리는 녹색식물, '정원에 어울리는 흙으로 만드는 나의 화분'

등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정리하였으나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함만 계속되어 사업을 (흔히 말하는) 옆게 되었습니다. '정원'을 콘텐츠로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기에 '정원'에 대해 검색과 조사를 하였습니다. '정원 프로그램의 교육처', '수도권에서는 정원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활발하다는 것', '잇따른 환경문제로 정원이 꾸기와 나무심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하다 보니 나의 지역 전주에서도 '천만그루 나무심기', '생태도시'라는 캐치프라이즈가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4-2. 정원, 전주

이제 나의 지역 전주를 프로그램의 중심에 두고 전주에서의 정원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를 보았으나 그중 전주 시내권이지만 발길이 뜸한 '진북동 어은골, 중노송동, 다가동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전통 숲 복원사업 추진계획'이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오고 갔던 동네의 전통 숲 복원이라는 기사는 '우리 동네를 탐방하며 늘 지나던 곳의 나무나 식물들을 알아가는 기회를 프로그램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의 틀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4-3. 정원, 전주, 이현우 강사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강사였습니다. 정원이라는 콘텐츠를 다룰 때 마음에 두던 강사님이 계셨습니다. 정원 인문 학박사이신 이현우 강사님과는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으로 성실한 성격과 정원에 대한 식견을 갖춘 분이었기에, 믿고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정원 탐방’은 가정에서 심는 식수가 한정적이기에 수업목적으로는 내용이 빈약해질 우려가 있으니 정원에 관한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동·서양 정원의 역사를 알아가며 다양한 지식전달을 제안하셨습니다.

4-4. 정원, 전주,

이현우, 선흥진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의 기획서를 작성하기 전 관장님께 회의를 요청하여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키워드와 진행하고자 하는 ‘정원’ 콘텐츠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주시에서 추진 예정인 ‘천만 그루 나무심기’, ‘진북동 어은골, 중노송동, 다가동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전통숲 복원 사업 추진계획’ 등의 정원에 대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취지에 적합하면서도 주민들에게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프로그램의 배경을 전했습니다. 집 테두리의 공간 안에 한 가족의 희로애락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고 그곳에는 집만이 아니라 꽃과 나무로 단장한 정원과 담장 밖의 풍경도 한 가족이라는 스토리를 담습니다. 그렇기에 집보다는 우리(가족)를 담고 있는 다른 공간(정원)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정원을 알기 전에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에 동·서양 정원의 역사를 바탕으로 흥미를 이끄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렸고 관장님으로부터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4-5. 「다채로운 정원이야기 ‘읽다 거닐다 느끼다」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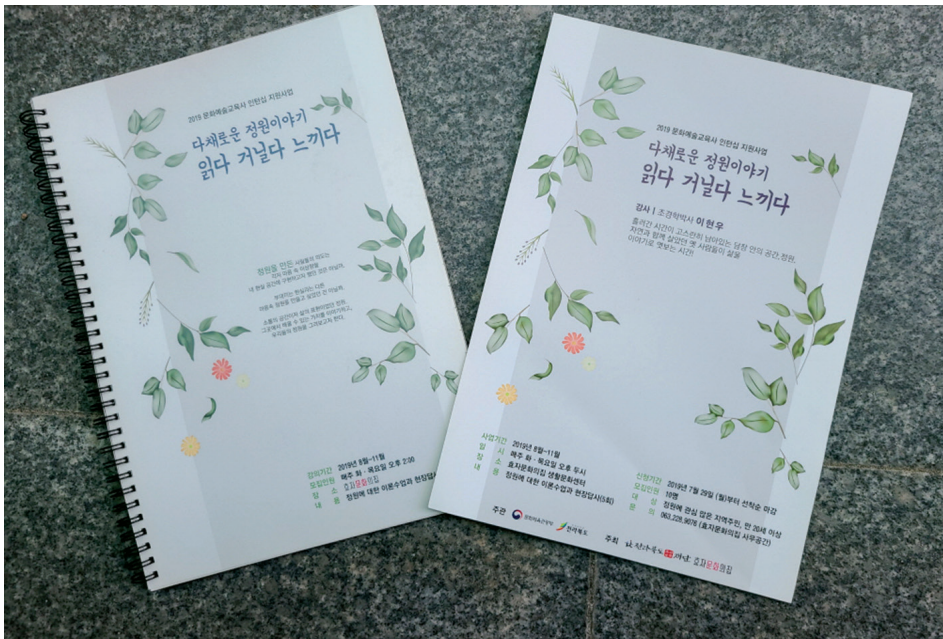
관장님과의 회의에서 주제는 좋으나 참여자들이 느낄 관심 요소 또는 재미요소를 넣자는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 가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이 실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실제로 답사를 가보자는 제안을 기획서에 담아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인 「다채로운 정원이야기 ‘읽다 거닐다 느끼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채로운 정원이야기‘읽다 거닐다 느끼다’
교육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다채로운 정원이야기‘읽다 거닐다 느끼다’
참여자 증정 노트와 전단지
「다채로운 정원이야기‘읽다 거닐다 느끼다」
는 관장님이 지어주신 프로그램명으로 프
로그램의 모든 내용을 담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필두로 ‘6월-프로그램 기획·구성,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기획서 제출’, ‘7
월-프로그램 온·오프라인 홍보(현수막 제
작 및 거치, 배너 비치, 전단지 제작 및 외
부홍보, 효자문화의집, 전주시, 전라북도문
화관광재단 홈페이지 홍보 등), 수강생 모
집을 진행했고 ‘8월 초~11월 말-프로그램

수업 및 답사’로 진행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 일주일 2번(화·목) 3시간씩 강
의를 하는 고강도의 프로그램이 총 31강 진
행되었습니다. 31강 중 27강은 효자문화의
집 북카페에서 수업형식으로 이루어졌고,
4강은 정원과 누각을 찾아가는 답사형식의
수업이 진행되어 부여 궁남지, 진안 수선
루, 담양 소재원, 담양 한국가사문학관 등
을 다녀왔습니다.



[다채로운 정원이야기 ‘읽다 거닐다 느끼다’를 기획&진행하면서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를 말해주세요.]

6-1.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천만 그루 정원도시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이신 최현규님께서 방문하여 수업 참관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장님과 인사를 나누신 후 프로그램의 기획에 대해 질문을 하신 후 이현우 강사님의 수업내용을 한참 듣고 가셨습니다. 최현규님과 이현우 강사님과의 만남은 훗날 <전주시 초록정원사 기본교육과정> 교육 운영 업무로 이어지는 인연의 계기를 마련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6-2.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에 감기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일을 못 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집중은 잘 안되고, 목감기가 심하게와 전화통화가 힘든 때였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던 때에 참여자분께서 ‘집이 어딘지 물어시며’ ‘오늘 김치를 담갔는데 김치를 주고 싶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의 따뜻한 감사함을 느끼며 힘든 것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의 김치는 사랑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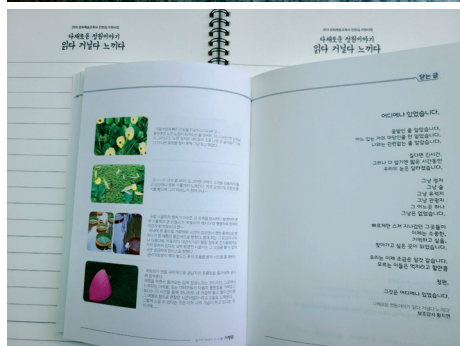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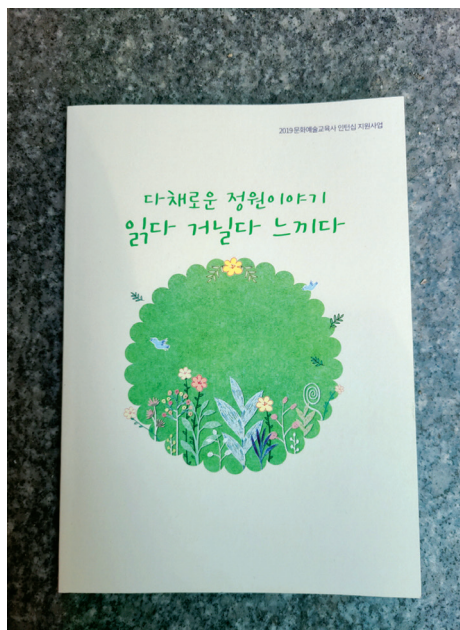
6-3. 프로그램 기획과정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이 남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프로

그램에 참여한 모든 스탭과 참여자들의 글을 넣은 기록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참여자분들께 수업과 연관된 글(수업내용, 탐방, 넓게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정원에 대한 소개)을 다양한 형태(에세이, 시, 기행문 등)로 적어주시라 공지했습니다. 참여자 한 분당 2페이지 정도를 생각하여 페이지 수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더니 4페이지, 16페이지를 내신 참여자분이 계셔서 놀라웠고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깊은 애정을 쏟아주시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반대로 인턴십 프로그램 기획&진행하며 아쉬웠던 점도 있었나요?

프로그램은 기획 당시 수업에 80% 이상 참여한 참여자에게 수료증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습니다. 날이 덥든 비가 오든 참여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마음의 표현이라 생각하며 좋은 취지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출석 체크 시간에 맞춰서 오신다던가, 결석임에도 출석을 했다고 체크하시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대해 고심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반면에 100% 참여한 열성 참여자도 많았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에너지가 시너지

가 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더 풍부해지
는 촉매가 되기도 하지요. 참여자분들께 프
로그램이 종료되는 날 그 열정에 감사 인사
를 드렸습니다.



다채로운 정원이야기 '읽다 거닐다 느끼다' 에세이

교육사님이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정원에 대해 정보를 취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글입니다. 문화재 관람을 하면서 해설을
요청하면 일반적으로 문화재의 역사와 건물
에 대한 설명이 주인데, 어느 해설사분은 문
화재에 심어진 식물에 대한 설명까지 확장
해서 설명해주시는 점이 인상적이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콘텐츠는 나의 주변
에 있고 발견한 콘텐츠를 제목 또는 응용하
여 나의 지역에 맞게 활용을 시키며 주민들
을 이해하고 주민들이 뭉치는 과정에 있는,
그 계기를 만드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희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문화행사, 문화예술교육의 기획과 운영 분
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미술관에
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머물러 있지 않았지만, 열심히 달리다 보
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
다. 문화예술 분야의 공공사업이라는 점은
제가 해온 일의 공통점이기에 앞으로 하게
될 일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
램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험해보

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육사에게 조언 한마디를 하신다면?

문화예술교육사로서 스스로 저의 능력과 역량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있지만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읽게 된 아르떼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육사님들의 능력이 역량으로, 역량이 실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자신 있게 경험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역량과 경쟁력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을 잘 알고 잘하는 것의 증명이 아니라 발전 가능성을 의미한다. (중략) 능력은 사용 가능한 힘, 가능성을 뜻하지만, 역량은 실제 현장에서 발휘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따라서 능력은 몇 가지 자격제도로 측정할 수 있지만, 역량은 자격제도로 측정하기 어렵다. 역량은 오로지 현장에서 쓰이는 역할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라는 능력이 가능성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역량이 될 수 있도록 그 쓰임새가 많아졌으면 한다. 자격증

으로 제도화될 수 없는 더 많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경험을 통해 능력이 역량으로 역량이 실력으로 인정되기를 바란다.”

출처 : <https://blog.naver.com/artezine/221509369442>

함초롱에게 [문화예술교육사]를 한 단어 또는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항상 나의 주변을 관찰하며 주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 「다채로운 정원이야기'읽다 거닐다 느끼다」는 정원의 이해가 기본이어야 한다는 이현우 강사님의 조언, 직접 정원을 거닐어야 한다는 관장님의 의견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느끼는 참여자들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보자는 기획자의 생각이 모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며 느낀점은, 혼자 생각보다 우리라는 여러 사람의 의견과 경험이 함께 했을때 더 알차고 깊은 프로그램이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중앙 신문 문화부 기자 조석창

문화 분야 기자님으로서 문화의집 프로그램 기획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문화의집은 문화를 매개로 주민들과 일차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최전선에 위치한 곳입니다. 문화정책이나 문화담화, 문화 기초 등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크게 연관된 생활문화가 운영되는 곳입니다. 때문에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채 구성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칫 이런 것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문화의 질이 낮아지고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문화의 집마다 운영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을 하면서 일정 부분 이상 수준을 가진 문화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민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자문화의집 사업 중 가장 근접한 사업에 대해 기억나시는 것은 있으신가요?

효자문화의집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가장 눈에 관심이 가는 프로그램은 은희천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는 고전음악 감상입니다.(프로그램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이 프로그램은 선홍진 관장님이 예전부터 관심을 뒀던 고전음악을 바탕으로 은희천 교수님의 친절하고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설명과 음악감상으로, 다른 문화의집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두지 못했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전음악 감상은 지루하다고 느끼는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또 이런 류의 프로그램은 다른 곳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지역민들의 음악적 수준을 올리고, 은희천 교수의 강의로 일정 정도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자님께서 가장 하고 싶은
문화활동이 있다면?**

문화현장의 기록사업입니다. 기록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러 사정을 핑계로 기록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지요. 예를 들어 전북에는 수많은 무형문화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무형문화재가 너무 흔하다고 할 정도지요. 이들의 각각의 기록들이 각각의 기관들에 의해 매우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긴 하되 누가 언제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전북도청이 앞장 서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기록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리축제나 전주영화제와 같은 대규모 축제나 행사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행사 기록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규모 축제나 소규모 공연 등은 기록 자체에 신경 쓸 여지가 없는 게 현실이지요. 기록이 쌓이면 그것이 곧 역사가 됩니다. 하찮은 문화현장 기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쌓이면 전주 문화의 역사가 되고 더 나아가 전북문화의 역사가 됩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죠.

문화 현장을 담는 기자님으로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관련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보람은 무엇이었나요? 또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문화현장에서 땀나게 뛰는 사람들, 즉 문화인력들의 땀 냄새를 맡게 되면 그것보다 기분 좋은 일은 없습니다. 리허설을 금방 마친 무용수의 땀 냄새는 세상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향기입니다. 이런 향기를 직접 곁에서 맡으며 이들의 애환과 이들의 고심과 이들의 모습을 지면에 소개하는 것은 무척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들의 향기를 맡기가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행사나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죠. 무척이나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공연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서라도 무대에 서고 싶어했습니다. 무대에 대한 갈증과 열망이 옆에까지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반면 공공기금을 지원받았으니, 무관중이든 온라인이든 어떤 형태로든 별다른 준비없이 무대를 만드는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어차피 관중은 없고, 공공기금을 지원받았으니 소비를 해야 하는 형태의 무대는 진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투루 무대를 만드느니 아예 반납을 하자, 그것이 공공기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무척이나 아쉬

운 대목입니다.

**민간문화시설과 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시설 간 융합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하나와 하나가 합해 셋이 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적은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사적 이익 즉
사익이 배제된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하
지만, 사익이 개입될 경우 문화시설 간 융
합은 시너지효과가 커녕 오히려 자멸의 길
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현장에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는 문
화인력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
신들이 있기에 전북의 문화는 오늘도 살아
있고, 활기찬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문
화인은 배고픈 직업이라고들 합니다. 하지
만 비단 오늘날 문화인은 배고픈 것인지 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공공기금
지원에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것이 아닌가
되짚어볼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자신의 예술적 기량이 자존
심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

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지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자존심이 공공기금 지원에
의해 희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
입니다. 예술과 문화는 자존심입니다. 돈,
예산 모두 중요하지만, 문화인이 항상 지녀
야 할 것은 문화적 자존심이라는 말씀을 드
리고 싶습니다.

쭈욱~ 하모니 동호회 이병태 대표

“생활문화와 노닐었을 뿐인데, 별이 왜 거기서 나와”

어느 늦가을, 남녘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야유회 버스 안, 장기 자량이 빠질 수 없다. 대학 동기 둘의 멋진 하모니카 2중주를 들으면서 하모니카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이듬해 2월‘효자4동 주민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하모니카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1년 기초과정을 수강하면서 동호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오래도록(쭈~욱) 조화롭게(하모니) 하모니카 공부에 매진하자는 취지로, 동호회 명을‘쭈~욱 하모니’라 명명했다. 열정적으로 지도 해주시는‘김정숙’선생님의 카리스마에 흠뻑 빠져, 회원 모두는 밀도 있는 연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연주력이 향상되고 기초과정에만 머무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동호회는 안정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으면서 보다 성숙된 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모색하게 되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했던가,‘효자문화의 집’이라는 아늑한 공간과 인연을 맺는, 행운을 얻게 되었으니, 그로

부터‘쭈~욱 하모니’는 본격적인 하모니카 동호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효자문화의 집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생활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아낌없는 후원과 친절함 안내에 힘입어, 우리 동호회는 차츰 날개가 자라기 시작했다.

연습에만 매달리던 어느 날, 무대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요양병원을 찾아 환우들을 위로해 드리는 공연 봉사였는데, 어찌나 떨었던지 어떻게 연주를 마치고 무대를 내려왔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시간이 약이 되었을까, 마냥 떨리고 두렵기마저 했던 무대가 제법 여유롭게 설렘을 즐기는 무대로 농익어 갔다. 우리 동호회는‘효자문화의 집’의 든든한 후원 속에“전주시 열린시민 강좌”식전 공연(2015. 전주시청 강당), “효자문화의 집 재개관” 기념 공연(2015. 서부시장 특설무대), “천년전추천년사랑축제” 공연(2015. 풍남초등학교 강당), “한옥마을 플래쉬몹” 공연(2015. 전주한옥마을), “뜻밖의 휴가2” 공연(2015. 덕진공원 특설무대) 문체부 주최



“문화자원봉사” 공연(2015. 진안 백운초등학교), “‘잇다’생활문화축제” 공연(2016 진안문화의집 일원), “수요일엔 칙칙폭폭 문화수(水) 역(驛)” 공연(2016. 춘포역) 등 다수의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 어르신, 장애우 등에게 문화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면서 문화적 성취감을 얻고 삶의 보람을 찾는 한편, 여러 지역 축제에 초청되어 공연을 진행하면서 이웃과 감성

을 교류하고 화합을 꾀하며 건강한 문화공동체를 이루는데 이바지하기도 했다. 특히 2016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동안‘북 서울 꿈의 숲’에서 펼쳐진‘2016전국 생활문화제’에 참가하게 되었다. 전국에서 참여한 여러 생활문화 동호회와 버스킹 무대에 함께 서 보면서,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고, 문화적 안목을 한층 높이는 큰 계기가 되기도 했다.

‘효자문화의집’에 선홍진관장님이 취임하였다. 자그마한 키에 늘 미소가 가득하신 분, 어디에서 샘솟는지는 모르겠으나 끊임없는 열정으로 뛰고 또 뛰시는 분. 그분이 부임하시고 ‘효자문화의 집’에는 늘 밝고 생기가 넘쳐났다. 중앙 부처 및 지자체 등의 각종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따오느라 발품을 팔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양이면 여러 동호회를 그 사업을 구현하고 실행하고자 덩달아 분주하기만 했다.

2017년 7월 18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열린, 2017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전북 지역 예선 대회에 ‘쭈~욱 하모니’ 동호회가 참가하게 된 것도 ‘효자문화의 집’의 끈질긴 권유와 적극적인 추천에서 비롯되었다. 양악, 국악, 무용, 연극 등 공연 형식의 구성을 갖춘,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이 참가할 수 있었고, 최종 2~3팀을 선정한 후, 본선 진출 기회를 부여하는 대회였다. 우리 동호회가 그동안 봉사활동 무대나 축제 무대에서 공연 경험을 쌓았다고는 해도 오디션 프로그램 무대에는 서본 경험이 없는 터라 처음에는 망설이기도 했으나, 한편 새로운 생활문화에 도전해 본다는 설렘과 호기심으로 대회에 임하기로 했다. ‘희망의 속삭임’이라는 곡을 소프라노 파트와 알토 파트로 나누어 연주하고, 여기에 비네타 하모니카로 비트를 넣어주는, 하

모니카 3중주 형식으로 구성하여, 우리는 매일 매일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였다.

지역 예선 대회가 열리는 날, 무대 의상으로 말끔히 차려입고 차례를 기다리는데, 긴장감은 고조되고 입은 바짝바짝 말라만 갔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무대로 나가, 간단하게 동호회 소개를 한 후, 7명의 회원은 하모니카 선율에 희망을 실어 속삭이듯 연주해나갔다. 연주하는 사이사이 객석에서는 “거룩한 천사의 음성…” 하면서, 연주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부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듯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렁찬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무대를 걸어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고 나뻘의 성취감 같은 걸 느꼈다. 드디어 시상식 시간이 되었다. 먼저 지역 오디션 참가 팀 중 샤이니스타 10팀을 선정하여 발표하는데, 우리 팀도 샤이니스타에 선정되어 상패를 받는 영광을 안았다. 이젠 샤이니스타 10개 팀 중 최종 3팀을 뽑아 서울 본선 대회 출전 기회를 부여하는 순서만 남겨두고 있다. 사회자는 잔뜩 뜬을 들이고 모두들 긴장감 속에 귀를 열고 있는데, 맨 먼저 ‘꽃과 나비(무용)’ 팀을 호명하고, 이어 ‘순창 취타대(궁중 행렬)’ 팀을 부른다. 이제 마지막 한 팀만 남았다. 모두가 사회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마지막 한 팀은…” 하면서 다시 한번 길게 모두를 집중하게 하더니, “쭈~욱 하모니(악기 연주)” 팀이라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닌가.

회원 모두는 할 말을 잊고 그저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본선 대회 진출이라는 벅찬 감동이 채 가실 겨를도 없이, 우리 회원은 본선 무대에서 연주할 곡을 선곡하는데 매달려야 했다. 본선까지는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팀들이 출전하여 겨루는 경연이기에, 개성이 있는 선곡과 독창적인 무대의 구성 등 많은 고심을 한 끝에, 전반부에는 ‘쥘레꽃’이라는 제목의 동명이곡(同名異曲), 즉 이연실의 ‘쥘레꽃’과 ‘백난야’의 ‘쥘레꽃’을 1절씩 메들리로 엮어서 연주하고, 이어서 리듬악기(짜짜이)의 예비 박자를 시작으로 후반부 곡, ‘비틀즈’, ‘오블라디 오블라다’를 연주하는, 가요와 팝의 복합 구성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부단한 연습은 인간의 손을 신의 손으로 만들어 준다’했던가. 6분 드라마를 연출해야 하는 만큼 연주력의 향상에 끊임없이 반복 연습을 해야 했고, 무대 매너와 의상 등에도 세심한 준비를 해야만 했다.

2017년 9월 14일 서울 ‘유니버설 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지역 예선을 통과한 10개 지역 25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2017사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 대회가 열렸다. 전북에서는 ‘쭈~욱 하모니’, ‘꽃과 나비’, ‘순창취타대’의 3 팀이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다. 주최 측에서 1박 2일 동안 교통편과 호텔 숙

박 및 3 식을 제공해 주었는데, 쭈~욱 하모니 팀과 ‘꽃과 나비’ 팀은 같은 버스로 전주에서 출발하였고, ‘순창취타대’ 팀은 참가 인원이 많은 탓에 다른 버스로 순창에서 출발, 13일 점심 무렵 대회 장소에 도착하여, 음향과 조명을 점검해 보고 무대의 입장과 퇴장을 실전처럼 연습해 보는, 리허설을 진행하였다. 유니버설 아트센터 대강당은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서, 마치 유럽의 유명 오페라 극장에 들어온 느낌마저 들었다.

드디어 본선 경연이 열리는 날이다. 본선 경연 프로그램을 받아 보니, 우리 팀은 25개 참가 팀 중 스물네 번째 순서였다. 매는 먼저 맞는 게 나은 법인데, 우리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긴장감과 초조함은 모두를 더욱 지치게 했다. 객석에 앉아 다른 팀들의 공연을 관람을 하기도 하면서, 짹짹 빈 공간을 찾아 연습하기를 몇 번인가 반복하다 보니, 결전의 시간이 임박해 왔다. 공연 진행자가 무대 입구에서 준비하라는 신호가 왔다. 사회자의 세련된 목소리가 ‘쭈~욱 하모니’를 부른다. 모두는 수없이 연습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미소를 머금고 입장했다. 핀 마이크를 왼손에 끼고 하모니카를 오른손에 들고 무대의 중앙에 서서 애써 여유로움을 지어 보였다. 2층 음향실의 음악 감독과 무언의 교감이 이루어진 후, 준비한 곡을 연주해나갔다. 휘황하

고 찬란한 조명에 절로 분위기는 올라가고 완벽한 음향 시스템에 고무되어 매끄럽게 연주가 진행되고 있었다. ‘백난야’의 ‘필레꽃’ 연주 시에는 누구랄 것 없이 객석에서 연주에 맞춰 일제히 합창을 하는 소리가 들려 왔고, ‘비틀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가 연주될 때에는 하나같이 박수로 호응해주었다. 그야말로 무대화 객석이 하나가 된 듯했다. 공연을 마치고 객석 쪽을 향해 인사하는 데, 관객들의 표정이 해맑아 보였다. 왠지 모르게 좋은 느낌이 들었다. 참으로 후련하기만 했다.

모든 참가 팀들의 경연이 끝나고 농악팀의 흥겨운 가락에 맞춰 각 팀의 대표들이 무대 중앙으로 모이는 대동제의 시간 ‘쭈~욱 하모니’ 대표인 나도 하모니카로 흥을 돋우며 무대로 올라갔다.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시상은 10개 지역 25개 참가 팀 가운데 인기상 1팀(트로피 및 상금 100만원), 금상 3팀(트로피 및 상금 150만원), 대상 1팀(트로피 및 상금 200만원)의 5개 팀만이 수상하게 되어 있었다. 사회자가 먼저 인기상을 발표한다. 전북 대표 ‘꽃과 나비’팀이 인기상으로 뽑혔다. 축하 박수를 보내기는 하면서도 내심 불안감이 밀려왔다. 주최 측에서 상을 줄 때, 어느 정도 지역 안배를 할 것이고, 자연히 우리 팀은 수상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경연 당시 객석에서의 합창과 박수 소리, 그

리고 관객들의 밝은 표정 등을 떠올려 보면, 무슨 상이든 하나는 받을 거라 기대했던 만, 순간적으로 마음이 허허로워졌다. 전주로 내려가는 버스 안 분위기가 얼핏 그리진다. 서울로 올라올 때는 웃으면서 덕담도 나누는 부드러운 분위기로 올라왔건만, 우리 팀만 맨손으로 내려간다는 생각을 하니 서로에게 미안하고 어색할 것만 같아, 그것이 신경 쓰였다. 그런대로 시상식은 이어지고 금상 3팀을 발표하는데, 경기도 대표 팀이 먼저 호명되고, 다음으로 경남 대표 팀이 불리었다. 그리고 금상의 마지막 한 팀의 발표만 남았을 뿐인데, 이 어찌 된 일인가. 천만 뜻밖에 “샤이니재능상, 전라북도 대표, “쭈~욱 하모니 팀”하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객석에 있던 우리 회원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모두 무대 위로 달려왔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 상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터라, 그 기쁨은 큰 파도가 되어 밀려 왔다. 시상식에서, 벽찬 감동에 상기된 얼굴로 상패와 상금 150만 원의 피켓을 받아 든, 회원들의 모습이 한없이 자랑스럽기만 했다. 이제 오늘의 대상인 샤이니스타상 한 팀의 발표만을 남겨 놓았다. 인지상정이었을까, 애향심의 발로였을까, 전북에서 세 팀이 본선에 올라와 전주의 두 팀은 이미 상을 받았는데, ‘순창취타대’팀만 아무 보람없이 내려간단 생각하니 사뭇 마음에 걸린다. 호텔 조식 장소에서 눈인사

를 나누던 '순창취타대' 몇몇 대원들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다섯 개의 상 중에서 세 개의 상을 전북 팀에 몰아줄 리는 없는 노릇이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출연자는 물론 객석의 모든 관객들도 숨을 죽이고 사회자의 마지막 대상 발표만을 기다리는데, “2017년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오늘의 대상, 사이니스타상 전라북도 대표 순창취타대”라고 호명하지 않는가. 삼십여 명이나 되는 취타대 대원들의 입에선 탄성이 흘렀고 감격의 눈물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마치 우리 팀이 대상 수상을 한 것처럼 한없이 기뻐다. 우리 고장 전북이 다섯 개의 상 중에서 대상을 비롯해 세 개의 상을 휩쓸다니, 믿어지지 않았고 더없이 벅차기만 했다. 말로만 듣던 '예향 전북'은 말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가 지역을 안배하여 상을 나눠 주는, 그런 대회였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수상 결과였을 것이라 생각하니, 전북 대표로 참가한 모든 분들이 더없이 커 보였다. 전북인으로 살아온 게 너무 자랑스러웠다. 시상식이 끝나고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공교롭게 초대 가수로 우리 고장 김제 출신 '현숙'이 나와서 '오빠는 잘 있단다'라는 노래를 부른다. 오늘따라 '현숙'이의 노래하는 모습이 더욱 예뻐만 보였다. 노래를 마치고 들어가는 '현숙'에게 '전북의 패거' 소식을 귀띔해주었다. '현숙' 연신 감동, 감동이라며 마음으로부터 축하를 해

주었다. 고향이란 정말 묘한 힘을 가지는가 보다.

전주로 금의환향하는 버스 안은 사이니스타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따금 차창 밖으로 내다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효자문화의 집'이 앞마당에 명석을 깔아 주었다. 그곳을 드나들며 재잘재잘대고 노닥노닥했을 뿐인데, 누군가는 '생활문화를 향유한다'는 말로 품격을 높여 주었다. '효자문화의 집'에 등 떠밀려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첫 발을 댄, 경연 무대에서의 아름다운 도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경험으로 자리할 것 같다.

인간은 누구나 언제든 찾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고향이 필요하다. 그런 고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나에겐, 생활문화와 노닐다 보면 별이 되는 곳, '효자문화의 집'이라는 또 하나의 고향이 생겼다

“생활문화와 노닐었을 뿐인데, 별이 왜 거기서 나와”

전주 문화의집 20년

효자문화의집 편

발행처 | 전주문화의집협회

발행인 | 한천수

편집인 | 선흥진

글쓴이 | 선흥진, 오민지, 홍지영, 문지연, 하미숙

발행일 | 2021. 02. 26.

디자인 | ㈜이산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전주문화의집협회에 있습니다.

이 책자는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